

襄陽州為襄陽

襄陽文化

제27호

襄陽文化院

萬戶千戶從實仕叙用兵曹啓曰受官教後或有
 品以上教授稱某官儒學教授官叅外稱
 稱教導之教授改稱某道醫學教諭
 道都巡問使鷹子○庚午太白晝見○世
 馬兩元子兩殿賜酒八直大小臣也
 趙庸成均大司成尹會宗等取文科館試人
 曰今日多至昏呈卷者百餘人三館告曰令以
 既日昏呈卷者四百餘人曳白者二十餘人是試也自朝
 賢而赴試者三十餘人後三日生負鄭之澹等
 不及赴館試擊鼓申聞命漢城府試之數十

앙앙8경



※ 사진제공 : 제8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1경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



남대천은 오대산, 구룡령,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약 70Km 하상을 따라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며 4~5월이면 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에는 연어가 소상하는 회기 본능의 "어머니의 강"이다.

5경 해운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조대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해운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안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 위 노송 사이에 육각정자가 있으며 천년송 일출의 명소이다. (양양군 명승 제68호)

2경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대청봉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기슭이며 공룡릉, 화채릉 등 주요 능선의 출발점으로 내삼포와 외삼포의 분기점이다. 주로 눈썰나무 군락지이며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6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인구리 해변의 죽도섬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 송죽이 사계절 울창하여 옛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던 명소이다.

3경 자연도 함께 쉬어가는 신비로운, 오색령



영동과 영서를 44번 국도로 잇는 오색령(920m)은 남설악 쪽으로 오색약수, 민경대, 선녀탕, 민물상 옥녀폭포의 남설악과 심이선녀탕, 옥녀탕, 봉정암 방향의 외설악을 함께 아우르는 아름답고 험준한 경이다.

7경 강원도의 베네치아, 남애항



현남면 남애리에 위치하며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이다. 한 때 386세대의 흥금을 올린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새벽 항구에 입항하는 싱싱한 생선을 값싸게 먹을 수 있다.

4경 시원한 폭포와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오색주전골



암반석이 5색을 띄며 오색석사의 한 나무에서 5색의 꽃이 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색령에서 발원한 맑은 물과 비경은 금강산을 옮겨놓은 듯 장관이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8경 일출이 아름다운, 의상대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하며 송강정철(1536~1593)의 권동별곡에 소개된 관동8경 중에 으뜸이며 동해안 일출의 명소이다. (강원유형문화재 제48호, 양양군 명승 제27호)



襄陽文化

제27호

襄陽文化院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MG새마을금고 양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033) 671- 4413 . 4414

FAX) 671-4415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PHOTO CLUB



문화학교 개강식



제7회 물치만세운동기념식



양양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



제9기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기미만세운동재현행사



제5회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향대회



양양600합창단 창단식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양양문화원회원 향토문화교육



경로친문예작품 시상식



문화학교학생 유적지 답사



문화원회원 선진지 견학



복무장병 전통문화교육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양양문화원 연극반 공연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8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최홍규	13
신년사 국회의원 정문헌	15

향토사료

● 양양600주년기념사업 세미나 자료	17
- 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18
- 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35
- 웰빙식품 테마공원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48
●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63
- 양양현산문화제의 변용과 정체성진단 임관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64
- 양양현산문화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74
-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에대한 거시적접근 김진동 강원도립대학 교수	94
● 현산공원 비 위치도	108

문화원 회원 교육(특강)

● 특강	
- 1차 : 양양학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	110
- 2차 : 양양의 역사 연혁과 명칭유래 박도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126

● 현지답사
- 미천골 선림원지(발굴조사 현장) ----- 144

문화학교 운영

● 2015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 147

휴양림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150
(산림문화휴양관,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관, 산책로)

건강상식

● 죽상동맥경화증 ----- 155

명승

● 구룡령 옛길 ----- 162

경로호친문예작품

● 입상현황 ----- 163
● 심사평 ----- 164

2015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 174

신년사



양양문화원장
양양 여준

희망찬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보살피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 질환 메르스의 여파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문화원은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 가는 사료를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꼭 필요로 하였던 우리 지역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의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그 조사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금표인 교계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여 학계에 새로운 연구 과제로 떠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양현산문화제의 명칭변경 등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제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였으며, 조선 후기 양양 부사를 지낸 연암 박지원의 선양을 위한 논문을 강원도 문화원연합회에 발표하였으며, 문화원 회원을 위한 향토사 교육의 일환으로 강원도립대 양언석 교수님과 강릉원주대학교 박도식 교수님을 초청하여 양양의 역사문화에 대한 특강과 동해신묘와 지난 7월부터 재 발굴에 들어간 선림원지의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화원 회원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좋은 기회로 승화시켰으며, 특히 금년은 우리 양양으로 이름 불려진지 60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로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우리군에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에 많은 기여



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6.25한국전쟁 시 38이북 양양지역에서 실시된 미 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 직접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민간주도 7년차인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온 군민의 참여속에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제5회 강원도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가 각 시, 군에서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화원 회원 탐방은 경기도 포천의 채석장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한 모습과, 포천 한탄강변의 비둘기낭 폭포를 답사하였으며,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탐방은 서울의 경복궁과 경희궁 등 고궁을 탐방함으로써 많은 견문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문화학교에서는 매년 선생님과 수강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해를 더할수록 실력이 배가되어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각종 백일장과 대회에서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국내문화탐방은 물론 제38회 양양현산문화제와 제6회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등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향토사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의 성원속에서 우리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희망찬 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사



양 양 군 수
김 진 하

‘2016년은 양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이 가득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행복·건강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한해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15년은 그 어느때보다 가슴벅차고, 감격스러웠던 한해였습니다. 인고의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군 최대현안이자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방규제 완화 정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랑스런 군민과 각급 기관 단체, 공직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양양출범 60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새해에는 지나온 600년 양양의 저력을 디딤돌 삼아 3만군민과 500여 공직자와 함께 한 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양양의 역사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이 더 이상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은 어느때 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골든타임이자, 전환

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고, 낙산도립공원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지역 해제, 지체를 거듭하던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와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양양국제공항의 날개가 한층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끝드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 놓인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것 중에, 무엇보다 첫 번째는 오색케이블카의 차질없는 추진일 것입니다.

우리군은 동해바다, 설악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껏 이를 활용한 이렇다 할 관광시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는 100만명이상의 관광수요가 창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친환경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숙박시설 확충, 아울렛 쇼핑시설 유치 등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 양양이 동해안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동서고속도로의 전면 개통이라는 기회일 것입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군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교통중심지가 됩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최단거리의 고속도로로서, 동해안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산업의 요충지로 변모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개발이용가능한 토지를 추가조성하고 수도권 인구의 유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고속도로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우리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동해안 철책철거,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 구 동해고속도로와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가 폐지됩니다. 규제로 투자를 꺼리던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촉진시켜 침체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함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

공의 열쇠입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지금까지 다져온 노력과 성과들이 구체화되고 그 성과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가시화되고 있고, 양양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는 군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군의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양양전통시장은 지속적인 차별화로 경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영동지역 최고,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양소방서신축,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조성 등 양양군이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성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군은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변화를 확실히 주도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우리 모두의 사고변화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에 쳐 놓은 방어벽을 높다랗게 세워놓고 갇혀만 있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뿐아니라, 그 존립자체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로 양양군이 더 큰 내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6년은 원숭이 해입니다. 예로부터 잔나비라 부르기도 하는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영특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유기를 보면 여의봉을 휘두르며 구름을 타는 원숭이 손오공이 나옵니다. 그 손오공은 불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10여 만리 길을 떠나는 삼장법사를 호위하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괴들과 싸우며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갑니다.

양양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손오공처럼 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난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만군민과 500여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양양이 그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는 천하무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양양군 의회의장
최 홍 규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병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 온 군민 여러분께 따뜻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의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슬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군민과 하나 되어 명품도시 양양군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민생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광 그리고 문화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를 풀어가면서 각종 분야에서 강원도의 핵심군(核心郡)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여 년간 추진해 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우리 군민의 화합과 단결된 의지로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양국제공항이 개항공항으로 지정되어 공항을 모항으로 한 항공사가 탄생하는 등 항공상품의 획기적인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하늘 길도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서·동해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명실공히 우리군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소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군민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부응하는 것, 그것이 군민과의 소통이고 경쟁력입니다. 이는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반드시 군민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

올해는 양양 정명 600주년의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젠 새로운 미래 양양 100년을 알차게 준비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부푼 꿈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국 회 의 원
정 문 현

전통과 예향의 고장, 우리 양양군의 향토문화지 『양양문화』 제2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양 예술문화인을 비롯 양양군민 여러분 모두 병신년(丙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세밑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심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내일을 차분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20년 숙원사업이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9대 국회 들어와서 중앙정부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지난 늦여름 드디어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확정돼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 그리고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구간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국비 예산도 강원도 요청액 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해 놓았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 완공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넘게 개발도, 보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낙산도립공원 문제는 낙산사와 하조대, 남대천, 오산리 등 역사·문화·환경자원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 부처와 차분히 협의해 나간다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양 문화예술인 및 양양군민 여러분!

조선 후기 양양부사를 지냈던 연암 박지원은 퇴임 이후 “녹봉으로 1만 2천냥을 받았는데 부사 직봉으로 2천냥,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0년 전 연암 박지원이 극찬했던 우리 양양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 속에서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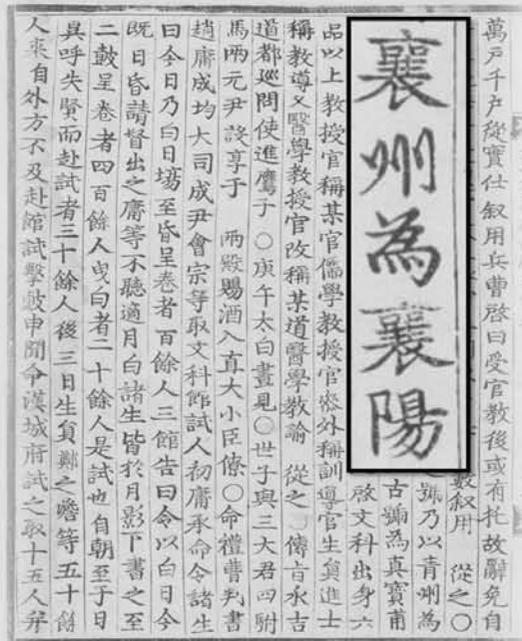
‘매서운 추위 속에 매화가 피어나듯’, 올해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양양은 새롭게 도약, 성장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내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나누며 정겹고 밝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양문화』 제27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해 양양군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600주년기념사업 세미나 자료



- 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 새로운양양600년 문화전략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 웰빙식품 테마공원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주 | 제 | 발 | 표

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

1. 양양의 역사적 정체성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3. 양양군의 미래비전 : 양양학과 가치창조의 힘

1. 양양의 역사적 정체성

지역문화 창조 자원 (DNA)

- 역사 속-양양학(襄陽學) / 濊國 오래된 지혜 찾기
- 지역역사는 자원이다: 1416년 양양정명, 1896년 양양군 출발, 정군 120년 준비, 광역권 도시 선점 *혼일강리역대국지도 참고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지역문화 활성화: 양양학(襄陽學)의 힘.
- 양양지역만의 발전전략 찾기: 예(濊) - 오산리신석기유적, 오래된 불교유적, 동해묘신화유산, 혁신운동의 온고창신(溫古創新)
- 지역문화유산의 활용과 추진전략
- 양양의 정체성: 문화감성(文化感性)시대의 활성화 운동
- 랜드/마인드 일체, 공동체창조정신, 양양스토리텔링, 오래된 지혜 찾기
- 친환경과 생태 건강 메카
- 낙산사, 양양8경, 농산어촌 체험 마을(신전통), 송이/연어 등.
- 지역문화콘텐츠산업 확장
- 이야기, 꿈 등을 활용한 멀티융합문화산업/감성관광산업 (게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축제, 이벤트, 캐릭터, 팬시, 테마공원 등)

1. 양양의 정체성

양양군



심볼마크

- 밝고 깨끗한 양양의 태양, 자연, 바다를 형상화하였으며 양양의 '이'를 겹치게 표현하여 세계속의 교통, 관광, 문화를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단순하게 이미지화.
- 태양의 붉은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번영을 기원하고 바다의 청색은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 녹색은 양양의 자연과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밝고 힘찬 전진을 상징함.



엠블렘

- 양양군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주로 상장, 임명장, 각종 행사시 가슴에 패용하는 리본 등에 사용함.
- 전용 엠블렘은 Full Color, 금색, 은색, 엠보싱(Embossing)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됨



캐릭터/해치

- 양양의 찬란한 일출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머리의 여섯 개의 불꽃은 양양군 6개 읍면의 단합과 화합을 상징하고, 얼굴과 몸의 붉은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번영을 나타내며 배와 다리부분의 청색은 양양의 푸른 자연과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함.
- 캐릭터 네임 로고는 해(태양, 바다)+Kid(아이)의 조합으로 양양군의 찬란한 태양과 밝고 깨끗한 바다를 형상화하여 자연을 담은 친근하고 귀여운 아이를 의미함.

OLEOLE-
YANG YANG

도시브랜드

- 양양군의 슬로건인 '오래오래'의 첫 번째 의미는 94년 월드컵 주제가었던 '오래오래(Ole Ole)'가 연상되는 네이밍으로 'Ole Ole'는 스페인어로 '힘내라, 힘내라'는 뜻과 함께 일종의 감탄사로 브라보, 지화자의 뜻이 있어 '브라보 양양'의 뜻이 됨
- 두 번째 의미는 우리말 그대로 '오래오래'의 뜻으로 선사시대부터 시작되는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동시에 관광 1번지 양양에 오래 오래 머물러 줄 것을 권하는 'long long time'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 세 번째 의미는 '맞이할 오(偶), 올 래(來), 밝은 오(朝), 올 래(來)'로 '오는 이들을 반가이 맞이하면 밝음(태양)이 온다'는 뜻을 포함하는 'Welcome'의 의미로 양양에 많은 손님이 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음.

1. 양양의 역사성

양양군의 역사



양양군은 고대(古代)에는 동예(東濊)라 하였고,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고구려(高句麗)의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었던 것을 신라에서는 익령현(翼嶺縣)이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현종(顯宗) 때, 익령현(翼嶺縣)이 되었다가 고종(高宗) 8년(1221년) 거란병의 침공을 잘 방어한 공으로 양주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고종 44년(1257년) 호적에게 항복한 사건으로 인해 덕령현이 되었고, 원종 원년(1260년) 양주군으로 복속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6년(1397년)에 태조의 외향(外鄕)이라는 이유로 부(府)로 승격시켰고,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며, 태종 16년(1416년) 양양(襄陽)으로 개명하였다가 고종 32년(1895년) 군(郡)으로 고쳤다. 그때 강릉부(江陵府)에 속하였다가 아듬해(견양 원년) 13도제(道制) 실시로 강원도 양양군(1896년)이 되고, 1919년 간성군(杆城郡)이 폐지됨에 따라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이 편입되었다.

1939년 속초면(束草面)이 읍으로 승격되고,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되자 현남면(縣南面)-현북면(縣北面) 및 서면(西面)의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1월 수복지구 임시 조치법 시행에 따라 현남면을 명주군(溟州郡)에 남기고, 현북면-서면을 본군에 복귀시켰다. 1963년 1월 속초읍이 시(市)로 승격되어 독립하자, 토성면-죽왕면은 고성군(高城郡)에 이관되고, 현남면이 명주군으로부터 본군에 환원되었다.

1972년 1월 관금성 비룡폭포 피골이 속초시에, 1973년에 서면의 명개리(明開里)가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에, 손양면(襄陽面) 상왕도리(上旺道里) 일부가 양양면 월리(月里)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2월 강현면 상북리 일부가 속초시에 소속되었다. 1989년 1월에는 손양면 가평리와 송현리 일부가 양양읍 송암리로 편입되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양양읍과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의 1읍 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양양의 정체성

양양군의 역사 / 양양정명 600주년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 및 교수관·훈도관 등의 칭호를 바꾸다.

군현(郡縣)의 칭호를 고치었다. 이조(吏曹)에서 소리가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청하니, 이에 청주(淸州)를 북청(北靑)이라 하고,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 하고, 영산(寧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천안(天安)이라 하고, 보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진보라 하고.....

문과 출신 6품 이상 교수관(敎授官)은 모관유학교수관(某官儒學敎授官)이라 칭하고, 참의(參外)는 훈도관(訓導官)이라 칭하고,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는 교도(敎導)라 칭하고, 또 의학교수관(醫學敎授官)은 모도의학교유(某道醫學敎諭)라고 고쳐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西紀 1416年(陰) 8月 10日
(陽) 9月 1日
태종실록(태종16년, 1416)

1416년 9월 월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8. 10/己巳	8. 11/庚午	8. 12/辛未	8. 13/壬申	8. 14/癸酉
6	7	8	9	10	11	12
8. 15/甲戌	8. 16/乙亥	8. 17/丙子	8. 18/丁丑	8. 19/戊寅	8. 20/己卯	수성 유(03시) 8. 21/庚辰
13	14	15	16	17	18	19
8. 22/甲巳	추분, 현현(23시) 8. 23/壬午	8. 24/癸未	8. 25/甲申	8. 26/乙酉	8. 27/丙戌	8. 28/丁亥
20	21	22	23	24	25	26
8. 29/戊子	그믐(18시) 9. 1/己丑	9. 2/庚寅	9. 3/辛卯	수성 내합(12시) 9. 4/壬辰	9. 5/癸巳	9. 6/甲午
27	28	29	30			
9. 7/乙未	9. 8/丙申	한문, 8월경 상현(17시) 9. 9/丁酉	9. 10/戊戌			
						날짜 기념일 음력 9월

1. 양양의 정체성

양양군의 역사



양양군에서 가장 큰 젓줄인 남대천은 유역에 넓은 삼각주 평야를 이루어놓았다. 이 유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선사시대인들이 살기 편한 곳을 찾아 살터를 이루었던 선사문화의 보고이며 신석기 철기 문화의 가장 오래된 선사문화의 요람이다.

양양 문화는 남대천의 열매다. 양양의 원 이름 이문현(伊文縣)도 남대천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힌 한자로만 보면 중국의 이수(伊水)에서 비롯할 가능성이 있다.

한자의 뜻은 '물 이름 이(伊)'다. 이문의 문(文)을 지명의 쓰임으로 보면 거의 '물'과 비슷한 소리면서 뜻이 좋은 글꼴 문(文)으로 개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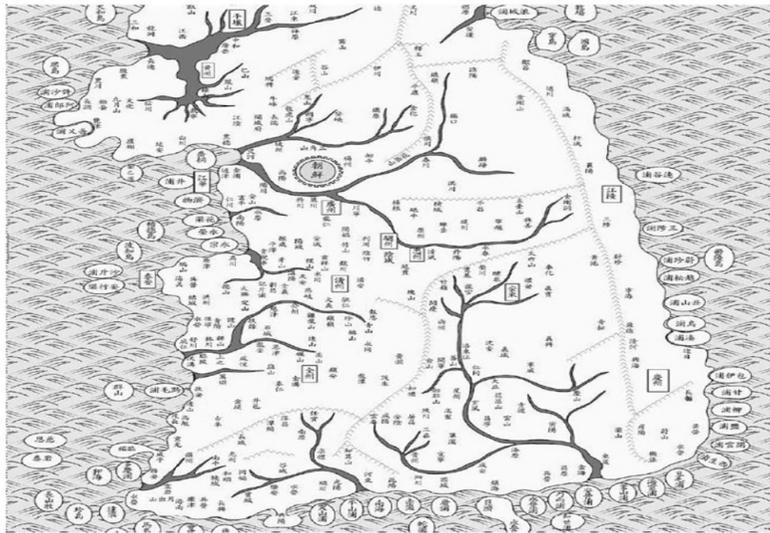
낙산사의 낙산(洛山)을 인도의 보타(普陀) 낙가산(洛迦山)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지만 중국의 낙수와 관련한 의미를 상상할 수도 있다. 이수(伊水)와 낙수가 만나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드는 그런 양상을 바탕으로 지명을 적었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로는 우리말일 가능성이 크다. 하면 '이문-이물-니물(님물)'로 보면, '니(님)'은 앞이며 남쪽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니(님)-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정체성 확립/10월 1일 군민의 날

<이문의 개칭 지명인 익령(翼嶺)의 상관성>

익령의 익(翼)은 전쟁터에서 군사적으로 진을 치는 진형(陣形)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설악(雪嶽)을 정점으로 하는 양양 주변의 지역은 산악이 하나의 큰 성채 곧 요새로서 지역 방위의 중요한 요해지가 된다. 하여 학익진(鶴翼陣)의 진(陣)을 뜻할 가능성이 있다

양양(襄陽)의 '-양(襄)'은 산의 남쪽이나 물의 북쪽을 이룬 경우가 많다. 물의 경우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漢陽)이었는데, 한수(漢水/혹은 한강)의 북쪽이란 뜻이다 (漢水北 <용비어천가>). 글자로 보더라도 뜻 의(義)에 양(襄)을 더한 글자다. 양(襄)자가 높은 언덕 곧 설악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년 발행)

양양정명(1416년8월10일) 이전의 지도상에 양양이라고 명시됨.

1. 양양의 정체성

양양군의 문화

• 선사문화

손양면 오산리(鞍山里)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선사문화의 시대별 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큰 선사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신석기(新石器) 시대인들이 한반도에서는 가장 먼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오산리의 신석기 유적지의 주거지,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의 집 자리와 무덤이 많이 출토되었다. 철기시대 무덤 주위에는 신라시대 무덤도 있다. 당시의 철기문화라 가장 앞선 과학문명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가장 큰 힘이었던 것은 철기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가락국을 병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고조선은 예맥(濊貊)의 문화이고 여기 예(濊)는 바로 강릉-양양을 중심으로 하는 철기문화의 모교지였다. '예'의 고대음은 '쇄-쇠'임을 보면 예국의 문명의 기초가 양양선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현대중국어에서도 소리가 쉐이다. 유적의 연대를 알기 위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서 기원 전 5천년에서 6천년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신석기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주 석장리의 구석기 시대 유물 유적과 함께 신·구석기시대의 유적지의 디딤돌이 되며, 그만큼 양양이, 물 맑은 남대천과 동해의 바닷물이 만나 모이는 곳으로서 삶의 터전을 이룸에 적합한 곳이었다.

• 호국불교/의상과 원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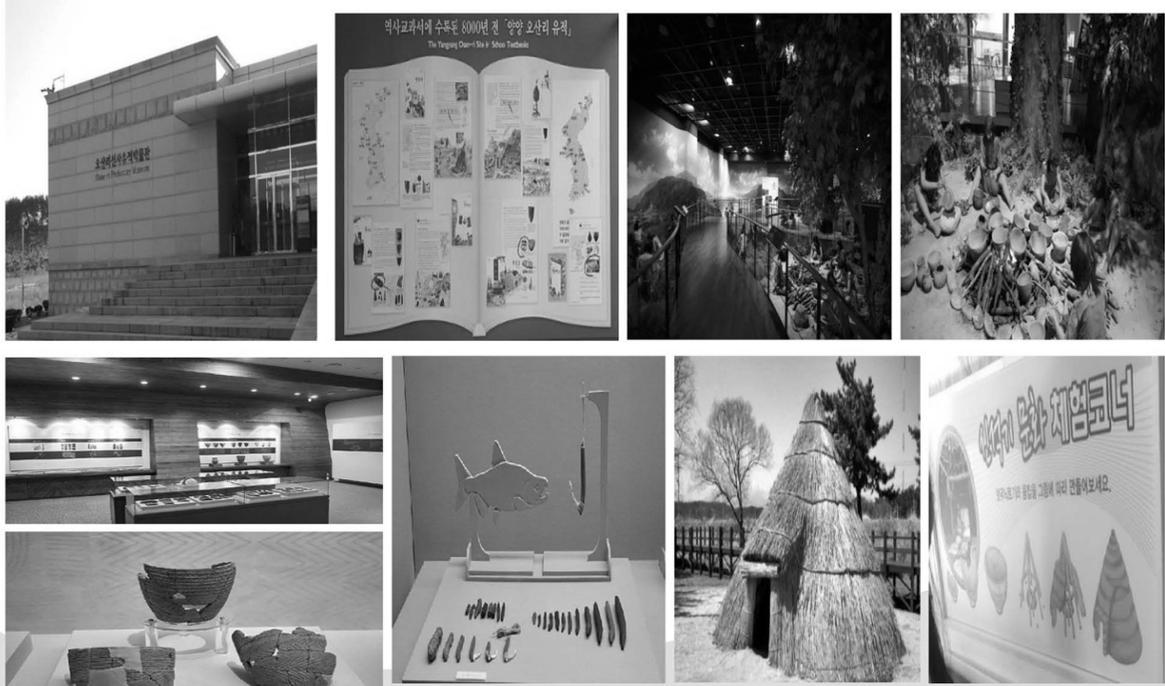
강현면 둔전리(屯田里)에 가면 국보 122호로 지정 보존된 진전사(陳田寺) 3층 석탑이 옛 모습이 선연하다. 신라통일 직후부터 북상하기 시작한 불교문화가 당시 양양 고을에 크게 번창하였다. 사찰(낙산사, 영월사, 오색선사, 선원원, 진전사 등)의 장건이, 당대 고승대덕이었던 큰 스님들에 의해 장건되었다. 특히 낙산사(洛山寺)는 세계 8대 관음성지(觀音聖地)의 한 곳으로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공중불교의 도량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삼국유사> 탐상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洛山二大聖觀音正就調信)의 인연지가 바로 낙산사다. 여기 '조신의 관'으로 알려진 설화는 보각국사 일연(一然)이 조신설화를 채록하는 과정에서 허구성을 가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나 한국문학사에서 소설(小說)의 효시(嚆矢)로 인정해 가는 추세다. 여기서 김만중이 '구운몽(九雲夢)'을 쓰게 되었으며 근현대로 오면서 다시 춘원 이광수의 소설 '꿈' 그리고 영화 '꿈'으로 이어졌다. 국보 306호인 <삼국유사> 아말로 동고의 침략을 받아 조국이 신음할 때 국문을 모으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국난극복의 열매였다. 양양이 <삼국유사>의 중요한 인연의 공간이다.

• 향토방위의 선봉

양양군은 한반도의 중동부 변방에 자리하여 서쪽으로는 협준한 태백산맥이, 동해쪽으로는 왜구의 침략이 발달하던 긴 해안에 연결하여 대관령의 등에서 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조국의 방패 구실을 해왔다. 거란의 침입 때나 몽고병의 말발굽 소리가 온 누리를 뒤덮었을 때 양양의 산하는 수천 년을 두고 솟아있는 불멸의 믿음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위안의 등대, 학익진의 대열로 외세를 막고 물리치는 용맹한 해오름의 성이었다. 동해안 수호의 첨병이 되었고 삶의 모교지였다. 고려 초엽에는 양주성을 쌓아서 향토수호의 기지로 삼았고, 고려 중엽에는 거란병의 침입을 크게 물리쳐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를 설치하였다. 그 뒤 조선 성종 때 조산(趙山)에 대표수군만호영을 설치, 영동지방의 해상방어까지 맡은 군사 요충지가 되었다. 남대천이 경유에 따라서는 전쟁시 해자와 수군의 군영지의 구실도 했던 기지였다. 구한말의 일제의 강점기에는 양양을 지역민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기치 아래 의병(義兵) 항쟁을 하였으며, 특히 기미독립만세(己未獨立萬歲) 운동에 앞장서서 지방으로서는 가장 열렬한 구국항쟁의 대오에 앞줄에 섰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간회 조직, 농민조합운동 등이 계속되었고, 8.15해방 이후에는 공산당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로 반공(反共) 운동의 전열지가 되었다. 6.25 한국전쟁 때에는 국군 6개 사단이 창설되었고, 근년에는 사단, 군단, 연대, 방위대, 민방위대, 공화국군의 제2요람이 되었다.

*양양의 향토축제로서 현산문화제는 양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장군성화제를 비롯하여 신석기인 가장행렬, 불교 제등행렬, 양주방어사 행사, 대표수군만호행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전 및 영상행렬 구성.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진전사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122호)

진전사지 부도(보물 439호)

•낙산사 (강현면 전진리)



•현산문화제



1. 양양의 정체성

- 양양군민의 날 - 매년 10월 1일 개최
 -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례와 민속문화 발전에 목적을 둠.

“동구리” 경창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세계농요대회

조선왕조실록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에 의하면 세조 12년(1466년) 윤 3월 14일 세조대왕이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물며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그중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뛰어나 세조대왕이 명하여 아침 저녁를 먹이고 악공(樂工)의 예로 수가하게 하였으며 유의(繡衣) 1령(領)을 내려주었다는 세조실록에 근거하여, 국왕이 농가 경창대회를 현장 임석하여 우수 소리꾼을 발굴 하였다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당시의 명창 “동구리”를 기리기 위하여 군의 전통민요(농,어요, 노동요 등) 경창대회로 양양문화원에서는 2001년부터 동구리 경창대회를 10회 개최하여 왔으며, 11회 대회는 강원도내 대회로 격상하여 도내 전통민요를 발굴하여 소리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함.

<역사적 기록> 조선왕조 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1466년) 윤 3월 14일

• 양양에서 農歌 잘하는 자 장막 안에서 노래 :

命聚農人 善農歌者 圍帳內歌之 襄陽官奴同仇里者 最善歌 命饋朝夕 以樂工例隨駕 又賜繡衣一領(8-13나다 乙酉條)

- 양양에서 농가 잘하는 자 장막 안에서 노래: 명취농 인 선농가자 위장내가지 양양관노동구리자 최선가 명쾌조 석 이악공예수가 우사유의일령(8-13나다 을유조)

해설: 왕이 명하여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농민을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를 잘 하였다. 왕이 명하여 아침저녁을 먹이고 악공의 예로 수가(隨駕)하게 하고 또 유의(繡衣) 1령을 내려 주었다.

“동구리” 경창대회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 농산어촌 체험 마을 - 농촌마을의 활력과 소득창출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운영. / 팜파티 전문가 양성.
 -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체험활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마을의 지원과 특성,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차별화 필요.

체험내용	체험마을	장 소	행 사 내 용	체험 내용	체험마을	장 소	행 사 내 용
농촌 전통 테마 마을	탁장사마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 탁장사마을	촌 두부 만들기, 감자와 양미리 구워먹기, 목도놀이, 탁장사 지게지기, 통나무 줄다리기, 통나무 던지기, 개간이 산골체험, 탁장사 마당놀이 *박지원패다리 놀기 스트리밍	어촌 체험 마을	남애 어촌 체험마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어촌체험마을	바다 대운탕, 즉석 회뜨기, 해돋이, 바다고기잡이 체험, 장경바리, 후릿그물 체험, 스킨 스쿠버
	해담마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	데밀국수 만들기, 전통두부만들기, 짬뽕공예, 돌탑쌓기, 김장담그기, 은어, 산천어 맨손잡기, 얼음지치기, ATV, 돌화분 만들기, 수륙 양용차		동호리마을	강원도 양양군 순양면 동호리 동호리마을	멸치 후리기, 볼새우잡이
농촌 체험 마을	금플애마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금플애마을	양양송이 먹거리체험, 감나무 제형, 녹색농촌체험, 옥수수축제, 물고기 잡기 체험, 짬뽕공예	관광 과채류 으뜸 마을	학포리 마을	강원도 양양군 순양면 학포리 학포리마을	오산해수욕장 물놀이, 남대천 연어생태체험, 감자·오이·타마토 따기
	석교리마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대문터마을	데밀국수 만들기, 바닷물 전통두부 만들기, 계곡과 숲밭 즐기기, 옛 사찰터 탐방, 표고 버섯 따기, 나무심기체험		고품질 유기농 쌀생산 마을	포매리 마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개대마을

• 농산어촌 체험 마을



팜파티 전문가 양성교육.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 양양8경

- 양양군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관광지역을 적극 활용 및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환경오염 없이 맑고 깨끗한 계곡이 많고 자연원시림과 넓은 바위가 계곡을 따는 천혜의 관광지. *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 관광자원

- 남대천을 따라 관광자원이 형성되어있음.
- 자연 환경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맑고 깨끗한 산, 폭포, 계곡 등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음.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 양양군 4대 축제

- 대표적 축제

: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현산문화제 등 자연 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주로 열림.

<양양군 주요 축제 현황>

행사명	개최시기	장소	행사내용
서림리 해당마을 '돌탑쌓기체험축제'	7월	서림리 휴양지	돌탑쌓기체험, 뗏목타기체험, 은어맨손잡기 체험 등
지경리 지경해수욕장 '여름해변 축제'	7월~8월	지경 해수욕장	노래자랑, 폭죽놀이 및 캠프파이어, 감자케기 체험, 옥수수따기 체험,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
인구1리 인구해수욕장 '어울림 축제'	8월 초	현남면 인구 해수욕장	조개줍기 체험, 낚시배 체험, 썰매끌기 대회, 백사장달리기 대회
원포리 순백의 해변 '한여름 축제'	8월 초	원포리 해수욕장	맨손조개줍기 체험, 구박끌기 대회, 뗏목놀이 체험 등
원일전리 금돌애마을 '옥수수축제'	8월 초	원일전리 일원	짚풀공예, 농가음식체험, 홈스테이 체험
어성전2리 탁장사마을 '마당놀이축제'	8월 중순	어성전2리 탁장사 마을	탁장사 마당놀이, 떡만들기 체험, 고사리깍기 체험 등
황이리 황룡마을 '황룡마을 축제'	9월 중순	황이리 일원	산악자전거 트래킹, 얼음굴 산책하며 보물찾기, 버섯채취 체험, 부엉이만들기 체험, 목공예 체험 등
동호리 '멸치후리기'	9월 중순 (송이축제기간)	동호 해수욕장	멸치후리기 체험
갈천리 치래마을 '산나물 축제'	5월 중순	갈천리 산촌 체험장	구룡령옛길등산, 갈천약수 마시기대회, 산나물채취 체험행사 등

• 송이축제



• 연어축제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원효가 낙산사의 남쪽 교외에 이르렀을 때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원효가 장난삼아 그 벼를 얻고 자청했다. 여인 역시 '벼가 없다'고 장난으로 대답했다. 원효가 다시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월수백(月水帛)을 빨고 있었다. 원효가 물을 청함에 여인은 그것을 빨던 물을 떠서 주었다. 원효는 그 물을 쏟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떠서 마셨다. 그 때 들판에 있던 소나무 위에서 한 마리 파랑새가 "제호를 마다한 화상(和尙)아!" 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 소나무 아래에는 신발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원효는 비로소 앞에서 만났던 여인이 곧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임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불렀다. 원효는 관음성굴에 들어가 그 진용(眞容)을 보려 했지만 파도가 크게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떠났다. 12세기 후반 임춘(林椿)이 낙산사를 찾아 갔을 때도 관음송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효스님이 빨래하던 여인으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고자 했던 그 우물을 냉천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봉산 관 낙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도 냉천은 이 지방의 중요한 고적으로 기록되었다.

- 삼국유사 설화 -

의상이 관음보살을 만나보기 위하여 낙산사 동쪽 벼랑에서 27일 동안 기도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바다에 투신하려 하였다. 이때 바닷가 굴속에서 희미하게 관음보살이 나타나 여의주(如意珠)와 수정염주(水晶念珠)를 건네주면서, "나의 전신(前身)은 볼 수 없으나 산 위로 수백 걸음 올라가면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있을 터이니 그곳으로 가보라"는 말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원통보전의 자리이다. 원통보전 내부에는 관음상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관음상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량을 복구하고 이곳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설악산 관모봉 영혈사(靈穴寺)에서 옮겨 왔다는 관세음보살상이다. 제작 시기는 12세기 초로 추측되는데, 고려시대 문화의 극성기 양식을 나타낸 매우 아름다운 관음상이다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양양의 동해신묘 (동해묘) (강원도 양양군 조산리)

*동해신묘대제 복원/강원도 양양군 조산리에 (양양군 양양읍 동해신묘길길18-11) 위치한 동해신묘는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豊農豊魚)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냈으므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 서해중전의 서해신묘는 서해 신에게 남해 나주(지금의 영암)의 남해신묘는 남해 신에게 그리고 양양의 동해신묘는 동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동해신묘를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나타나 조선 초기에 국가 제사(중사) 장소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신에게 국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2월과 8월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보내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 경종 2년(1722)과 영조 28년(1752) 양양부사 차평온과 이성억에 의해 중수되었으며 정조 24년(1800) 어사 권준의 상주와 강원도관찰사 남궁철 주창으로 재차 중수되었다. 순종 2년(1908)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철폐되었다가 1993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정 1동만 건립되었으며 정전의 서북쪽으로 정조 24년(1800)에 관찰사 남궁철이 글을 지은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 있다. *역사적인 가치 2000년 1월22일 동해신묘지 와 남궁철이 글을 지은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73호 지정되었다. 동해신묘는 조선 초기 나라에서 제사를 정비하여 서해·남해와 함께 주관한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일월 일일과 양양해수축장 개장에 행사때를 맞이하여 제사를 올린다. *동해신묘대제 복원과 축제화/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 안빈낙도 정신 : 연암 박지원의 지역문화 자원

• 연암 박지원의 양양문화유산적 가치.

- 1800 양양부사 역임, 연암 박지원 기념비, 경관녹봉론(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

연암 박지원은 양양부사 직을 끝마치고 다스리던 고장의 녹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 냥을 받았고 녹봉으로 2천 냥을 받았다' 고 말하며 '경관자산론'을 펴낸 것으로 양양과 인연을 맺고 있음.

• 연암 박지원의 문학성, 연암문화관과 문예창작마을 조성, 놀이마당 조성 등을 추진. 기념사업 - 기념비 설치, 연암 길 조성 등을 추진 계획. *法古創新

• 경관녹봉론 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 : 양양일기 여행상품 개발, 실학이야기 테마파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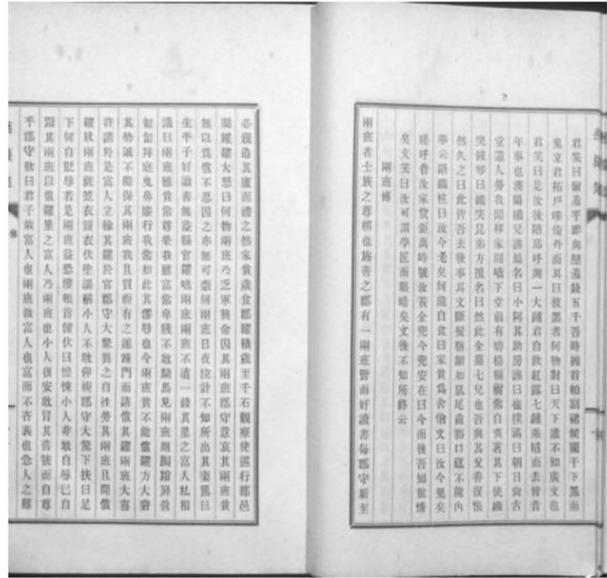
• 양반전의 양반을 양양군의 브랜드화. - 양반 밥상, 양반 생수, 양반 차, 양반 술, 양반 체험 등

• 양반전과 강원도 아리랑, 농요의 접목.

• 연암문학 공연 / 축제, 연암 마을, 문화관 등.



연암 박지원.



연암집 양반전.

《연암집》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는 조선 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소설. 규장각도서

2. 양양지역의 경쟁력과 정책방향 필요성 설정

세계는 현재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따라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되는 세계적 트렌드 안에서 과거 우리경제의 양적 투입 성장모델의 한계, 사회적 갈등 등으로 지속성장이 불투명함.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글로벌 트렌드에 앞서 갈 수 있다. 한 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며 구조적 과제 불안요인에 대응하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호주 중국 등 주요국도 미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담은 국가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책, 강원도책, 양양군책 등 연계



이에 따라서 정부는 30년 이상 시계(視界)에서 우리 경제 사회의 중장기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2014. 12.27)하였다. 이에 양양의 미래성장과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양양의 여건과 냉철한 현실상황 인식을 반영하여 착실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양양학의 미래와 가치창조의 힘

• 양양학

: 양양군민의 눈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양양유산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살맛나는 지역을 창조하는 학문철학, 마음공부하기.

- 뉴새마을운동 지역브랜드 만들기과 미래창조학 지역형 창조경제 실현.
- 온리원 (only one) 의 자기 개성 살리기와 메모장의 기술
: 자기만의 글쓰기 메모전략 (집중, 정성, 자신감), 재미있게 생각하고 이를 나누어 사는 지혜를 터득할 것.
- 창조적 정신의 비경과 글쓰기의 힘 : 늘 긍정하되 (감사, 봉사, 찬사), 마지막 날을 사는 것 처럼 때로는 비장한 각오로 자기 세계관을 담아낼 것
- 책 읽기와 전략적인 글쓰기 : 책 속에 영성의 길이 있음 (모험, 환상, 감성 등), 목적에 따라 글쓰기의 대응전략 (1등급 명품 글 만들기, 공감흡인력, 창조적 발상)
- 지역문화사랑, 국가와 민족 사랑, 한글과 전통 사랑
: 학제 간의 통합학문과 전문성 문제, 자기존중감과 고향성 (故郷性), 포용력과 글로벌 인재.

3. 양양학의 미래와 가치창조의 힘

▪ 감성 DNA

- : 고향터치 (귀농, 웰빙행복, 고향심포), 향부감성 (세계화), 창조정신 (양양 잠재가치 발굴운동)
- 양양군: 변화, 도전, 창조
- 가치창조 운동: 소통, 배려, 행복-제대로 잘 살기, 양양문화로 행복하기, 인정어린 삶 만들기
- 신뢰 브랜드 선점: 지역인문학의 가치와 문화경제창조 선진 모델 구축

▪ 양양군 브랜드.

: 우수인적 자원을 끌어오고 지역역사의 잠재자원을 살려 안정된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발 앞서 내일을 대비하는 “함께준비하는 더 큰 양양 만들기” 를 지향

- 혁신과 창의,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구현.
- 창의력 중심 교육 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개방경제시스템 지속.
- 갈등이 적고 공생발전하는 ‘함께하는 사회’ 실현.
- 경제주체들의 균형잡힌 발전 추구, 일하는 복지 구현, 사회자본 확충.
- 미래위기를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구축.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남북통일 등 미래 위험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
- 마을 단위 문화실천사업-정체성, 신화적 상상력 응용-을 통한 문화마을 가꾸기 추진
-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지역연권의 역발상

제안1

- 역사문화자원의 융복합형 랜드파크존 구상. (장소성 중시)
- 낙산사-동해신묘-하조대-후후암 잇는 랜드파크존.
- 머무르고 쉬고 영성의 가치를 즐기는 다목적타운 조성.
- 기존 유적, 유물, 이야기 자원의 스토리텔링 산업화. / 해양역사자원화 확산



<사례> 나오시마(일본)

제안2

- 역사문화자원의 신전통문화형 마인드파크존 구상.
- 생산성 / 구전성 중시.
- 민속놀이형 마을 / 탁장사놀이
- 송이 등 특산물 마을
- 연어 등 수산물 마을
- 선사유물 연계 마을



<사례> 독일 피리부는 사나이의 마을(쥐마을)

3. 양양학의 미래와 가치창조의 힘

제안3

- 역사창조자원의 인물 · 상징형 판타지파크존 구상.
- 해수관음 / 동해신 신비 체험관.
- 의상 / 원효 감상체험관.
- 도깨비 / 탁장사 건강체험관.
- 역사인물 멘토체험관.



<사례> 조신의 꿈 연극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의 첫 문을 연 연극 [꿈](연출 최용훈)이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 이 작품은 삼국유사 중 '낙산의 두 성인 관음과 정취, 그리고 조신'을 모티브로 한다. 원전에 춘원 이광수를 등장시킨다.

3. 양양학의 미래와 가치창조의 힘



송천떡 정보화마을 (양양군 서면)



정보화 마을(양양군 서면)

< 사례 >

- 2012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서 6개 분야 수상
- 농식품부 주관 2012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6개 분야 수상
- 대통령표창: 농촌마을 (색깔있는마을) 부문 정선 개미들마을, 지자체부문평창군, 유관기관 부문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박사 수상
- 국무총리표창: 농촌마을 부문 인제 백담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부문 횡성 공근면금계리의 수상



인물론스토리텔링
(조화벽 등)

양양정명 600주년(2016) 실천방안
-역사적 마인드마크 정립-광역행정 개편 대비전략
-겨울철 찾아오는 양양가꾸기
(제안1,2,3/기념공연 준비-행복한 시작)
-양양학/지역인문학 접목 성장엔진 찾기

***양양학: 양양인의 주체적 시각에서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의 활용성을 동시다발로 피칭워크숍하는 체계.**

지역의 인정어린 감성 이미지가 세상을 바꾼다. 고맙습니다.

주 | 제 | 발 | 표

새로운 양양 600년 문화 전략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

1. 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1. 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발제 동기

◇ 양양은 양주(襄州)에서 양양(襄陽)으로 지명이 변경된 지 내년으로 정명(定名) 600년을 맞음(태종실록 1416년)

현재 인구 2만7천여명, 면적 628.9km², 1개 읍, 5개 면, 124개 리를 보유한 예로부터 큰 도읍임

지역 소재 많은 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명산 설악산과 동해를 연해 있어 풍광은 물론 청정 자연 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풍요로운 지역임

-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석기 주거지인 오산리 선사유적지(사적 제394호)를 비롯, 풍부한 문화자원은 예로부터 의인과 호인을 많이 배출하고(조화벽, 뇌학 등),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들을 상당수 배출함(동구리, 허억봉 등)
- 내년 서울을 1시간 반 거리로 잇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교통의 요지가 되며, 나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가 될 전망
- 정명 600년을 맞아, 양양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양양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은 문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소득화를 추구하고자 함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 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양양의 문화 자산 - 유적

- 제1의 자산은 설악산과 동해 바다, 남대천과 아름다운 해안
- 유적 : 국보 1점, 보물 8점, 사적 1점 등 다수

유적	지정 내용	소재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제122호	강현면
낙산사(의상대 등)	7층석탑 보물499호 등 보물 3점	강현면
성국사지 석탑	보물 497호	서면
선림원지 부도 등	부도 보물 제447호 등 보물 4점	서면
오산리 선사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4호	손양면
명주사 동종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4호	현북면
동해신묘	강원도기념물 제73호	조산리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 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전통문화 상품 개발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양양의 문화 자산 - 무형문화재, 기타

- 무형문화재 : 수동골 상여소리(입암) - 강원도 시도무형 25호, 상복골 농요(강현) - 강원도 시도무형 26호
- 고인돌 : 서면 범부리 등 고인돌 유적 4곳
- 고택 : 김택준 가옥(강원도유형문화재 제90호) 등 4채
- 향교, 서원 : 양양향교(1330 건립), 동명서원(1628 건립)
- 관광지 : 죽도정(현남면), 하조대(현북면), 오색주전골(서면)
- 기타 : 양양 송이, 남대천 연어, 송천 떡마을, 탁장사마을, 현산문화제, 양양 5일장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 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전통문화 상품 개발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국보 진전사지 석탑



범부리 고인돌



연어축제



수동골 상여소리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상품 개발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동구리민요경창대회'의 전통문화 상품화

- '동구리민요경창대회'는 세조실록의 고증 자료를 근거로, 2001년 부터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의 대표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의 부대행사로 시작됨
- 2011년부터는 도단위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축제와 분리하여 더욱 확대된 전국단위 민요경창대회로 준비하고 있음

조선왕조실록<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에 의하면, 세조 12년(1466) 3월 14일 왕이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물며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잠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그중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뛰어나 왕이 명하여 아침 저녁을 먹고 악공(樂工)의 예로 수가(隨駕:어가를 따르도록)하게 하였으며 유의(褳衣) 1령을 내려주었다.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상품 개발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동구리민요경창대회'의 전통문화 상품화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3. 전통문화상품 개발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동구리'의 의미와 브랜드화

1. 동구리의 사전적 의미

[명사] '눈깔사탕(엿이나 설탕을 끓여서 둥글고 단단하게 만든 사탕)'의 방언(제주)
 [지식iN 오픈국어] 둥그렇게 생긴 고리짜을 이르는 경상도 말. 도토리를 일컫는 경상도 언양 사투리

2. 동구리 유사 이름 사용의 예

- 옛 이름의 예 : 둥글이, 둥글이, 둥글네
- 유사 의미 사용의 예 : 돌리, 오뚝이, 보름달, 달덩이

3. 동구리(同仇里 : 동반자의 의미)의 종합적 의미

얼굴이 둥근 사람의 이름으로 보이며, 둥글둥글한 호인 타입의 밝고 친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 화합, 유화, 환대, 미소의 상징 이미지형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3. 전통문화상품 개발

1.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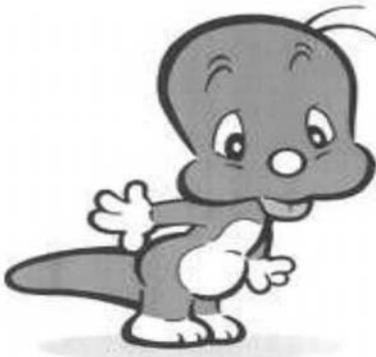
2. 양양의 문화 자산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동구리' - 유사 이미지 사례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3. 전통문화상품 개발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동구리'의 이미지 형상화 (예시)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3. 전통문화상품 개발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전통문화 상품 개발 배경

-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동구리'를 상징물로 제시하며, 창조지역사업에 적합한 전통문화마을을 개발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및 소득화 방안을 구체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위축되고 있는 농어촌 경제 재생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양양 정명 600주년을 맞아 전국규모 대회로 발전시켜, 전국의 참소리꾼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컨텐츠로 확대하여 지역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함께 2018 동계올림픽에도 대비하고자 함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3. 전통문화상품 개발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4.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동구리 전통문화 사업 - 주요 내용

1. '양양동구리 전통문화축제' 사업
 - '동구리 민요경창대회'의 전국대회 격상
 -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의 형상화, 체계화 및 축제화
2. '양양동구리 전통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전통생활문화 체험마을 공동 운영
3. '동구리 아카데미' 사업
 - 사업단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창출기반 마련
 - 마케팅 기법 및 친환경 관광자원개발 교육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전통문화 상품 개발

5.양양문화 발전 전략

6.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문화부문 기념사업(안)

○ '양양동구리 전통문화축제'

기념사업 개요

-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전국대회로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컨텐츠로 확대
- 역사적으로 고증된 '동구리'를 양양군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되 '동구리' 이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치를 제고
-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축제상품으로 적극 활용 및 홍보
- 사업지역 : 축제장, 문화원 및 '동구리 전통문화마을' 일원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 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	---------------	-------------------------------	---------------	----------------------

사업 세부 내용

- ① 양양동구리 민요경창 전국대회 개최
 - 기존 '강원도 동구리민요경창대회'를 2016년부터는 전국대회로
훈격도 장관상으로 격상하여 개최
 - '동구리'를 주제로 한 문화축제프로그램을 발굴 및 접목하여
'양양동구리 전통문화축제'로 통합 개최

- ② 전국 동구리 캐릭터 공모전
 -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에 적합한 유순하고 동글동글한 좋은 인상을 가진
'동구리 얼굴 그리기 선발대회' 개최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 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	---------------	-------------------------------	---------------	----------------------

사업 세부 내용

- ③ 전국 동구리 선발대회(전통 동구리 얼굴 찾기)
 - 선별된 동구리 캐릭터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부합되는 얼굴을 축제 기간
중에 경연대회를 통하여 선발




-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커피의 상징 캐릭터인 후안 발데스(Juan Valdez) 선발대회를 통해 전통적인 인물을 찾아서 홍보요원으로 활동시키고 있음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사업 세부 내용

④ 세조어가행렬 재현

- 세조실록에 근거한 어가행렬을 재현(과거시험, 대형비빔밥 나눔 등)



국악 등 각종 볼거리가 곁들여지는 어가행렬(중요제례 어가행렬, 대형비빔밥 나눔)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사업 세부 내용

⑤ 동구리 전통문화체험 상품 운영

- 동구리 문화체험마을에서 축제기간내 운영

예) 전통마을 숙박체험, 한복마을 체험, 전통 예절교실, 전통음식(떡, 한과, 절기음식, 김치담그기 등) 체험, 전통음료(전통차, 전통주), 국악교실(민요교실, 사물놀이교실 등), 전통놀이(전통공예, 탁장사, 투망체험), 농산어촌 특화 체험 프로그램 체험, 주요 관광지 연계투어(마차, 미니열차, 시티투어버스) 등

⑥ 동구리 빅세일(Big Sale) 실시

- 축제 기간내 관내 관광지 및 박물관 입장료 면제 또는 대폭 할인행사 실시

- 동구리 클러스터 마을, 지정 숙박 및 인증음식점 등에서 대폭할인행사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	---------------	--------------------	----------------------	-------------------

새로운 양양의 문화발전 전략 (중기)

“ 양양에 가면 한국을 본다 ”

○ 문화적 선도의 근거 : 문화는 창조되기도 하지만, 전통에서 기반하여 전통에 대한 공동체의 공유와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속성에 따름

가. '양양 동구리 전통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

□ 사업목표

- 양양군에 산재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공동체 구축
- '양양동구리 전통문화마을'이라는 공동브랜드화 및 공동마케팅화 사업 실시를 위해 '동구리 SAFETY사업단' 구성
- 전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관광지로 조성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	---------------	--------------------	----------------------	-------------------

새로운 양양의 문화발전 전략 (중기)

□ 사업내용

- 지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치유형 관광지를 조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과 년 중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지역 재생 구축

- ① 동구리 전통문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 동구리 SAFETY사업단 구축 및 운영
- ② 양양동구리 전통문화축제 공동 운영(축제기간 중)
 - SAFETY사업단 소속 각 마을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구리 축제 공동 운영
- ③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년 중)
 - SAFETY사업단 소속한 양양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수익 창출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병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동구리 SAFETY사업단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단명	동구리 SAFETY사업단	
동구리문화 클러스터 캐치프레이즈 (SAFETY)	SLOW STAY: 천천히 머물며 휴양하는 곳 AGED ARIRANG: 전통 민요를 배우고 즐기는 곳 FRESH FOOD: 친환경 건강식을 체험하는 곳 ECO ENVIRONMENT: 천혜의 청정자연과 교감하는 곳 TRADITIONAL TOUR: 전통생활문화를 향유하는 곳 YES YANGYANG: 바로 양양입니다.	‘동구리 문화’ 클러스터가 추구하는 이념과 캐치프레이즈를 영문자 이니셜로 조합함
내부참여 기관	양양군, 양양군문화원, 국악수련원, 양양군 농산어촌체험마을, 양양군 관련단체, 지역주민단체	
외부참여 기관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강원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경동대학교	

승리와 연어의 고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병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양양군 농산어촌 체험 마을 프로그램 현황

체험내용	체험마을	장 소	행 사 내 용
농촌 전통 테마 마을	탁장사마을	현북면 어성전2리 탁장사마을	촌 두부 만들기, 감자와 양미리 구워먹기, 목도놀이, 탁장사 지게지기, 통나무 줄다리기, 통나무던지기, 개잔이 산골체험, 탁장사 마당놀이
	해담마을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	메밀국수 만들기, 전통두부만들기, 짬뽕공예, 물타살기, 김장 담그기, 은어, 산전어 맨손잡기, 얼음지지기, ATV, 돌화분 만들기, 수목 양용차
녹색 농촌 체험 마을	금풀애마을	현북면 원일전리 금풀애마을	양양송이 먹거리체험, 감나무 체험, 녹색농촌체험, 옥수수축제, 물고기 잡기 체험, 짬뽕공예
	석교리마을	강현면 석교리 대문터마을	메밀국수 만들기, 바닷물 전통두부 만들기, 계곡과 숲밭 즐기기 옛 사찰터 탐방, 표고 버섯따기, 나무심기체험
어촌 체험 마을	남애 어촌 체험마을	현남면 남애어촌체험마을	바다 매운탕, 죽석 회뜨기, 해돋이, 바다고기잡이 체험, 장경바리, 후릿그물 체험, 스킨스쿠버
	동호리마을	손양면 동호리 동호리마을	멸치 후리기, 볼새우잡이
송천 떡마을		서면 송천리 송천떡마을	송천떡마을 전통떡만들기, 널뛰기, 디딜방아체험, 산나물채취, 나의 나무심기, 다슬기잡기, 고기잡기, 송이채취, 썰매타기
관광과체류 으뜸마을	학포리 마을	손양면 학포리 학포리마을	오산해수욕장 물놀이, 남대천 연어생태체험, 감자오이·토마토 따기
고품질유기농 쌀생산	포매리 마을	현남면 포매리 개매마을	세발차달리기, 벼베기, 감자구워먹기, 달구지타기, 쌀국수체험, 포매호 빙어낚시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	---------------	--------------------	----------------------	-------------------

새로운 양양의 문화발전 전략 (중기)

나. '양양 동구리 아카데미' 사업

□ 사업개요

- 동구리전통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 리더육성
- 지속가능한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및 보전과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런 체험상품을 제공하고 발굴할 수 있는 창의역량 제고

□ 사업목표

-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마케팅, SNS마케팅, 스토리텔링 요원으로서의 문화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실시
- '동구리 SAFETY사업단'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출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	--------------	---------------	--------------------	---------------	--------------------------

새로운 양양 600년 문화발전 전략 (장기)

" 양양에 가면 한국을 본다 "

- 양양군의 장기 발전계획은 양양이 보유한 전통문화 자원의 활용 극대화에 있음
- 양양은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앞선 정착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향유해 왔음
- 동구리 전통문화마을 조성 과 정착, 지역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양의 지위는 설악권을 넘어 동해안 권역을 선도하는 문화적 거점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임
-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선도자로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양양의 한국적 이미지인 동구리 문화마을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1.도 입

2. 양양의 문화 자산

3. 전통문화 상품 개발

4. 정명 600년 기념사업 제안

5. 양양문화 발전 전략

6. 새로운 양양 600년 전략

새로운 양양 600년 문화발전 전략 (장기)

-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해연합(East Sea United)의 주축도시로 전략적 선점 필요

* 유럽 국가 등 44개국으로 구성된 지중해연합(UPM)은 지중해 지역 번영을 위한 다자간 제휴를 목적으로 하며, 15개 지중해 연안국가가 주축이 되는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라는 협력채널(1995)에서 비롯됨

- 한국인의 전통문화와 동북아 젠(禪)문화의 선도, 문화마을 개발과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축적된 지역민의 역량강화, '동구리 SAFETY사업단'의 역할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활동 등으로 구현
-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북극항로 개방에 따른 북방시대에 보조를 맞추며, 동해연합(가칭 ESU)의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

송이와 연어의 고향!
襄陽 



주 | 제 | 발 | 표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

- I.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 개요
- II.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연출
- III. 웰빙식품 학술 프로그램 구성
- IV. 관광객 및 기업 유치지원 전략
- V. 향후 계획지표 설정의 전체

1.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 개요

1. 제안명 :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2.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 ❖ 양양 정명 600년을 맞아 양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조성
- ❖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태공간이 잘 보전된 양양군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역사, 문화, 생태관광 등과 연계되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함
- ❖ 웰빙식품 테마공원을 주제로 환경, 교류, 문화, 체험, 나눔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마케팅은 물론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찾는 명소로 조성

3. 제안의 목적

- ❖ 양양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생태, 친환경, 자연경관이 접목된 테마 건강한 공동체 조성
- ❖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 반영
 - 양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
- ❖ 전통문화가 계승된 Eco-Tour, Green-Tour의 여건 조성
 - 농촌체험과 여가·휴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적 생태공간을 활용한 편의시설 조성

1.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 개요

4.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Vision



II.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연출

1. 연출의 기본방향 설정

"웰빙식품 산업의 메카 웰빙생태도시 양양"

관광객이 즐거운 테마공원	▪ 관광객과 함께 보고+듣고+만지고+맛보면서 체험하는 차별화된 테마공원
고부가가치 산업의 요람	▪ 생산+가공+유통+서비스산업과 연계 신성장동력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과 현대, 미래를 잇는 가교	▪ 전통식품과 현대인의 먹거리, 21세기형 첨단 전시매체와의 만남
양양군 지역 마케팅 극대화	▪ 양양 Amenity 프로그램을 통해 웰빙 생태도시 양양 체험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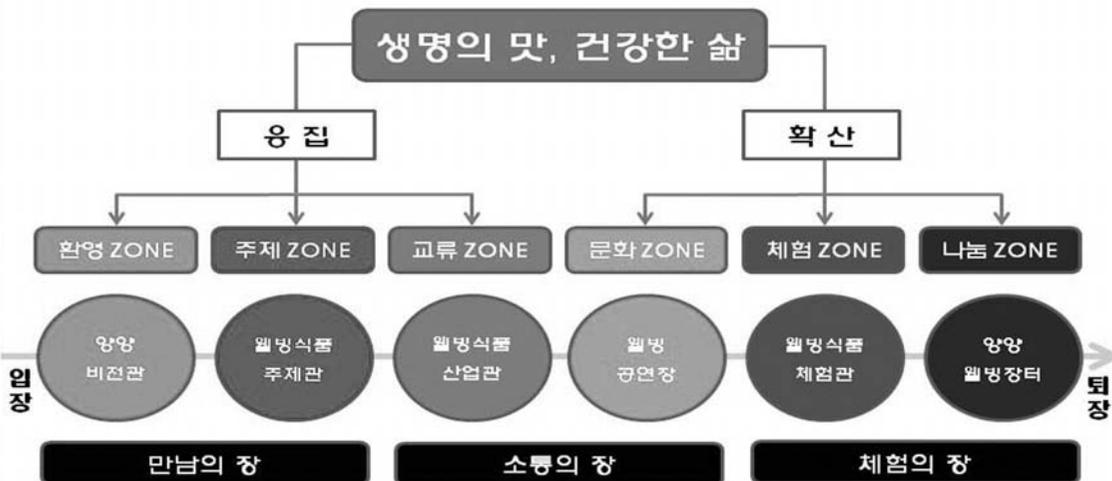
THEME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을 관광객에게 약속
STORY LINE 만남에서 지식, 교류와 체험의 장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SPACE PROGRAM 맛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EXPECTATION 웰빙식품의 메카 양양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친환경농업 활성
 웰빙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웰빙식품포럼 등 학술대회

- ❖ 웰빙식품산업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미래지향적인 웰빙식품 산업의 방향 제시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2.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전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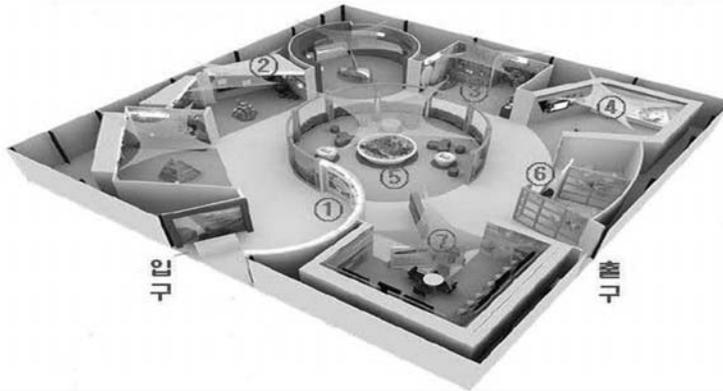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1) 환영 ZONE(양양비전관)

만남의 장

- ❖ 친환경 웰빙식품 테마공원 방문에 대한 환영
- ❖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양양군의 비전과 목표 제시
- ❖ 역사, 문화, 환경, 관광, 특산물 등 양양의 폭넓고 다양한 모습을 그래픽 및 영상을 통해 소개



- ① 양양군의 100가지 열매
- ② 양양군의 웰빙식품 연출 공간
- ③ 양양군의 축제 및 이벤트 소개
- ④ 테마공원 연계 관광지 소개
- ⑤ 21세기 양양군 발전로드맵
- ⑥ Networking Room
- ⑦ 양양군의 귀농, 귀촌 홍보 공간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1) 환영 ZONE(양양비전관)

만남의 장

•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행사장 내,외부에 각 성격에 맞는 방향유도와 편의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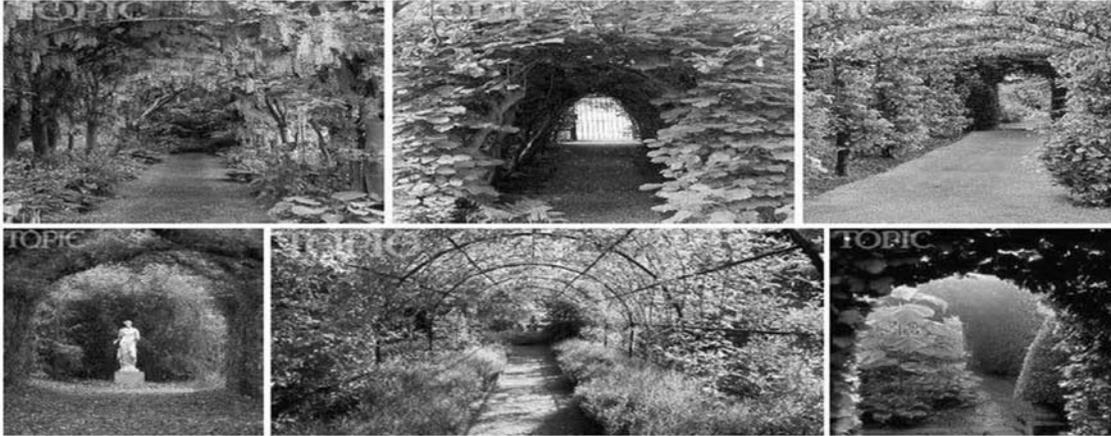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1) 환영 ZONE(양양비전관)

만남의 장

❖ 자연 친화성을 부각시키며 웰빙문화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터널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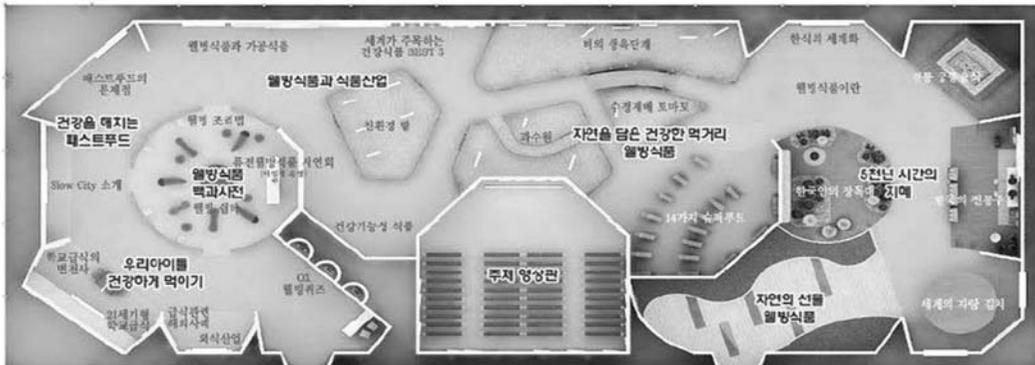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2) 주제 ZONE(웰빙식품 주제관)

만남의 장

자연의 선물 웰빙식품 - 프로텍트 슬라이드 영상연출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 - 어브-외에 조경연출	5천년 시간의 지혜 - 한국의 전통 웰빙식품 - 김치, 된장, 장국장, 고추장, 간장, 엿갈 - 한국의 전통주 - 전통공예음식 - 안식의 세계화	자연을 담은 건강한 먹거리 웰빙식품 - 웰빙 식품이란 - 세계의 웰빙식품 - 친환경 농법 소개 - 미니 밭-과수원	웰빙식품과 식품산업 - 유네스코 지정 5대 장수 식품 - 웰빙식품과 가공식품 - 건강기능성 식품	건강을 해치는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의 문제점 소개 - Slow City 운동소개	우리아이들 건강하게 먹이기 - 학교급식의 발전사 - 21세기형 학교급식 - 급식관련 해외사례 - 외식산업	웰빙식품 백과사전 - 웰빙 센터 - 유전웰빙음식 시연외 - 웰빙 조리법 - OX 웰빙 퀴즈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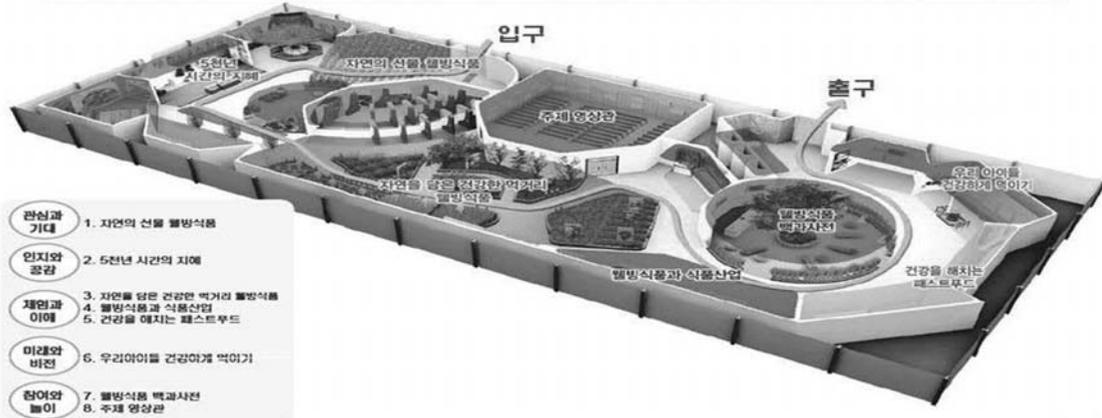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2) 주제 ZONE(웰빙식품 주제관)

만남의 장

❖ 건강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면 결국엔 생태계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친환경 웰빙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이해와 공감대 형성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2) 주제 ZONE(웰빙식품 주제관)

만남의 장

❖ 벼의 생육단계를 소개하고 우렁이와 오리농법을 회장에 직접 연출하여 볼거리 제공
❖ 친환경 미니밭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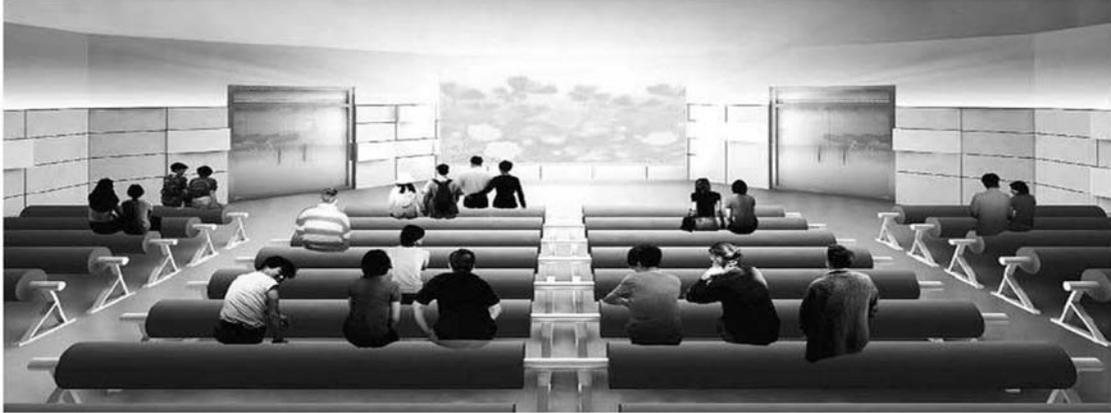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2) 주제 ZONE(웰빙식품 주제관)

만남의 장

- ❖ 주제 영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양양군 친환경 웰빙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 ❖ 주제 영상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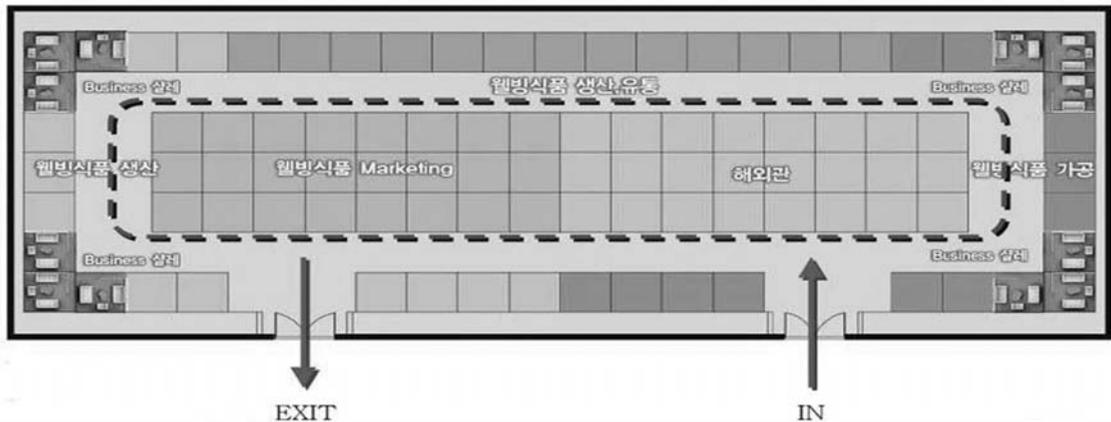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3) 교류 ZONE(웰빙식품 산업관)

소통의 장

- ❖ 웰빙식품 엑스포로서의 규모감을 위해 각 분야별 기업들의 총괄 유지
- ❖ 웰빙식품 생산, 가공, 유통, 홍보 Marketing과 각 산업간 Networking기회 마련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3) 교류 ZONE(웰빙식품 산업관)

소통의 장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4) 문화 ZONE(웰빙 공연장)

소통의 장

- ❖ 테마공원 내에 분기별 공식행사 개최/지역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
- ❖ 주제를 재미있게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Performance 연출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5) 체험 ZONE(웰빙식품 체험관)

체험의 장

- ❖ 웰빙식품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맛보는 장터
- ❖ 양양군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웰빙식품 뷔페로 양양군만의 특화된 음식 양언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5) 체험 ZONE(웰빙식품 체험관)

체험의 장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6) 나눔 ZONE(양양 웰빙장터)

체험의 장

- ❖ 양양지역 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지역 특산물 홍보의 장 마련
- ❖ 양양군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Free Market공간으로 지역 특산물 판매



II. 웰빙식품 테마공원 연출의 구성

3. 웰빙식품 테마공원의 세부 ZONE 제안

6) 나눔 ZONE(양양 웰빙장터)

체험의 장

- 공간별 전시연출 예 - 웰빙농업 체험
 -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안내
 - 단순관람이 아닌 Tour 방식의 운영과 천연 농특산물 재배농장을 방문하는 팜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운영
 - 자연을 좀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곤충도 함께 배치



Ⅲ. 웰빙식품 학술 프로그램 구성

1. 학술회의 방향설정

양양군 웰빙식품 공원조성을 통해
웰빙식품에 대한 학술적 개념 규정과
양양군 Vision으로서 웰빙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

1

가시적 성과물의 도출

- 친환경 웰빙식품에 대한 학술적 정의 및 개념 규정
- 친환경 웰빙식품과 관련한 국내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형성
- 친환경 웰빙식품 공원조성의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징적 결과를 창출

2

양양군의 지역 브랜드 제고 및 웰빙식품 전문 지역으로서의 위상 확립

- 웰빙식품 클러스터의 기대효과 예측 및 발전 Road Map
- 웰빙식품 도시의메카 양양 VISION을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와 공유

3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의 새로운 대안 마련

- 양후 축제 및 이벤트 행사 Issue 창출 및 홍보 Source 활용
- 웰빙식품과 학술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및 변화 유도
- 친환경 학교 급식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각급학교 영양사 초청 학술대회 개최

Ⅲ. 웰빙식품 학술 프로그램 구성

2. 학술회의 주제

양후 지속적으로 발전될 양양 웰빙식품 산업에 대한 Road Map 검토와 웰빙식품 산업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위한 주제 선정

1

주제방향 1 : 양양과 웰빙식품 산업

전문가 대상 : 양양군 웰빙식품 발전방향

일반인 대상 : 양양군이 바뀐다. 농업이 바뀐다.

- 경제유발효과 분석
- 국내외 성공사례 검토
- 웰빙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
- 웰빙식품 클러스터 Road Map
- 세계 각국의 식품클러스터 책임자 초청 등

- 웰빙식품 산업을 통한 양양군 발전 Vision
- 양후 양양군의 권역별 청사진
- 이로 인한 양양군의 권역별 변화 예측
- 양양군민들의 소통, 화합 및 참여방안
- 귀농, 귀촌의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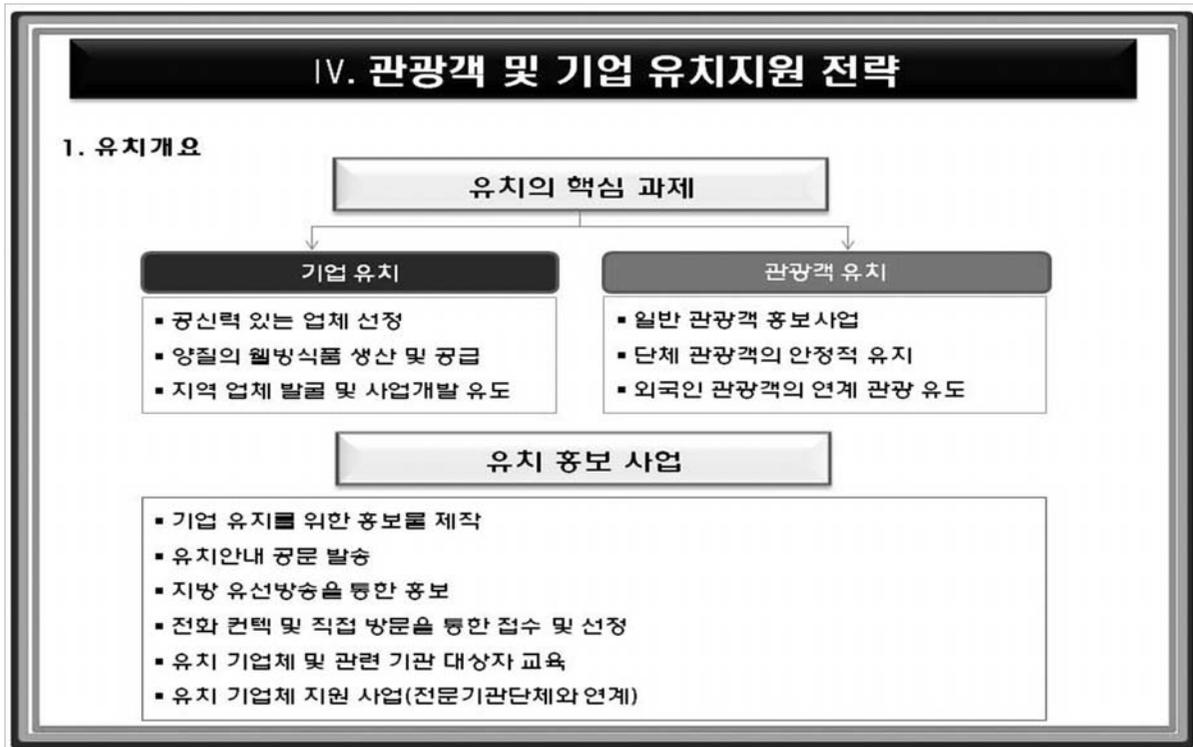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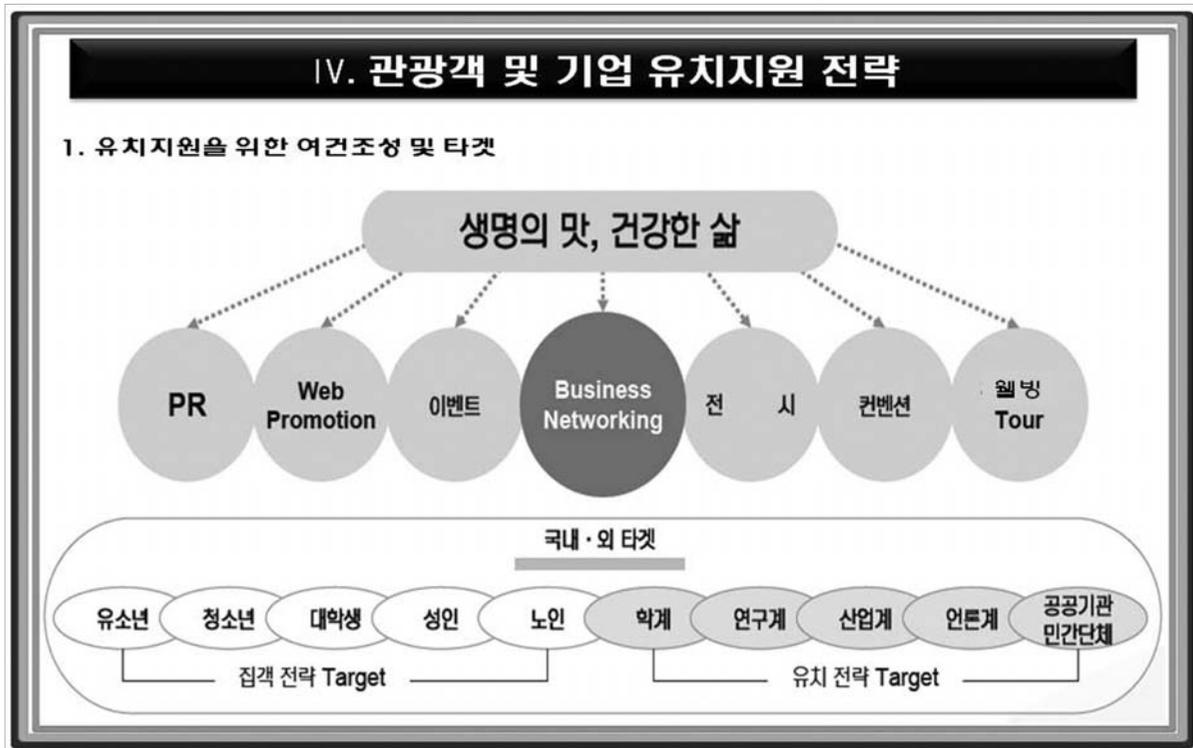
주제방향 2 : 미래를 생각하는 학교급식

전문가 대상 :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일반인 대상 :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

- 학교급식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가, 영양관리사 학교급식 관련 공공기관 참여
-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의 발전방안 및 학교급식의 유통/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 논의 및 정책 토론

- 각급학교 어머니회 초청
-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 고지 및 해외사례 소개
- 학교급식 시식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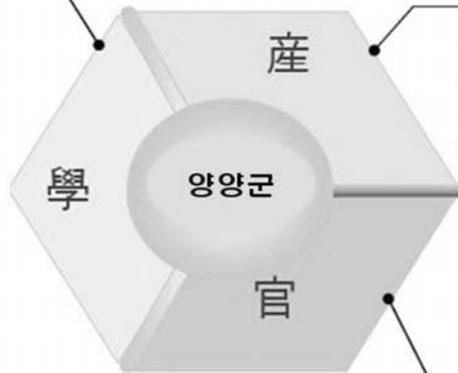
IV. 관광객 및 기업 유치지원 전략

2. 기업 및 단체 유치

- 강원지역 대학
- 조리관련 학과
 - 외식관련 학과
 - 관광관련 학과
 - 보건관련 학과
 - 해양관련 학과
 - 농업관련 학과

연구기관

- 식품관련 연구소
- 지역대학 연구소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 양양지역 웰빙식품 관련 기업
- 강원지역 웰빙식품 관련 기업
- 웰빙식품 관련 대기업
- 양양지역 외식업체

- 강원권 지자체 브랜드
- 전국 지자체 브랜드

IV. 관광객 및 기업 유치지원 전략

2. 기업 및 단체 유치



- 양양군 친환경 웰빙식품 공원조성 공식참가업체로 지정
- 웰빙식품의 선두기업으로서의 홍보효과
- 대기업 식품생산단지 유치를 위한 지원



- 행사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 실시 및 홍보로 판로 확대
- 식품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으로 웰빙식품 업체로 개선
- 차후 식품클러스터 단지 계획 시 우선 입점 기회 보장
- 포장재 및 B.I 관련 지역 디자인학과 대학생들과의 공동 개발



- 행사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 실시 및 홍보로 판로 확대
- 양양군 주최로 학교 급식 구매담당자와 기업 사내식당 구매담당자, 대형마트 등의 MD초청으로 안정적인 유통 경로 개발 가능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비전 공유로 유기농산물 생산업체로 전환 유도



- 공원 방문객 및 행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판매
- 양양 웰빙식품을 전국적인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새로운 웰빙식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

IV. 관광객 및 기업 유치지원 전략

3.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의 관광객 유치 필요



IV. 관광객 및 기업 유치지원 전략

3. 관광객 유치

1

다양한 타겟 설정과 타겟별 홍보

- 양양 지역 및 인근 속초, 고성, 인제 등을 비롯한 강원권 지역민들의 적극 유치
-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적극 유치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 유치
- 추억 및 향수를 자극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 유치

2

주중과 주말 방문객의 평준화

- 주말과 주중, 각각 다른 타겟 설정과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수의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주중에는 학생들을 비롯한 단체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말에는 즐겁게 음식을 즐기고 가족별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행사 이후 지역발전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이어 유치

-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MD를 초청, 지역 농산물 및 식품의 우수성 직접 홍보
- 구매력이 높은 수도권지역의 MD 집중 공략

V. 향후 계획지표 설정의 전제

고려 요소

- 1) 유사행사의 계획 및 결과 사례
 - 유사행사의 사례를 분석한 주요 자료를 활용
 - 양양군 축제와 이벤트 및 문화행사의 성격, 규모, 차이를 감안하여 활용
- 2) 관광수요 및 형태분석 자료
 - 국내 관광 수요 및 형태와 관람객 관련자료를 분석 함으로써 관람객 추정 및 지표설정, 공원 내 관광 형태 추정의 근거
- 3) 인문 지리적 여건 분석
 - 개최지 여건과 접근성, 인접지역 인문 환경 및 관광권역 여건을 검토하여 입장객 관력 지표의 산출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제반시설, 운영계획상의 지표설정에 반영
- 4) 주제 및 연출개념
 - 양양군 웰빙식품 공원조성의 이념과 주제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의 연출개념을 계획지표상의 일관성 있는 설정요소로 고려
- 5) 유사행사의 계획 및 결과 사례
 - 계획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계획전개상의 효율성과 실현성을 제고하는 것임. 향후 계획서에는 제 지표의 도출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

- 감사합니다 -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KYUNG Dong UNIVERSITY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 양양현산문화제의 변용과 정체성진단 (임관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에대한 거시적접근 (김진동 강원도립대학 교수)

양양현산문화제의 변용과 정체성 진단

2015. 10. 16

임관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관광학박사]
lim3620@cku.ac.kr

목 차

- I. 서론
- II. 축제의 전통과 변용
- III.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IV. 지역사회기반(community based)의 양양현산문화제
- V. 결언

I. 서론



- ▣ 축제는 의례 자체며 신을 맞이하여 대접해서 보내는 의례를 행한 후 펼쳐지는 신나는 놀이판
- ▣ 즉 축제는 전승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펼치는 살기 위한 절실한 행사
- ▣ 농촌에서는 풍자기원의 봄축제, 수확을 감사하는 가을축제 도시에서는 역병퇴치 목적의 축제가 열림

II. 축제의 전통과 변용

- ▣ 인간의 유희적 본성과 놀이(Homo Ludens, Homo festivus)
 - 놀이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일
 - 하비콕스는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 라고 주장함
 - 고대 그리스 시대의 놀이란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고도의 지적인 작업으로 간주
 - 중세시대에는 생산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한계층의 '소비적인 활동'
 - 근대사회에서는 생산성 함양을 위해서 취하는 '휴식'에 불과
 - 현대의 대중소비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해 주는 척도로까지 간주되어 보다 더 잘 '향유'되어야 할 '덕목'
 - 축제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놀이의 대표적 형태



II. 축제의 전통과 변용

생의 역설적 찬미와 비밀상적 전도

- 축제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것이 성 역할전도, 지휘전도(남자와 여자, 왕자와 거지, 주인과 노예 등)와 같은 일상이 뒤집혀짐
- 축제는 일상생활의 단절
-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획득하기도 함 - 붉은 악마 등



초월적 에너지 획득

- 북 인디언의 '태양춤'이나 '유령춤'에서는 몽환의 경험을 통해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을 획득
- 이 힘에 의해 인간은 죽은 조상과 영혼을 만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친척에게 다녀 올 수도 있음(무당의 신내림 굿)

II. 축제의 전통과 변용

대안관광으로 거듭나기(축제의 효과)

분류		내용
긍정적 효과	정치적 효과	- 국제사회에서 지위 및 이미지 향상 - 정치적·행정적 발전 - 민간외교의 진흥
	경제적 효과	- 관광객지출효과 (문화 이벤트지출, 숙박, 교통, 쇼핑, 인근지역 관광에 대한 지출) -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 고용효과 - 연관사업 파급효과
	사회적 효과	- 지역주민에게 자긍심 고취 - 지역의 지명도 제고 및 정체성을 형성 - 지역 공동체의식 형성 -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촉진의 매체 역할

II. 축제의 전통과 변용

대안관광으로 거듭나기(축제의 효과)

분류		내용
긍정적 효과	문화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수준의 향상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증진 -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강화 -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
	교육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특성만으로도 관람객의 문화예술 감상 및 자연에 대한 지식수준 증가의 기회 제공 -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관광객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음
부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목적이용, 지역주민의 물질만능주의 확산 - 소비지향적 태도형성 - 관광적 가치강조로 문화유산 고유의 자원성 퇴색 - 문화의 상품화, 무대화된 고유성 형성 - 유적지의 파괴 및 문화의 변질 - 범죄율 증가,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II. 축제의 전통과 변용

축제 세계화의 단신

- 축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도당굿이나 별신굿과 같은 민간신앙(의례)은 사상되고 가지와 열매만 따 먹으려는 오늘날의 축제의 향방 혹 디즈니랜드(Disneyland)와 같은 Hyper-culture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맥주 축제

뮌헨 시장의 맥주통 꼬지 박기로부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해마다 9월 셋째 주부터 16일간 열린다.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1조 원에 육박하는 관광 수입이 발생한다.

성공요인은 바이에른 지역의 전통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통성과 정체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양양현산문화제의 목적

-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전통문화의 전승 및 향토의 역사성과 전통성 계승 발전
- 기미독립운동정신의 계승과 양양인의 높은 기상과 애국 애향심 진작
- 국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군민축제의 장으로 승화
- 선사·불교·호국문화가 함께하는 향토의 문화적 독창성 부각

▣ 양양현산문화제의 주요프로그램

- 고치물제, 장군성황제, 양양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탁장사놀이, 목침뺨기, 현산백일장 등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현산문화제의 문제점

- 양양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축제명의 정체성과 축제개최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주제가 부족
- 양양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화합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양양지역의 역사·문화·인물·음식·이야기 등 다양한 테마발굴이 요구됨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과 과제

- 축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지역마케팅의 전개를 통해 관광인프라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축제인프라 구축
- 특별관심관광(SIT : Special Interest Tour)과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서의 역할 수행
- 민속과 문화의 유지, 그리고 변용
- 호스트와 게스트의 조화
- 계획입안자의 사고전환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주체성 확립이 요구됨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대안관광으로 거듭나기

-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축제'의 경우 지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를 축제를 통하여 상승시킨 좋은 예임
- 축제는 주제공원(Theme Park)과 같은 정적자원에 활기를 부여하여 동적인 이미지를 창출함
- 대안관광상품(Alternative Tourism)으로서 관광자원이 미비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요소로 이용될 수 있음
- 성수기를 연장하거나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퀘벡'에서 개최되는 '겨울축제'나 '스코틀랜드'의 '실리드 음악축제'등이 좋은 사례임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대안관광으로 거듭나기

- 수도권 중심의 관광활동을 지방관광으로 확대 할 수 있는 관광대상지역의 확대기능과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된 이벤트의 경우에는 전통의 보존 및 학습기능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음
-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축제'와 같이 도시 및 지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기능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개최되는 'Le-high Valley 문화 이벤트'도 '에든버러 축제'와 같이 축제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도시 및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음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 축제명과 정체성

- '축제명'은 해당 축제의 특징적 내용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된 내용을 이용하여 축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수요자인 축제방문객들이 얼마나 연상하느냐에 따라 그 축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축제명'은 기본적으로 표출의 기능, 대표의 기능, 의미함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단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의 기능, 집단구성원들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기능, 집단결속과 사회통합의 기능, 개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행위를 유발시키며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기능 등을 수행함
- '축제명'은 지역의 문화나 추상적인 정체성을 표출하고, 지역의 특산품이나 인물을 대표하며, 의례·놀이·체험·쇼핑 등 축제적 의미를 함축함. 또한 축제기획가와 참가자들의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國旗가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축제는 참가자들의 상이한 사고와 갈등을 단결시키는 힘으로써 작용할 수 있음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㉑ 축제명 변경 사례

- '목포해양문화축제' → '목포항구축제'
: 축제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며 새 출발위해 축제명 변경
- '정월대보름들불축제' → '제주들불축제'
: 기존의 축제 개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제명 변경
- '마산 어시장축제' → '마산어시장 전어축제'
: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 전어를 더 부각시키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명 변경
- '홍성내포문화축제' → '홍성역사인물축제'
: 주제와 부합되는 축제 명칭 제정
- '청계등축제' → '서울빛초롱축제'
: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의 유사성 문제를 해소하고 축제 정체성 확보
- '삼량문화제' → '양산 삼량문화축전'
: 시민화합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해 열리던 삼량문화제와 달리 체험행사 위주의 대규모 순수축제로 변화하며 축제명 변경
- '전남광양전어문화축제' → '섬진강문화축제'
: 단순히 전어라는 먹거리 축제를 벗어나 섬진강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축제로 발돋움

Ⅲ.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㉑ 축제명 변경 사례

- '삼척죽서문화제' → '삼척정월대보름제'
-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작업이 한창이던 2003년 제31회 죽서문화제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죽서루에서 삼원제만 지내는 것으로 행사의 명맥을 유지
- 설문조사결과 시민들은 죽서문화제의 부활을 원했고 행사시기가 정월대보름 전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제'로 축제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됨
-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기 위해 축제명을 바꿈과 동시에 행사조직과 주요행사종목을 새로 구성

2006.12. 20~27

축제추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2007. 1. 9

축제
추진계획보고
삼척시 → 삼척시의회

2007. 1. 12

삼과소읍면
주무담당회의 개최
(삼척시발전위원회)

2007. 2. 13/14

회의결과보고
삼척시발전위원회
↓
삼척시의회

2007.2. 20/23

삼과소장
추진상황보고회 및
읍면동장
추진상황보고회

III. 양양현산문화제의 정체성 진단

축제명 변경 사례

- '삼척죽서문화제' → '삼척정월대보름제'

[삼척] "죽서문화제 다시 열자"

2007-1-8 (일)

-삼척시민 90% 이상 "지역 대표축제 육성"

지난 2002년 대풍 투사로 인해 중단돼 온 죽서문화제를 재개해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은 죽서문화제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적 차원에서 기존대로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행사 추진주체는 삼척문화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삼척시가 죽서문화제 재개를 위해 기관 단체 및 시민 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축제시기와 행사 추진주체에 대해 중점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응답자 374명(93.5%) 가운데 90% 이상이 죽서문화제과 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돼야 하며, 국내 외적 대표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삼척] 삼척기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강원일보 2012.02.20. 네이티브뉴스

연대 삼척시가 시도무형문화재 2호인 '삼척기름다리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해... 있으며 삼척시가 지난 5년전부터 정월대보름제 행사의 핵심인 기름다리기를 부활해 건국 및 지방에서...

[삼척] 삼척정월대보름제 14만명 참가, 성황리에 마쳐 강원신문 2014.03.10.
[양양신문 원미속 기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역스포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14 삼척 정월대보름제'는 14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지난 6월 산신제를 시작으로 남근조각경연 대회, 대가들다리기 등...



IV. 지역사회기반(community based)의 양양현산문화제

지역사회 이해하기

- 총체성의 가치(전체로서의 하나)
- 시스템의 가치(복잡한 요소가 서로 얽혀서 관계를 맺고 있음)
- 시민공용·공익의 가치(시민전체의 공동의 이익)
- 시민공감·공동참여(자부심과 애정)
- 내발성의 가치(자발적 발상 및 참여)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 지역의 소비자와 경영자 명확히 구분하자
- 지역의 Amenity와 사회자본의 진단,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 행정과 전문가는 지도자가 아니다(지원자, 파트너십)
- 지역 내 네트워크, 파트너십 기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IV. 지역사회기반(community based)의 양양현산문화제

주민참여의 가치

- 시민역량강화를 통한 계획수립 과정의 참여
- 문화권력과 권한의 이양
- 투명한 공개정보
- 전 세대에 걸친 공감대,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V. 결 언

지역기반(생활의 일부)의 축제

- 마을(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 상향식(Bottom-Up) 축제운영 · 내발적 지역발전의 Trigger

민속과 공동체 복원

- 기층문화 중심의 장기적 복원프로그램 개발
- 축제와 연계한 상설공연, 시연 등 프로그램 운영

대안관광으로서의 축제

- 문화관광을 통한 전승 및 학습
- SIT 상품개발

학습과 놀이로서의 축제

-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
- 지역 내 활동가 및 리더 양성

Brand/ E.I.FI 관리

- 민속과 관광의 융 · 복합 Brand 수립
- Event Identity, Festival Identity 개발 및 관리

양양현산문화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2015. 10.16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목차

- I | 현산문화제 개요
- II | 현산문화제 현황
- III | 현산문화제 문제점
- IV |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 V |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I. 현산문화제 개요



행사기간: 2015. 6. 4 - 2015. 6. 6

위치: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9

**행사내용: 전야제
군민노래자랑
개막식
전통공연**

II. 현산문화제 현황

1. 행사의 목적

-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전통문화의 전승 및 향토의 역사성과 전통성 계승 발전
- 기미독립운동정신의 계승과 양양인의 높은 기상과 애국 애향심 진작
- 국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군민축제의 장으로 승화
- 선사·불교·호국문화가 함께하는 향토의 문화적 독창성 부각

II. 현산문화제 현황

2. 행사 의의

- 선사문화의 시대별 유적이 넓게 선사문화권을 이룸.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의 주거지, 청동기, 철기 시대의 집자리와 무덤이 산재)
- 선사인들의 삶과 죽음의 증거로서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이 살았다는 중요한 자료가 됨

5

II. 현산문화제 현황

2. 행사 의의

- 신라통일 직후부터 북상하기 시작한 불교문화가
당시 한 고을로서는 가장 크게 번창함.
- 낙산사, 영혈사, 오색선사, 선림원, 진전사 등의
사찰이 창건됨.
- 낙산사는 세계 8대 관음성지로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각광을
불교문화의 정통 원류가 됨.

6

II. 현산문화제 현황

2. 행사 의의

- 고려초에는 양주성을 축성함
- 고려중엽에는 거란병의 침입을 대파하여 양주방어사를 설치함
- 조선 성종때에는 조산에 대포수군만호영을 설치함
- 구한말에는 신간회조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함
- 8.15해방 이후에는 반공운동의 진원지가 됨
- 6.25동란 때에는 국군 6개 사단이 창설됨

7

II. 현산문화제 현황

2. 행사 의의

- 선사문화의 시대별 유적이 넓게 선사문화권을 이룸.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의 주거지, 청동기,철기 시대의 집자리와 무덤이 산재)
선사인들의 삶과 죽음의 증거로서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이 살았다는 중요한 자료가 됨

8

II. 현산문화제 현황

3. 행사 의의

향토축제

역사성과 전통성

향토문화 특성 및 독창성

장군성황제 / 신석기인 가장 행렬 / 불교제등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9

II. 현산문화제 현황

3. 행사 내용



10

II. 현산문화제의 현황

4. 방문객 수 및 홍보

- 양양현산문화제에 참석하는 방문객 수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5년 2만명→2013년 6만명으로 증가함.
- 양양현산문화제에 홍보와 판매를 위해 군캐릭터 해키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100여 점이 판매)
- 상설운영 민속놀이 체험장에 파대놀이, 한궁경기 등 16종의 전통놀이 직접 체험 공간 확대

11

III. 현산문화제 문제점

	구분	문제점
방향성	축제컨셉	유사문화 축제중대로 인한 축제 컨셉 차별성 저하
	축제목적	역사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함축적인 용어사용의 부재
프로그램	축제컨텐츠	축제기간 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축제컨텐츠의 부재
		축제기간 후에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컨텐츠의 부재

12

III. 현산문화제 문제점

	구분	문제점
행사공간	문화행사컨텐츠	대부분의 문화컨텐츠가 보여주기식의 일방향성으로 구성
	전시공간	프로그램 준비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공간 미흡(eg. 분재, 야생화전시장)
	도심공간	방문객 체재를 유도할 수 있는 거점공간 부족
		쇼핑기회제공 노력 미흡(eg. 코리아그랜드 세일)
		야간 도심의 관광매력도 미흡

III. 현산문화제 문제점

	구분	문제점
먹거리	외부식업체 음식제공 공간	음식서비스의 질/가격/위생의 문제 제기
	먹거리 체험 공간	축제기간 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 컨텐츠의 부재(eg. 송촌떡, 향토음식)
특산물	특산물판매	축제기간에 제공되는 특산물의 높은 가격
		포장상품에 대한 낮은 방문객 만족도
		축제기간에만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축제특산물의 부재
		특산물 판매전시 공간의 부족 및 적정치 않은 배치
		특산물에 대한 상품내용 설명 판매자 교육 부족

III. 현산문화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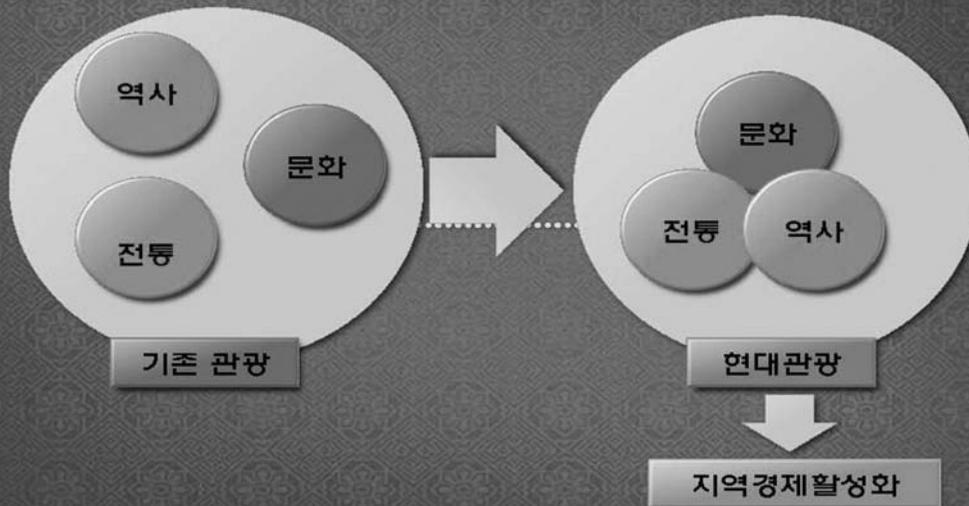
	구분	문제점
운영시설	편의시설	휴식/주차공간의 부족/ 화장실 비치품 부재
		자동화기기(ATM) 배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증가
	안내서비스	운영요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
		안내시설 및

	구분	문제점
연계관광	지역관광인프라	양양지역관광산업체와의 연계개발 상품 부재 eg. 솔비치 등 주요 관광숙박업체 양양관광택시제도 도입(시간제 관광코스)
	농촌체험마을	포매리마을, 학포리 등 농촌 전통테마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승천 떡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부족

15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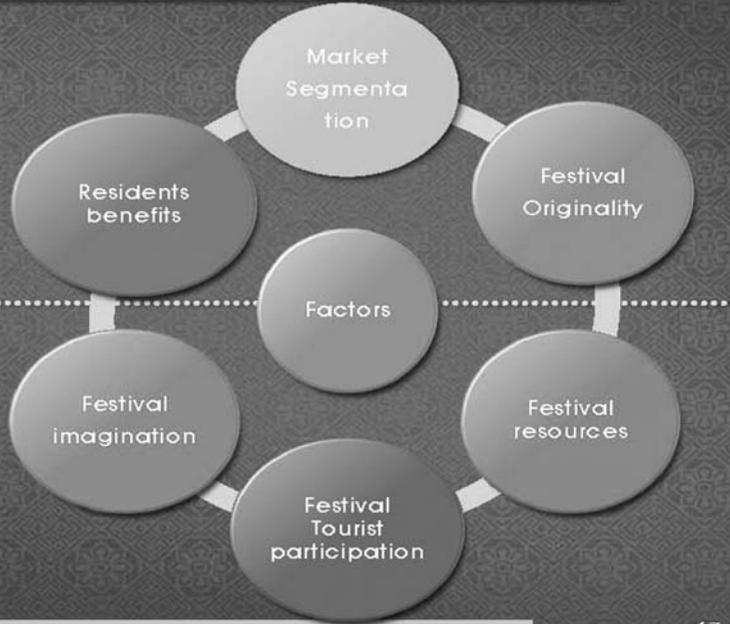
1. 관광의 환경변화



16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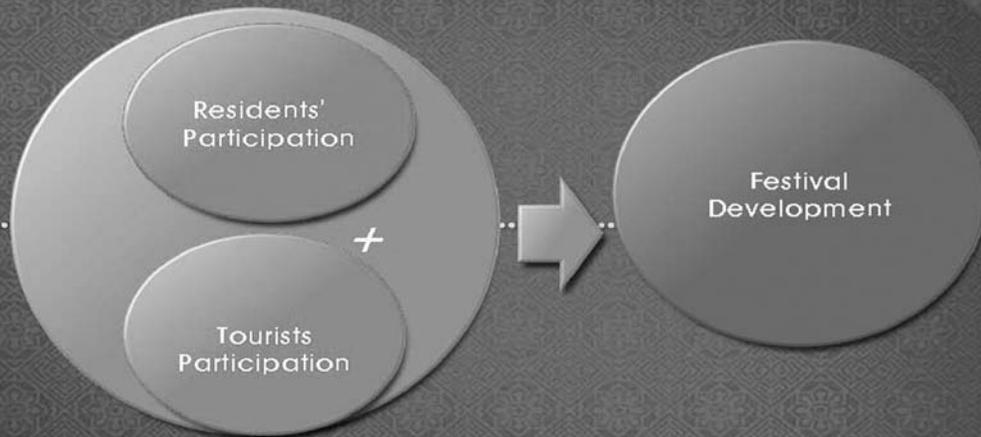
2. Requirement Factors for Festival Success



17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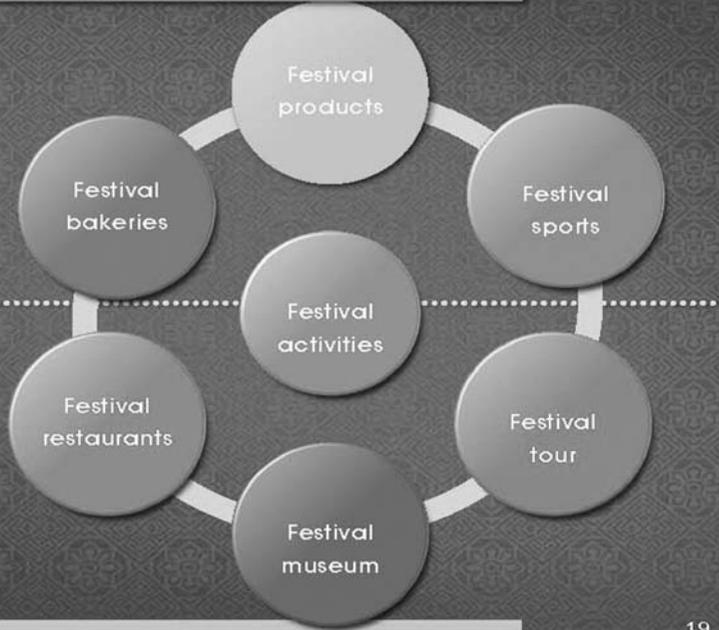
3. Requirement Factor for Festival Development



18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4. Festival Activities for Festival Success



19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5. Consideration



Impact on the environment



Impact on the culture



Economic benef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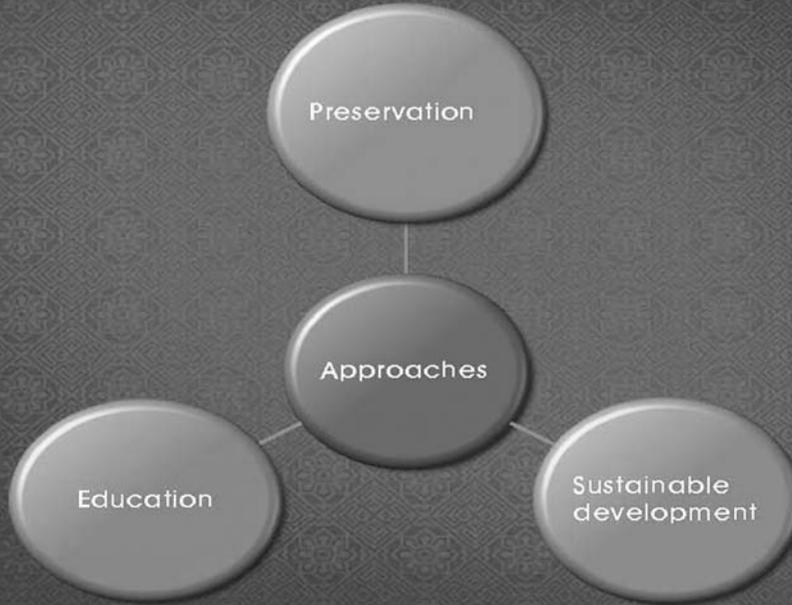


Festival tourists
recreational satisfaction

20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6. Approaches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7. Major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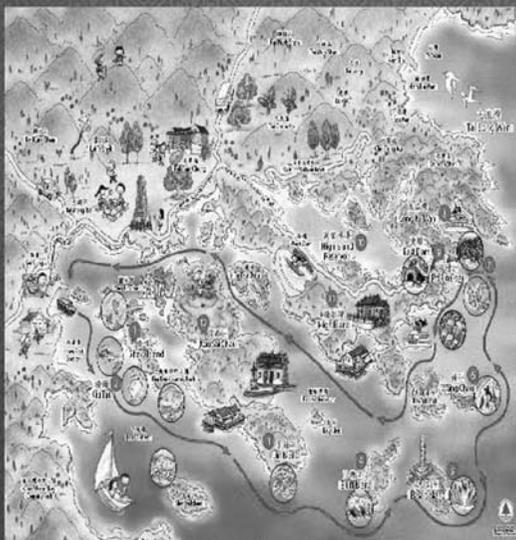
IV. 현산문화제 발전 접근 전략

8. Stimulation of Festival Developments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 Festival tours



Boat Tour Route

Visitors can enjoy views of the various geosites by staying comfortably on board. In fact, boat tours without allowing visitors onshore help to minimise human impact on sensitive geosites and ensure visitor safety at the same time.

Route	Theme	Time (hour)
Boat Tour of Sai Kung Islands	Hexagonal rock columns, wave abrasion landform	4
Boat Tour of Northeast New Territories	Bay scenery, island scenery	4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 Festival tours



Land Excursion

Nine land-tour routes length difficulty varies, some routes to use public transport and within walking distance, and some must first take the boat to go, before the visit for details.

Route	Location	Mode	Distance (km)	Duration (hr)	Difficulty
Ping Chau Country Trail	Tung Ping Chau	Hike	6	3	III
Lai Chi Wo Nature Trail	Double Haven	Hike	1.2	1	II
Ap Chau Geosite		Hike	1 (Round Trtp)	1	I
Kat O Nature Trail		Hike	1	1	I
Ma Shi Chau Nature Trail	Tolo Channel	Hike	3 (Round Trtp)	2	II
Lai Chi Chong Geosite	High Island	Hike	1 (Round Trtp)	1	I
High Island Geo Trail		Hike	2.2 (Round Trtp)	1.5	I
Tai Long Wan Hiking Trail		Hike	12	5	IV
Sharp Island Geo Trail	Sharp Island	Hike	1 (Round Trtp)	1	I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 Festival tours

Entry Form

Please take a minute to answer a few simple questions about your geocaching experience. The survey must be completed to be eligible for a geocoin.

Name

Address

Town Post/Zip Code

Country

Phone

Email

www.geocaching.com user name

How many people are in your group?

How far did you travel to reach The CATERAN TRAIL?

How many days were you in Perthshire?

How much did you spend on this trip?

Terms and Conditions
Geocoins are limited and will be award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with a quota limit. You must present your original passport to receive your geocoin. Only one geocoin may be awarded per form. Perthshire, North and Kinross Countryside Trust is not responsible for passports lost in the post. All geocoins are officially registered on www.geocaching.com.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PASSPORT

www.caterantrail/geocaching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 Festival tours



Join the Adventure!

Let your GPS guide you on an adventure around Parthia's misty hills and wooded glens. Special geocaches have been hidden at 20 sites along the Cateran Trail - and there are geocoin prizes for cachers that collect 25 points or more in their passport.

Good luck. Safe caching.

How to Take Part

- Visit www.geocaching.com. There's a handy video introduction for beginners. Register your username. Basic membership is free.
- Print out a Cateran Trail Geotour Passport at www.caterantrail.org/geocaching
- Find a Cateran Trail Geotour cache and write down the code word and date of find in this passport.
- Record your find on www.geocaching.com (Feel free to add to the photo gallery!)
- Repeat until you have the required points, fill out the form on the rear of this leaflet and send to:
Perth and Kinross Courtyards Trust,
Pubbar House, 35 Kinross Street, Perth PH1 5GD
- Keep a copy of the passport in case it gets lost in the post.

Prizes and Rules

- The first 250 people who achieve 25 points are eligible to receive a Bronze Cateran Trail Geocoin, trackable on www.geocaching.com
- The first 250 people to reach 30 points are eligible to receive an Antique Silver Cateran Trail Geocoin, trackable on www.geocaching.com
- Prizes can only be requested by post with a completed Geotour passport.
- You must sign the physical cache log for each geocache you find and record your find on www.geocaching.com to be eligible.
- Only fully completed passports are valid to receive prizes.

Points System

Per cache	1 Point
Per meal with participating cafes, restaurants and pubs	2 points
Per overnight stay with participating businesses	3 points

Details of participating businesses are available on:
www.caterantrail.org/geocaching

Geocaching Log Earn **1 point** for each codeword uncovered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Geocaching total

Meal Log Earn **2 points** per person, for each meal from a participating cafe, restaurant, pub or townhouse

2	2	2	2	2
2	2	2	2	2

Meal total

Accommodation Log Earn **3 points** per person, for each overnight stay with a participating business

3	3	3	3	3
3	3	3	3	3

Accommodation total

Points Total

Please send me a Bronze Cateran Trail GeoCoin (25 points required)

Please send me an Antique Silver Cateran Trail GeoCoin (30 points required)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 Festival tours



Department of Conservation Services

BERMUDA CONSERVATION GEOTOUR

PASSPORT

www.conservation.bm/geocaching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1. Festival tours



Geocaches (24 Total)	숨김	Difficulty	지형등급	크기
GeoTour GA01: Roeren Visser's Bowers	21	2014-11-11		
GeoTour GA02: Huizer Havenstraat	2	2014-11-16		
GeoTour GA03: Nautisch Kwartier	4	2014-11-11		
GeoTour GA04: Het Mouwtie	3	2015-02-25		
GeoTour GA05: Het Spaanse Huis	39	2015-02-25		
GeoTour GA06: Bastion Turfpoort	29	2014-12-24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2. Festival museum

The museum occupies an area of ca. 500 m² across the G/F and 1/F of the James Lee Science Building of the University of Hong Kong. Exhibits are presented with detailed Chinese and English explanations. Permanent exhibitions comprise 4 major galleries with many attractive large-scale educational rock fabrications resembling an outdoor environment through which the museum depicts the natural occurrence of fossils and different rocks types usually encountered in field. Together with interactive exhibits such as a 3D interactive Earth globe model, a rock cycle model, a "Make your own Earthquake" display and touch screens the museum encourages visitors to touch and interact with many of our exhibits.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2. Festival museum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2. Festival museum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3. Festival restaurants



Traditional and Geo Gourmets from Local Restaurateurs

Chuen Kee Seafood Restaurant

Tel: 2791 1195

Address: G/F, 51-55, Hoi Pong Street, Sai Kung

Hung Kee Seafood Restaurant

Tel: 2792 1348

Address: 4-8, G/F & 1/F, Siu Yat Bldg, Sai Kung Hoi Pong Square, Sai Kung

Sing Kee Seafood Restaurant

Tel: 2791 9887

Address: G/F, 33-39, Sai Kung Tai Street, Sai Kung

Tung Kee Seafood Restaurant

Tel: 2791 9886

Address: 11-15, G/F, Siu Yat Bldg, Sai Kung Hoi Pong Square, Sai K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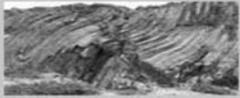
Yik Man Restaurant

Tel: 2679 9337

25-26, Kat O Main Street, Kat O Island, Sha Tau Kok, 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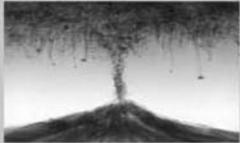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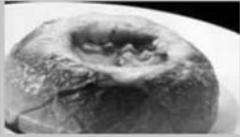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3. Festival restaurants

Appetizer				
Dish Name	Dish Description	Geo Park Feature	Picture	Geo description
Iconic Columnar Rocks Go On-stage	Tuna Pyramid with Apricot Sauce	 Hexagonal Columnar Rock		Spectacular hexagonal columnar rock covers the whole Sai Kung area, they are the products of volcanic activities.
The Classic Rock Cascade	Italian Copper Ham with Potato Salad & Crispy Onion	 Bluff Head		Bluff Head displays the oldest rock in Hong Kong. The inter-layered red and white rock strata formed about four hundred million years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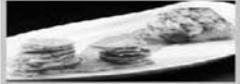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3. Festival restaurants

Soup				
Dish Name	Dish Description	Geo Park Feature	Picture	Geo description
The Cracked Dome	Oven-baked Pumpkin Potage with Puff Pastry	 Sharp Island		Continuous sun and rain lead to the exterior of boulders on sharp Island splitting into pieces, which look like a huge pineapple bun.
Caution! The Bubbling Lava!	Breaded Soup Beef Goulash	 Bluff Head		Crater collapsed when it lost support and formed a large bowl-shaped Cald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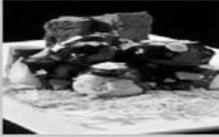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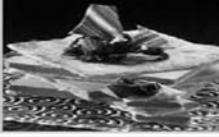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3. Festival restaurants

Main Course				
Dish Name	Dish Description	Geo Park Feature	Picture	Geo description
Duck's Eye over the Water	Crispy Prawn Wrapped with kataifi & fresh Mango /sake Kasu	 Ap Chau Bedrock		The well known Duck's eye is a typical sea arch, it is formed by continued coastal erosion.
Challenge the "Jonga" Rocks	Oven-baked Australia Miso Cod Fillet with Leek & Matsutake	 Sedimentary Rock		Sedimentary rock is layered rock which is formed by compaction of sediments accumulated in water layer by layer.
Geo Trio	Charcoal Grilled U.S. Short Rib with Lgg plant Gratin	 The Ninepin Group		The Ninepin Group mainly consists of South, North and East Ninepin Islands. Huge hexagonal rock columns are widely distributed on the islands.
The Muddy Sandstone Crossover	Slow Cooked U.S. Beef Tenderloin with Green Tea Sea Salt Flakes	 Siltstone		Siltstone is a kind of sedimentary rock which is formed by fine rock fragments, the texture is in between of mud and sand.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4. Festival bakery

Cake Series				
Dish Name	Dish Description	Geo Park Feature	Picture	Geo description
Placoderm the Crisped	Vanilla Ice Cream with Crispy Chocolate	 Placoderm		Placoderm is an extinct fish. Its head to thorax were covered by armoured plates.
Rock the Kockies	Crispy Chocolate Muffin with Meringue Profiteroles	 Wang Chau		Under the erosive power of waves, diverse coastal landforms are well developed along the Sai Kung coast, such as sea cliff and sea cave
The Chocodeck	Chocolate Mousse Mille Feuille	 Tung Ping Chau		Tung Ping Chau is made up entirely of layered sedimentary rock, which is the youngest rock of Hong Kong with a history of about 55 million years.
The Sleeping Beauty	Chocolate Chiffon Dome	 Volcano		Around 160 million years ago, Hong Kong was in the period of volcanic activities, a series of violent volcanic eruption had occurred in Hong Kong.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5. Festival sports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6. Festival product

Beverages

Wine, Sparkling wine, Sweet wine, Wine mix beverages, Water, Beer, Non-alcoholic beverages, Spirits, Alcoholic beverages, Fermented wine

Fruits and Vegetables

Fruits, Jams, Preserves, Fruit extracts, Molasses, Vegetables, Mushrooms

Meat and Fish

Meat (including game and poultry), Goods made from meat, Ham, Sausages, Bacon, Meat terrines, Meat and fish extracts, Ready-made dishes, Fish, Mussel, Shellfishes, Goods made of fish, molluscs or shellfishes

Cheese and Milk Products

Cheese, Milk, Milk products, Butter, Buttermilk, Yogurt, Cottage cheese, Cream, Mozzarella, Ice cream, Eggs

Cereals, Pastry, Pasta, Sweets

Cereals (cereal), Cereals, Flour, Semolina, Rice, Sage, Tapioca, Pasta, Pastries, Bread, Cakes, Baking powder, Malt, Sweet pastry and Sweets, Chocolate and Confectionery, Honey, Sugar

Plants, Seeds, Wood, Living Animals

Natural plants, Decorative plants, Flowers, Seeds, Wood, Logs (roundwood), Wood (semi-processed), Living animals, Feedingstuff

Oils, Spices, Mustard, Vinegar

Oil, Animal and vegetable oils, Animal and vegetable essences, Herbs, Spices, Yeast, Salt, Sauces, gravy, dressings, dips, Vinegar

Coffee, Tea and Tobacco

Coffee, Tea, Cocoa, Tobacco, Tobacco goods, Cigars

Medicine and Remedies

Medicine, Remedies, Nutritional supplements, Med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Perfumery, Cosmetics and Chemicals

Perfumery, Cosmetics and body care products, Soaps, Washing and cleaning detergents, Abrasives, polishing and buffing materials, Essential oils, Chemical substances and preparations, Fats and oils (technical), Fertilisers, Fire-retardanting agents, Explosives, Colours, Paint, painting materials

Fabrics, Textiles, Clothing

Fabrics, Textiles, Articles of clothing, Shoes, Boots, Laces, Embroidery, Yarns, Threads, Ties, Ropes, Nets, Lardons, Needles, Sacks, Mats, Carpets, Leather goods, Furs, Bags, Wool

Metals and goods made of metal

Metal and alloys, Cutlery and blades, Tools, Machines, Weaponry, Ammunition, Venetians, Coins made of metal, Watches, Clocks

Glass, Porcelain, Furniture

Glass, Goods made of glass, Goods made of porcelain, Goods made of bone china, Goods made of ceramics, Household items and crockery, Lamps, Mirrors, Frames, Musical instruments and fittings, Toys, Christmas tree decoration

Stones, Minerals, Gems

Stone, Minerals, Earths, Gems, Mineral ores, Coal

Handicraft products, electrical goods

Other handicraft products, Other industrial products, Electrical apparatus, Lighting apparatus

Services

Services in the field of finance, Service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Services in the field of assurances, Services in the field of publications and edi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sciences, Services in the field of gastronomy, accommodation and tourism, Services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rtistel services, Services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and events

V. 현산문화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6. Festival product

Featured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in the country of origin

Oli de l'Empordà

Aceite de L'Empordà

 Spain  Figueras  Animal and vegetable oils

Gained from olives of the varieties "Argudell", "Curivell", "Llei de Cadaqués" or "Arbequinal...Predominant is a mediterranean maritime climate along the coast and a subhumid climate up country...Archeological sites prove that olive oil...



Featured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in the country of origin

Tuscia

 Italy  VITERBO (VITERBO)  Animal and vegetable oils

"Tuscia" extra is derived 90 % from the olive varieties "Frantoio", "Caninese" and "Leccino"...The use of herbicides is prohibited as well as use of chemicals which make the fruit fall from the ...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에 대한 거시적 접근



김진동



차례

I. 양양현산문화제 개요

II. 양양현산문화제 행사프로그램

III.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IV. 축제의 미래 방향성

I. 양양현산문화제 개요

- 1979년 시작, 매년 단오기간 개최, 양양지역 가장 오래된 축제
- 국태민안·풍농풍어 기원, 전통문화 전승 및 향토 역사·전통성 계승 발전
- 기미독립운동정신 계승, 양양인의 높은 기상과 애국 애향심 진작
- 국민화합, 향토애 고취 군민축제의 장
- 선사·불교·호국문화의 문화적 독창성 부각

참조: <http://hyunsan.yangyang.go.kr>

II. 양양현산문화제 행사프로그램

전야행사

- 고치물제, 장군성황제(제례행사)

식전행사

- 양양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막식

- 군민문화상 시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

식후행사

- 통일염원 풍선날리기, 어린이 유도시범

참조: <http://hyunsan.yangyang.go.kr>

Ⅱ. 양양현산문화제 행사프로그램

민속놀이

- 물동이 이고 달리기, 그네뛰기,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전통혼례, 널뛰기, 한궁경기, 어린이굴렁쇠 굴리기, 윷놀이, 민속시연, 장기대회, 씨름대회, 제기차기, 탁장사놀이, 목침뺏기, 투호놀이, 짚단 멀리던지기, 줄다리기
- 전통민속 체험공간 운영(제기차기, 닭싸움, 목침뺏기, 탁장사놀이, 투호놀이, 굴렁쇠굴리기, 윷놀이, 널뛰기, 한궁경기, 새끼꼬기, 그네뛰기, 비석치기·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파대놀이, 다듬이질)

참조: <http://hyunsan.yangyang.go.kr>

Ⅱ. 양양현산문화제 행사프로그램

경축문화행사

- 휘호대회, 바둑대회, 현산백일장

축하공연

- 어린이유도시범, 민요, 난타공연, 여성회관과목식연, 각종댄스 공연, 사물놀이공연, 인기가수초청공연

체육행사 / 폐막식

참조: <http://hyunsan.yangy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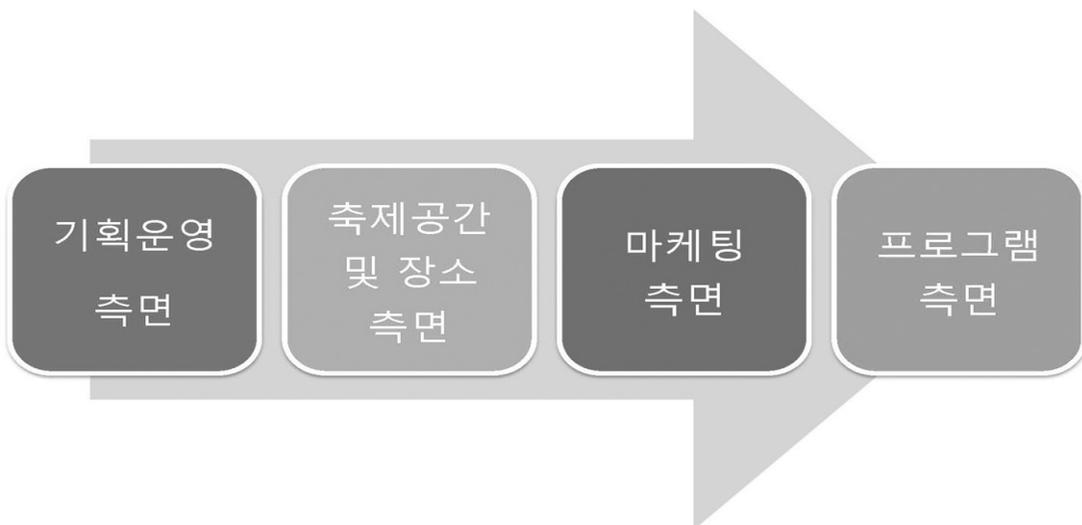
Ⅱ. 양양현산문화제 행사프로그램

부 대 행 사

- 농·특산물전시회(체험·홍보), 공예특산품 전시 체험(체험·홍보), 장군굿 공연, 민속짚공예(짚공예 제작시연), 미천골 자연 휴양림체험(체험·홍보), 아마추어무선공개(체험·홍보), 기상·기후변화홍보관(체험·홍보), 여성회관·아이돌보미·여성새로일하기·다문화센터 홍보, 연암 박지원 관련 양양자연경관 사진전시회, 서예·문인화·수채화 등 작품전시회, 꽃누르미, 한지공예, 가구리품 전시회, 정신건강증진센터 홍보, 설악산국립공원 홍보 체험, 송천떡마을(체험·홍보), 쉼터(체험·홍보), 수지침 봉사, 자원봉사, 양양지역자활센터 홍보, 우리차 무료시음, 한시백일장 전시회,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 페이스페인팅체험, 양양군보건소 홍보 및 체험, 킷 수공예(홍보·체험), 아나바다 장터(홍보·체험), 꽃반지 만들기·복지 꿈나무 열매달기·무료음료봉사(홍보·체험),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군민체육대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참조: <http://hyunsan.yangyang.go.kr>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기획운영 측면

- 군민만의 연례행사식 지역축제에 머물것인가?
- 주민화합 및 잡화식 프로그램 등 타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축제로 지속?
- 축제의 정체성 및 개념의 재설정
- 양양지역 고유성과 정체성 부각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기획운영 측면

- 가장 오래된 지역축제로서 역사문화종합축제로 변화 고려
- 외지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표축제 지향
- 축제명칭에 대한 재고: 현대적 의미, 역사·문화·전통성 고려
- 전문가 자문, 방문객 조사 등 축제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제전반 모니터링 및 피드백 수행과 점진적 축제의 질 개선 지향 중요
- 축제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증액 적극 고려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기획
운영
측면

- 축제개최시기에 대한 재고: 타지역 축제시기 및 외지 관광객 유입 고려 탄력적 운영 검토
- 축제기획운영시의 전문인력 참여 활성화
- 축제안내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필요: 안내인력배치, 안내홍보물 제작 및 설치, 안내센터 등 관련
- 지역주민의 축제참여 확대 및 몰입도 제고: 주민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축제관련 의견개진 및 논의를 위한 협의체 및 창구 검토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 현재의 남대천 둔치 및 주변 공간에서의 변화 고려
- 해맞이 축제를 제외한 모든 축제가 동일공간에서 진행
- 장소·공간의 효율성 제고 및 축제간 차별화 차원에서의 고려 가능
- 풍물시장(야시장) 이동시 제방도로 위의 설치물·적재물과 낮은 가림막, 좁은 보행공간 등이 불편 야기

축제공간 및 장소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 송이축제 조형물 그대로 방치
- 우천시 현재의 축제장소 보행 불편 야기
- 시설보완 및 장소 변화 등 장기적 계획 마련
- 행사 프로그램 특성별 고려를 통해 장소 및 공간변화와 행사 부스 간 간격 조정 등 합리적 변화 고려
- 전통민속, 역사문화, 부대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별 성격에 따라 낙산사, 유적지, 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서 진행 고려

축제공간 및 장소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 민속시연 및 민속놀이 체험공간, 굿당 등의 연행장소 및 공간에 대한 변화 필요
- 관련 장소·공간의 재배치, 확대 및 집중화 등 조정을 통해 전통문화축제로의 정체성 및 이미지 부각과 장소성 강화
- 축제컨셉과 거리가 있는 일반적 홍보 행사프로그램이 많고 관련 부스 비중도 높아 재고 필요
- 축제장소에서의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개선

축제공간 및 장소





기존 축제 조형물
존치

우천시 보행로 관리



대둔주사
남천치행장

민속시연
및 체험재





각종 홍보 및 체험부스
축제컨셉 검토

부스간 공간배치 검토



굿당장소 및 공간 재고

풍물시장전경 /
독특한 볼거리, 즐길
거리 확대 검토





풍물시장 환경 재고 /
보행로 적재물·좁은 보행
로·낮은 가림막 등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마케팅 측면

- 홈페이지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 관리 강화
- 홈페이지 메뉴바, 사진 및 동영상 자료, 텍스트 자료, 업데이트, 게시판, 화면구성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필요
- 체계성, 정보성, 전문성, 다양성, 시각성, 내용구성, 편리성, 운영측면 등에 대한 재고
- 블로그, SNS 활용도 제고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마케팅 측면

- 방송사 및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 노출빈도 및 활용도 제고
- 특집방송제작 및 지속적 언론노출 필요
- 축제 홍보물 제작 및 관련 박람회 참여 인지도 제고
- 공사 및 관련협회, 타 지자체 등을 통한 공적홍보채널 확대
-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축제홍보 및 관광상품성 강화
- 지역축제(송이·연어) 및 강릉단오제 등 주요축제를 통한 홍보 강화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프로그램 측면

- 지역주민 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가장 오래된 전통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관련 프로그램 재구성: 축제목적 및 정체성에 부합하고 전통문화 및 고유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연령대별·성별·지역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다른 축제와 중복 프로그램의 최소화 및 배제를 통한 차별화 추구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프로그램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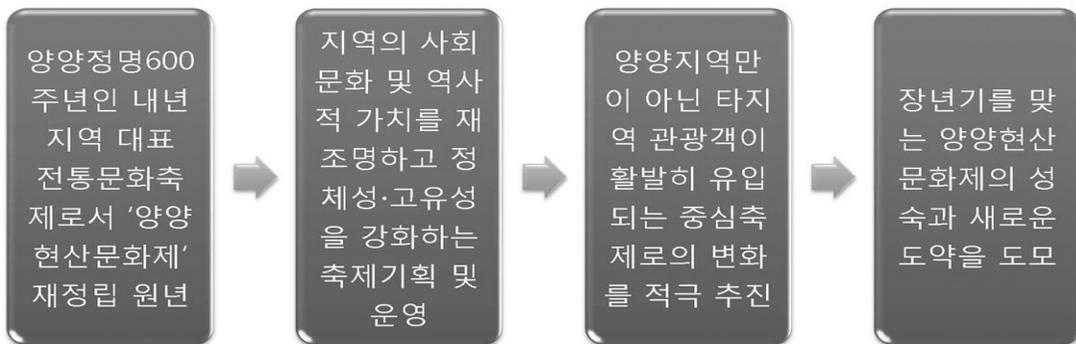
- 일반홍보관련 행사 및 축제의 주제와 관련성이 약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편 필요
- 방문객이 많은 풍물시장(야시장)의 특성화 제고를 통해 주요 관람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개발
- 다양한 전통민속음식 체험 및 시식 등의 프로그램 적극 개발

Ⅲ. 양양현산문화제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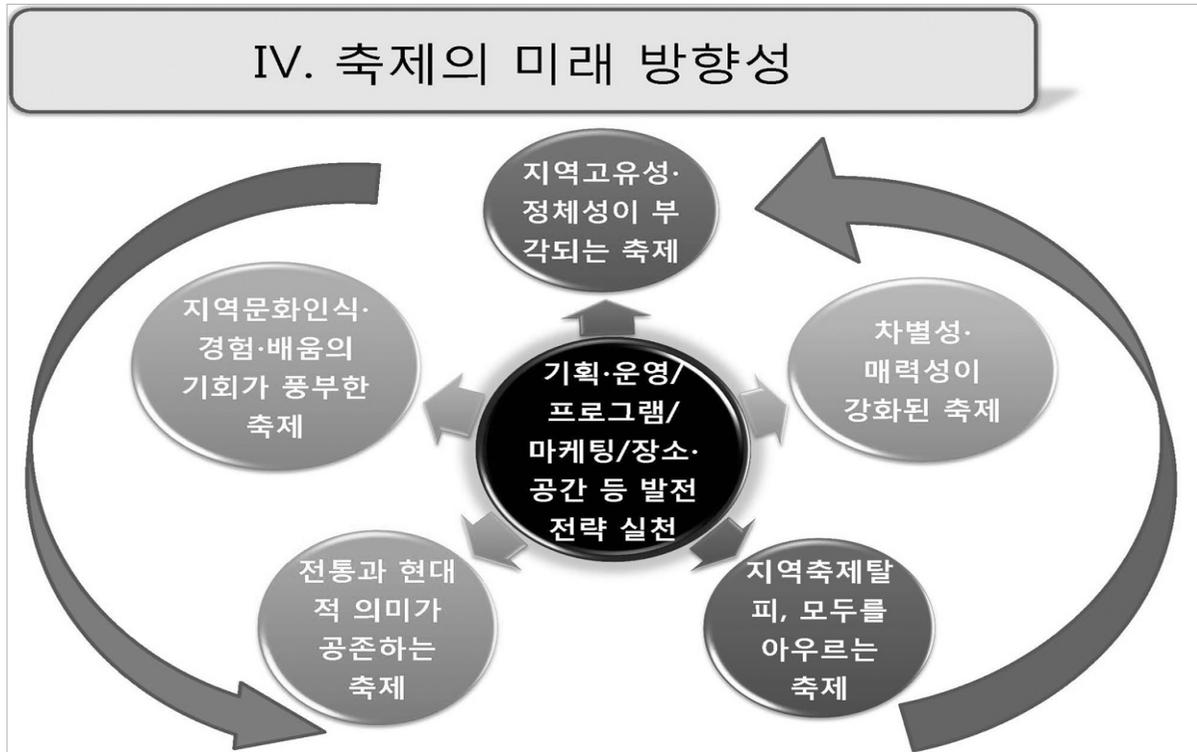
프로그램 측면

- 양양지역의 전설, 우화, 민담, 설화, 구전 등의 축제관광자원화 중요
- 탁장사놀이와 같이 불교 및 역사적 인물 등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적극 발굴 및 관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지역별 전통민속놀이 및 행사의 축제콘텐츠화도 중요
- 양양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 민속, 풍습 등에 대한 체험 및 배움의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공간확보(부스설치 등)

IV. 축제의 미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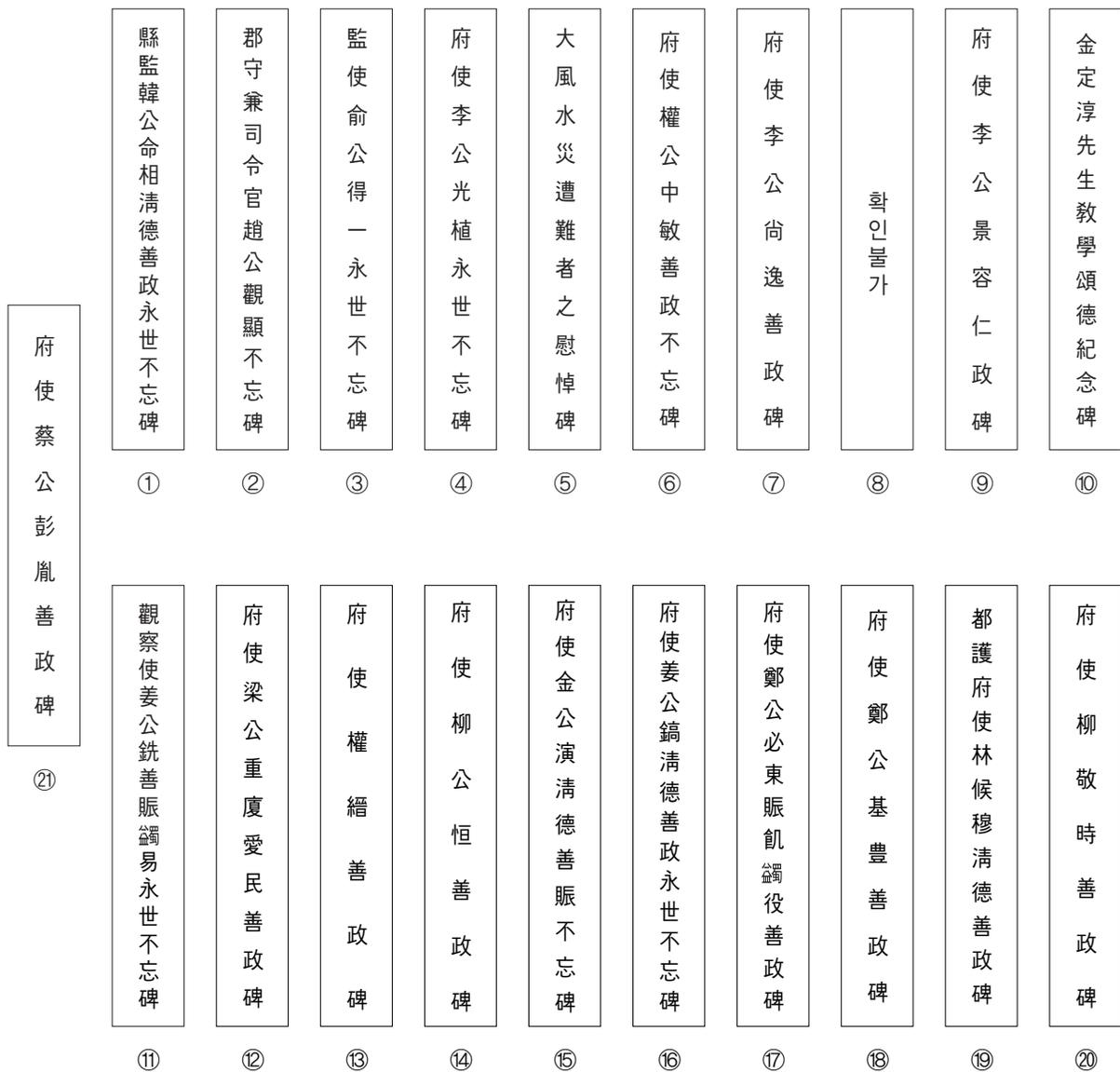


IV. 축제의 미래 방향성



감사합니다

峴山公園 碑 位置圖



① 縣監韓公命相清德善政永世不忘碑
현감한공명상청덕선정영세불망비

② 郡守兼司令官趙公觀顯不忘碑
군수겸사령관조공관현불망비

③ 監司俞公得一永世不忘碑
감사유공득일영세불망비

④ 府使李公光植永世不忘碑
부사이공광식영세불망비

⑤ 大風水災遭難者之慰悼碑
대풍수재조난자지위도비

⑥ 府使權公中敏善政不忘碑
부사권공중민선정불망비

⑦ 府使李公尙逸善政碑
부사이공상일선정비

⑧ 확인불가

⑨ 府使李公景容仁政碑
부사이공경용인정비

⑩ 金定淳先生教學頌德記念碑
김정순선생교학송덕기념비

⑪ 觀察使姜公銑善賑蠲役永世不忘碑
관찰사강공선진견역영세불망비

⑫ 府使梁公重夏愛民善政碑
부사양공중하애민선정비

⑬ 府使權縉善政碑
부사권진선정비

⑭ 府使柳公恒善政碑
부사유공항선정비

⑮ 府使金公演清德善賑不忘碑
부사김공연청덕선진불망비

⑯ 府使姜公鎬清德善政永世不忘碑
부사강공호청덕선정영세불망비

⑰ 府使鄭公必東賑飢蠲役善政碑
부사정공필동진기견역선정비

⑱ 府使鄭公基豐善政碑
부사정공기풍선정비

⑲ 都護府使林候穆清德善政碑
도호부사임후목청덕선정비

⑳ 府使柳敬時善政碑
부사유경시선정비

㉑ 府使蔡公彭胤善政碑
부사채공팽윤선정비

양양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강원도립대학 교수 양언석

서론

오늘, 양양문화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내년이 양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양양군과 문화원이 정명 6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 600주년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60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양양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성공은, 문화원 회원 여러분의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후 쯤 양양의 모습은 어떨까?

시골에 노인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반쯤은 폐허가 된 고을로, 유명이 마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수한 양양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와 폐교가 부활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양양을 찾는 사람들로 변화한 즉, 조선조처럼 변화한 양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명 600주년의 행사는 양양이 변화할 수 있는 골드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선조에 양양은 대단하였다. 조선왕조의 외친, 즉 조선왕조의 뿌리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금강산으로 가면서 양양에서 자고 가고, 돌아오면서 아름답고 우수한 문화를 간직한 양양에서 회포를 풀었던, 돈이 붐볐던 고을로, 변화한 곳이었다.(기생)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가 미래인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600년을 즈음하여 저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지역학, 즉, 양양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는 양

양학을 학문으로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양양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중요한 지역학의 시점에서, 양양학은 역사, 인문, 지리,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산업 등을 연구하여 미래발전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양양학이 중요한데, 그 중, 역사와 인문, 지리, 문화, 관광분야만이라도 정명 600주년을 맞아 준비해 보았으면 한다.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의미 있고 흥미로운 담론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성공한 지역이나 우수한 문화에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의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과 삶과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의 양양문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양양의 문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를 들면서 양양학 분과 중에서 역사, 교육, 관광, 환경, 정신문화 측면에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리적 관점

양양은 우수한 문화와 함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일찍부터 문명의 삶을 살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즉 풍수에 의하면,

대저 살 곳을 택할 때, 처음에는 지리(땅의 생김새와 형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생리(생활하는 습성), 인심(백성의 마음), 마지막으로 산수(산과 물)을 돌아본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살기 좋은 곳이 못된다. 지리가 아름답고 생리가 좋지 못 하면 오래 살 곳이 못 되며, 생리가 좋고 지리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집터는 산소자리와는 달라서 물이 있어야 재산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이 고여 있는 물가에는 부유한 집과 명촌과 번성하는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역시 시냇물이 모여드는 곳이라야 대를 이어 오래도록 살 터가 된다,

그 예로 풍수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이 스님이다. 절터를 정할 때, 풍수를 봅니다. 신라는 불교국가였고, 양양은 불교의 성지였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풍수가 좋았다. 의상이 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양양에 낙산사를 창건한 것은 풍수가 좋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신도 존재한다.

2. 역사적 배경

❖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오랜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었고, 지난날 관광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양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무엇인가?

조선조 왕조(1392년 창건)를 보면, 조선왕조를 창건하면서 우리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의 외친이기 때문이다.

태조6년(1397) 1월에 양주를 임금의 외친본관이기 때문에 부로 승격시켜 양주부라고 하였습니다.

태종13년(1413) 예에 따라 양주부를 왕조의 외친이라 하여 양주도호부로 승격하였습니다.

태종16년(1416) 양주를 양양이라고 개칭하여, 양양도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왕조에서 특별히 관리해 왔습니다. 왜 이곳을 양양이라는 지명으로 개칭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동해신묘와 조선왕조의 외친이라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의 신을 모시는 해가 떠오르는 고을로, 조선왕조의 태동이라는 의미로 양양이라는 명칭을 나라에서 정하였다.

동해신묘의 명칭도 저는, 고려사에 처음 사용한 대로 동해신사라고 해야한다. 지역문화에서 명칭 변경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정정하는 것이 양양의 정체성을 찾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동해신묘라고 했는가? 그것은 17-18세기 유교문화가 불교와 불교같이 귀신의 세계를 폄하하는 시대적 사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의 뿌리를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하고 자신의 뿌리를 양양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 유교와 불교의 차이 1)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유가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답을 줄 수 없다. 2) 제사 3)유교는 현실-도덕사상

* 조선왕조 창건이 1392년으로, 많은 사건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5년 후 양양에 대해서 외친으로 부로 승격시킨 것은 조선왕조의 뿌리를 양양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왕조 태조와 태종이 600백 년 전에 양양을 어떤 마음으로 왕조의 뿌리로 인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선왕조 이성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앞으로 6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종실록 지리지 양양 연혁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실록권일, 총서 낙산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도조인 이선래를 낳다.

조선조 태조실록에 의하면 익조(이성계 증조부)가 양양에 거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자 부인 최씨와 함께 낙산의 관음굴에 기도하였더니, 밤 꿈에 한 승복을 입은 중이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善來라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의주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마침내 선래라 했으니 이 분이 도조이다. 관음굴은 지금 강

원도 양양부에 있다. 이때 익조가 안변에 왕래하였는데 또한 화주와 함주에도 왕래하였다.

낙산사 관음굴은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의 후사를 점지한 기도처로 해마다 강향사를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고 사전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낙산사는 궁중불교의 도량으로 이름 하였다.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홍예문을 축성하였다. 이때부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와 부인이 여기서 빌어 도조를 낳았다고 하여 아기빌이 굴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조선왕조의 출생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종 실록에 의하면 정희왕후(세조비)가 일 년에 쌀 백 섬씩 낙산사에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양양이 조선왕조의 外親인가?

이안사

이안사는 이성계의 고조부로 전주의 유력 세력가였다. 이때는 몽고군이 침략하였던 고종 후반기이다. 이때 이안사가 전주관아의 관기 한 명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주사가 전주에 안렴사로 부임하는 산성별감을 접대하기 위해 그 관기로 하여금 수청을 들게 하였다. 평소에 지주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안사가 화가 무척 났다. 왜 많은 기생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기생으로 하여금 수청 들게 한다고 하여,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술상을 엮어 버렸다. 이에 후환이 두려워 가족을 거느리고 삼척 미로면으로 도망을 옵니다. 삼척에 산지 1년도 못되어 아버지(이양무)가 돌아가셨다. 이에 묘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몹시 피곤하여 잠시 쉬고 있는데 이때, 한 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나타났다. 주위를 모두 살펴본 후에 인적이 없는 것을 알고 확인하고 “大地가 吉地로다” 하였다. 이안사가 나무 밑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도승은 동자에게 이곳이 제대로 발복하려면 開土祭를 소 백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야 하고 관은 금으로 만든 것을 써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래야 5대손 안에 왕자가 출생하여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왕이 된다.

가난한 살림에 소백마리와 금으로 된 관을 만들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백소(흰소)로 대신하고 금관은 귀리 짚이 황금색이라 대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척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자신과 갈등이 심했던 전주의 지주사가 관동의 안렴사로 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가족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양양에 머물게 되었다. 이 때, 부인 최씨와 낙산사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도조가 탄생하였다.

양양이라는 지명은 참 좋은 이름- 동해 신이 살았고, 해가 떠오르는 조왕조가 탄생한 곳이다. 좋은 이름이란 1) 부르기 좋고(음의 조화)기억하기 좋은 이름, 2) 좋은 의미, 3) 개성이 있어야 한다.(양양에 산다. 양양하게)

3. 관광

❖ 양양의 문화적 자부심은 무엇인가?

낙산사, 동해신사, 향교, 조신 이야기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저는 양양도호부 관아.

*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관아(官衙) 재건. 양양도호부 관아 설립은 이 지역의 역사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왕조가 특별히 관리했던 조선조 양양도호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도호부 건물이 재건된다면 양양인들이-속초시민들이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설악권에서 중심 고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양양분들이 별로 고민이 없다. 왜 그럴까? 문화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교육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문화원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 한 것은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된다.

양양도호부 관아 건물은 궁궐처럼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아름답다. 門樓가 자연과 어울리는 풍경이고, 문루의 이름 또한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성안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었다.(청연당이라는 동헌, 객관의 문루 태평루, 동쪽 성문인 한수루, 남쪽 성문인 현산정, 도호부 가운데 연못에 위에 있는 정자 애연정)

도호부 관아 복원을 통해 영북지역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양양의 역사성을 복원하여 문화적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려 목종 10년(1007) 10월에 348간의 성(城)을 축조하고 성문 4개를 설치하였다.¹⁾

기록²⁾과 구전에 의하면 양주성 축성을 계기로 성내(城內)에서 성황신을 봉안하여 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신 전통이 그대로 복원되어 지금의 양양 현산문화제로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왜 현산이라는 명칭을 쓰는지?

문화제에 모시는 신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천년 이상 된 성황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체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느 성황사나 모시는 주신이 있다. 그 주신이 누구인가?

양양군지(2010)에 보면,

고려 목종10년(1007)에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하고 매년 침입해 오는 외적들과 향전을 계속하면서 향토를 수호하고 이 후 양주성을 동서남북에 4대문을 내고 성내에 성황사를 짓

1) 『고려사』 권82 표36 병2 성보조

2)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 춘추로 치제를 하였으며 선조25년(1592) 이후 매년 5월 5일 제의 뿐만 아니라 성황굿을 성대하게 하였다. ...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장군성황제가 열렸는데 15시경 고치물제부터 시작하여 장군성황당에서는 양양군수를 초헌관으로 하여 성황제를 지낸다.

참으로 아쉽다.(성종 11년(992)-成廟別號-중국지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사실 강릉도 중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강릉인들은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지 않는다. 왜 자존심 때문에...

4. 교육

* 고려시대 주목할 만 한 분은 근재 안축선생이다. 안축(1287-1348)은 원에서 과거급제를 하고 고려에 돌아와 충혜왕 때, 강원도 준무사로 파견되어 양양에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썼다. (신라 때 문선왕동이라는 신라의 학교터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당연하다. 왜냐하면 신라 화랑도들의 중심수련장에 학교가 없었을 리가 없다. 그 자리에 향교를 세웠다.) 안축의 생각은 학교를 만들어 인재양성하면, 집에는 재주와 학문 있는 자손이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한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처럼 안축의 학교 건축으로 오늘, 양양의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고을마다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안축 같은 분을 선양사업을 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관동와주에 담겨 있다. 후에 내시의 미음을 사 파직. 경기체가인 관동별곡이 있고, 양양에 향교를 처음으로 세워 양양의 풍습과 교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분을 선양해야 한다.

5. 화랑도의 중심수련장

양양관아의 건물에 관한 기록은 『현산지(峴山誌)』 공해(公廡-공관)조에 명칭과 위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³⁾ (군인수도 기병 등 1169명이 주둔)

3) 『관동지(關東誌)』 공해조(公廡-공관)에 의하면,

객사(客舍) 35간, 아사(衙舍) 108간, 향청(鄉廳) 10간, 훈련청(訓練廳) 14간, 군기청(軍器廳) 10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군보(軍保)조 의하면, 기병(騎兵) 454명, 어영군(御營軍) 19명, 금위군보(禁衛軍保) 37명, 자보(資保) 21명, 훈련도감 포수보(訓練都監砲手保) 188명, 별파진(別破陳) 5명, 악공보(樂工保) 18명, 악생보(樂生保) 6명, 전설보(典設保) 36명, 무학(武學) 13명, 아병(牙兵) 63명, 속오군(束伍軍) 309명으로 그 규모를 인지할 수 있다.

양양관아의 건물에 관한 기록은 『현산지(峴山誌)』 공해(公廡-공관)조에 명칭과 위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성·돌로 쌓은 곳은 돌레가 403척, 토성은 돌레가 2,825척으로 성안에는 우물에 2곳이 있다. 지금 성벽은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고 다만 동,남,서문만 남아있다.

양양읍성 돌레 2,724척은 본부와 원주인 군인 1,475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다.

* 영동지역 중에서 양양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구역이고 군사적, 교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고구려의 영토였고 신라가 강성할 때는 신라에 속하였다. 그리고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한 관심지역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적으로는 불교이고, 지역적으로는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다. 영동에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삼국을 통일 할 최고의 지형이다. 그래서 신라는 영동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삼국을 통일할 중심지역으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교, 즉 불교를 통해 一心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의 고구려가 그 이후에 양양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한 번도 되찾지 못했다. 그것은 신라의 정책이었다. 고승들과 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다투어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여 이곳을 불교의 성지로 만들었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으로 화랑이면 누구나 이곳을 순례하며 지형을 배우고, 국토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이상적인 인간은 화랑이나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으로 그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화랑들의 규모는 3백 명에서 3천 명 정도로, 구성은 국선인 화랑 1명과 그 밑에 승려 2-3명, 그리고 화랑도로 되어 있다. 유명한 승려들과 화랑도는 15-18세 정도, 수련 기간은 3년 정도이다.

우리 민족의 이상형인 화랑으로,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전통이 이어진다. 화랑은 그 명예에 어울리는 교육방법이 있었다.

1) 相磨以道義, 2) 相悅以歌樂, 3) 遊娛山水의 도를 중시하였고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벗하였다. 화랑들의 교육방법은 첫째가 상마도의이다. 도(道)와 의(義)를 연마하였다. 둘째가 상열가락이다. 가무(歌舞)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훈련이다. 셋째가 유오산수 이 명산대천(名山大天) 을 다니면서 천지 기운을 받는 수련이다. 가장 이상적인 한국형 인물은 화랑이었다. 이 화랑이 조선조 선비로 이어진다. 오늘날도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어떤 교육= 산-웅장함과 경건함, 바다-열정적임 힘, 호수-고요함

양양에도 화랑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월일전리에 가면 화랑소가 있다. 화랑소란 신라 화랑 원일이 이 소에서 놀다간 후로 이 소를 화랑소라고 부른다. 어쩌면 이 원일랑이 찾았던 곳을 월일전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영랑호에 화랑들이 노닐었던 곳에 정자가 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경포대와 한송정은 낭도 3천명이 각기 소나무 한 그루씩 심어 푸르름을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양문화는 무엇인가? 양양이라는 이름값은 하고 있는가? 한번 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어떤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중요

한 것은 문화적 전통으로, 전통은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 양양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인접한 강릉은, 시와 문화원에서 전통문화유산을 마음껏 지원하여 발전하고 있다. 속초는 아주 작은 전통문화유산이라도 있으면 창조하고 만들어 간다. 그런데 양양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도 관리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양양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양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우수한 문화유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인물

❖ 연암 박지원

1) 조선조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양양부사를 지낸 연암 박지원은 부임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지방수령의 녹봉을 화계 삼아 어느 고을이 많고 어느 고을이 적다는 등 서로 비교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저 참고 계셨다. 양양부사를 그만두고 돌아오신 후 이웃에 사는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을 때이다. 그 분들은 이전에 다스리던 고을 녹봉이 많고 적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다가 아버지더러 양양에서는 얼마나 받았는가 묻자, 아버지는 농담으로 1만 2천 냥을 받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게 정말이요. 그렇고 말고! 그분들이 반신반의하며 자세히 말하기를 청하자 웃으면서 “바다와 산의 경치가 1만 냥의 가치가 있고, 녹봉은 2천 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1만 2봉과 겨를만 하지 않소!” 이 말에 좌중이 모두 크게 웃었다. 산과 바다의 경치가 일만 냥의 가치가 있고 녹봉은 이천 냥 이었다고 경관녹봉론(경관자산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형무형의 경관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다면, 양양과 설악산, 그리고 바다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느낄 수 없다면 양양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자연과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문화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우리 후배들이 양양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양양의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연암이 양양에 와서 약 7개월 정도 부사를 지냈습니다. 왜 7개월 정도 밖에 못 했을까?)

이곳의 무서운 텃세 때문이었다. 이것이 속초라는 지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연암은 조선조 대표적인 실학자이지만 실학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만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연암이 양양부사로 부임 했을 때는 이미 세상에 뜻이 없고 하루하루 억지로 세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곳에 와 보니까 텃세가 말이 아니었다.)

2) 아전들이 곡식을 훔치고 빼돌려, 관가의 창고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환곡의 방출과 수납은 전부 허위였다. 이것은 관례였다. 아전들에게 사사로이 써버린 관곡을 갚으라고 하면 아전들이 그때마다 도리어 달아나겠다고 위협을 했다. 그래서 불러 놓고 이야기 했다. 관아의 창고가 텅 비어 있어서 고을 원이 무엇을 하겠는가? 달아나고 싶다면 모두 달아나서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여라. 나도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장계를 올려 죄를 청한 후 돌아가 처분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마침내 공무를 전혀 보지 않고 조그만 방에 거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전들이 빼돌린 곡식을 도로 회수 하지 못 한다면 한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자처 할 수 없다. 얼마 후 연암은 녹봉을 떼어내 아전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녹봉을 받는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들이 각자 따로 훔친 곡식을 갚고자 한다면 끝내 갚지 못할 것이다.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냄을 따지지 말고 함께 힘을 모은 다면 티끌이 태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원님이 포흠을 갚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갚지 않는다면 원님을 볼 면목이 없다. 마침내 아전들은 갖고 있던 물건을 팔아 포흠을 갚아 나갔다. 그리고 나서서 연암은 동헌에 나와 공무를 보기 시작했다

3) 신유년(1801-65세) 봄에 벼슬을 그만두고 상경하였다. 그 이유는 신흥사의 스님, 창오, 거관이 라는 중이 궁중과 결탁하고 대군, 왕자들까지도 관계가 있었다. 또 그런데 관속을 구타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에 분개하여 감사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그런데 감사는 꺼리는 바가 있어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연암은 궁속과 중들에게 제압되는 고을 원이 아전들과 백성들을 어찌 다스린단 말인가! 이에 상경하여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

4) 양양에 대한 인식

고을의 폐단이나 백성들의 고질이 모두 고치기 어려운 형편인데 두어 달 지내는 동안에 비로소 바람마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몰아치는 폭풍과 비릿한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 하면 곧 기왓장을 날리고 고래나 악어의 울음 같은 거센 파도소리가 벼갯머리에서 들리는 듯 하니 돌이켜 고향 집이 생각나도 수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때의 구경꾼들이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명승지로 찾을 만한 땅은 될 수 있지만 노경에 노닐면서 몸을 보양할 곳은 전혀 못 됩니다. 더구나 하인 하나도 데리고 있지 않고 중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신세입니다.

* 연암의 문장론-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어린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귀가 울리자 신기하게 여겨 동무에게 속삭이기를 이 소리 들리니? 피리소리, 생황소리가 별처럼 동그랗게 들리는데? 그러나 동무가 귀에 맞대고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 아이는 딱하다는 듯이 남이 들어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 그리고 한번은 시골사람과 함께 자는데 그가 코를 크게 골았다. 빈수레가 텅텅거리듯 숨을 들이 쉴 때는 마치 툭질하듯, 내 쉴 때는 돼지가 썩근거리는 소리를 냈다. 함께 자던 사람이 흔들여 깨우니 그가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언제 코를 골았느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

* 이처럼 귀울림처럼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을 남이 몰라주어 늘 걱정이고, 코골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하였다.

* 황장목(임금의 관을 만들 때, 쓰이던 재질 좋은 소나무)과 환곡 때문에 날마다 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남은 황장목으로 연암의 관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연암은 그 황장목으로 마을의 다리를 만들었던 관리였다.

소나무의 생태와 그 중요성

양양에는 소나무가 유명해서 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금표를 세웠습니다. 원일전금표, 여성전금표, 법수치리금표(1996년까지 존재), 장리금표(1999년까지는 존재했었다) 등 한 지역에 가장 많은 황장금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참 아쉽다.

양양은 소나무의 고장이다. 양양의 소나무가 재질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릉은 이미 솔향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양양에서는 송이축제 때, 소나무 축제도 같이 했으면 한다.

새로운 원장님과 군수님이 오셔서 정명600주년을 기념으로 군청 앞에 소나무를 심었고, 낙산에도 소나무를 심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10년 후쯤 그 소나무들은 양양의 명물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다. 백년 후쯤 수백 년 된 소나무 가로수가 드리우진 양양의 거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문화를 선비문화라고 한다. 선비들은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였다. 그 지조와 절개를 소나무에 비유한다. 소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항상 푸르름을 간직한 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푸르름을 간직한 채 조금씩 자라는 소나무를 보면서 은근과 끈기를 배웠다. 그래서 조윤제 박사는 우리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말한다. 이처럼 소나무는 우리 민족정신을 상징해 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로수가 소나무에서 외국에 보기 좋은 프로타너스나 은행나무, 벚꽃나무, 미루나무 등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 서울같이 오백년 도시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드리워져 있다면, 양양같이 천년 이상 된 도시에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드리워져 있다면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가 될 것이다.

소나무보다 프로타너스 같은 화려한 나무를 보고 자란 세대는 은근과 끈기보다는 조금함과 화려함, 그리고 사치스러움을 배우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다. 하

지만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 여유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일까?=김삿갓 배,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절병부인

우리 조상들의 시를 보면,
나비와 청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 자고 가자

어느 것에 구애됨 없이 해탈의 경지에서 청풍유수와 같이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풍류이고 멋이다. 장주의 꿈, 청풍유수와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소나무와 같이 여유를 주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한복이다. 긴 한복의 치마와 여유 있는 옷고름을 보면 너무 길어서 불편했을지 몰라도 우리민족에게 여유있는 삶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아주 짧고, 딱끼는 옷을 입은 우리는 각박할 수 밖에 없다. 우리를 백의민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7. 소나무와 충절의 고장

양양은 절개의 고장이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했던 소나무는 양양인에게 3.1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 왔습니다. 양양의 문화적 자부심 가운데 하나는, 독립운동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났던 충절의 고장이다. 충절의 고장답게 가로수가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드리워져있다면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나무의 고장 양양!으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을 소나무의 고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연암 박지원의 말처럼 황장목의 고장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 그래야 소나무를 통해서 양양의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이 소나무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을로 우수한 문화를 자라는 양양의 학생들에게 문화교육이 되어야만 양양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화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의 정신문화는 화랑도의 중심 수련장이었던 양양, 그리고 소나무를 통한 절개가 근대사의 항일운동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금표도 있었다. 낙산사 금표(대사간 안관후가 성종에게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에서 구

로를 열어 금표를 치우도록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하명을 듣지 못했습니다”하자 임금의 말하기를 낙산사 금표는 100보에 불과하고 해수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00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나? 구로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을 왕래하는 사자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햇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하자 왕이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낙산사에서 조선왕조의 후광으로 금표를 세워 못된 짓을 하니까 양양의 유림들이 금표를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동해신사금표, 하북리 태봉금표, 금표가 많다는 것은 신성한 지역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8. 불교문화

❖ 의상대사가 당에서 귀국하여 처음으로 양양에 낙산사를 창건

도의선사가 진전사에서 가지산문의 개시조로서 대한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스님으로 진전사에서 40년 동안 불도를 닦았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1206-1289)이 진전사에 출가하여(14세) 8년간 수도 하였다.

(천년사찰 신흥사-원효가 말한 불교를 통한 일심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성한 지역에 사찰을 창건하였다.(백제 660, 고구려 652년 멸망)

향성사(신흥사) 652 창건(*낙산사 671년), 698년 불로 전소 3년간 폐허, 701년 의상이 선정사로 개칭-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3존불 모심.

❖ 원효와 의상의 담론

원효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을까 한다!” 이 노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태종 무열왕이 듣고,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 현명한 아들을 얻고 싶구나. 나라에 현자가 있다면 나라에 이익이 클 것이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왕이 의도적으로 과부인 요석공주와 잠자리를 만들어 설총이라는 자식을 낳았다.

반면 의상은 두 번째 당나라에 가면서 원효와 헤어진 후 홀로 험한 뱃길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다. 당 등주에 도착해서 그곳의 州長인 신도인 유지인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 때, 그 집의 선묘

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의상에게 첫 눈에 반해버렸다. 선묘 아가씨는 의상스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젊의 구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갑자기 道心을 발하여 ‘세세생생에 스님에게 귀명하여 대승을 배워 익히고 큰일을 이룩하겠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시주가 되어 필요하시는 생활품을 받치겠습니다라고 큰 소원을 세웠다. 의상스님은 지엄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화엄학을 공부한 다음 문무왕 11년(671)귀국했다. 선묘 아가씨는 한 마리 용으로 변하여 신라 땅까지 스님을 따라 왔고, 스님이 머물던 부석사에 오래도록 살면서 스님을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원효는 요석공주가 찾아왔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다. (설총의 화왕계)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다. 낙산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의 진신이 해변가 어느 굴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 했다.

의상은 재계 후 칠일 만에 방석을 새벽에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굴속으로 안내해 들어가므로 공중을 향해 참례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준다. 의상은 받아갖고 물러나오니 동해의 용이 또한 여의주 한 알을 바치므로 의상이 받들고 나와서 다시 칠일동안 재계하고 나서 이에 관음보살의 참모습을 보았다.

❖ 여의주가 진짜일까? 그리고 어디에 있을까?

고려사권27, 원종14년(1273) 기록에 의하면, 마강이 귀국하게 되어 대장군 송분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였다. (그런데) 왕후가 일찍이 낙산사 관음여의주를 얻어 보고자 하였으므로 송분이 가는 편에 이것을 보내었다.

(관음보살이 하는 말이 座上의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법사가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 땅에서 솟아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 같았다. 대나무가 도로 없어지므로 그제서야 비로소 관음의 진신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았다. 이 때문에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 하고 법사가 자기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봉안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 뒤 원효대사가 뒤를 이어 관음보살을 참례하려 하였다.

처음에 남쪽 교외에 이르자 논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롱삼아 벼를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벼가 잘 영글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에서 아직 원효가 도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월수백(생리대)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자 더러운 물을 떠서 준다. 법사는 그 물을 옆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불러 이야기한다. 제호스님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보이지 않았는데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법사가 낙산사에 이르자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전에 만나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았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했다. 법사는 성골로 들어가 다시 관음의 진상을 보려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

* 원효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는 일연스님이 썼는데, 일연스님이 진전사로 출가하여 들은 이야기로 낙산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일연스님은 정통성을 중시한 스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원효의 깨달음은 여인의 물을 받으면서 허위임을 증명되었다. 물은 원래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청정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을 통해 더러움을 입지만 물은 몇 걸음만 옮긴다면 본래 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물은 물이다. 물이 더럽다고 말한 의미는 더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

원효와 의상이 함께 거닐었던 낙산사에서 신흥사의 순렛길 순례나 원효의 의상 중심의 불교축제도 ...

이처럼 의상과 원효대사는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우리 지역과 관계있는 인물이다.

삼국유사 권3, 낙산 이대성관음, 정취, 조신조에 전하는 조신전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한다.

* 조신전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世達寺(지금의 흥교사)의 장원(농장)이 명주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조신을 보내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하였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공의 딸을 좋아하여 아주 반하였다. 그래서 여러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연인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불당으로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갑자기 김씨 남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말하였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님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여 그녀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40여년을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 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 먹을 수 없었고, 마침내 모습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10년 동안 산과 들로 돌아다니니 옷은 찢어지고 몸도 가릴 수 없었다. 마침 명주 해현령을 지날 때,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죽자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살면서 그들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 못하니 10살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먹었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갑자기 말하였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어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었지만 집 나온 지 50년 동안 정은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닥쳐오는데 남의 곁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 없게 되었으며 수 많은 문전에 결식하는 부끄러움이 산더미보다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위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 더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 차라리 짝 잃은 원앙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 하는 것은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서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조신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고 하는데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꿈에서 깨어 보니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하였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어졌다.

괴롭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 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참을 길이 없었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령에 묻는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의 책임을 내놓고 사재를 내어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마지막에 의하면 이 전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 어찌 조신의 꿈만 그럴겠는가? 지금 모두가 세속의 즐거운 것만 알아 기뻐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마무리 하고 있다.

이광수의 꿈은 조신의 내용을 원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꿈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이에 꿈을 문학작품에 수용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낙산의 조신몽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금오신화

양양인들의 기록은 여지도서(영조33-1757-1758), 『關東誌』풍속조에 양양인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다.

농상(農桑)하기에 힘쓰고 상장(喪葬)에 정성을 다하며 유연(遊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한다(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고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은 양양인의 풍속과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근면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문장을 숭상하고 예의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9. 마무리

현대나 미래시대는 이야기의 시대이다. 양양은 이야기가 참 많은 고을이다.

흥미 있는 이야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가 있다.

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양양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으면 좋겠다.

양양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 전설, 민담이 전해오고 있다. 예-동해신묘이야기, 낙산사 조신 이야기, 원효와 의상이야기, 성황신이야기, 등 무한하다.

문제는 이 무한한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답론은 생활 속에서 애정을 갖게 되고, 상상력은 미래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유로운 삶을 제공한다.

우수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라져 가는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가 양양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 양양의 우수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는 양양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강의 할 기회가 있다면,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양양의 역사 연혁과 명칭 유래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차道植

1. 머리말

양양은 예로부터 익현(翼峴), 이문(伊文), 익령(翼嶺), 덕녕(德寧), 양산(襄山), 양주(襄州), 현산(峴山) 등으로도 불렸다. 양양이란 명칭은 본래 중국 호북성(湖北省) 한수연안(漢水沿岸)에 있는 지명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지리적 환경이 양양과 유사하고 사람들의 품성 또한 자연의 섭리에 감모(感慕)하는 기개가 잠재하여 사대부의 문헌이 찬란하고 풍습이 선미하다고 하여 양양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양양’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불렸을까? 이에 대해서는 태종 16년(1416)에 양양(襄陽)으로 개칭됨으로써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데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 「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에 ‘양양군(襄陽君)’이라는 봉작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이면 ‘양양(襄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양양의 명칭 유래를 살펴보는 것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양양의 역사 연혁과 명칭 유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양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양양의 역사 연혁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에 양양지방에는 동예(東濊)라는 초기국가가 있었다.¹⁾ 동예에 대해서는 3세기 후반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 큰 바다[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동예의 위치는 북으로 함경남도 정평에서 남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에 걸치는 동해안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삼국이 형성되면서부터 영동지방은 신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차례로 받기 시작한다. 신라는 일찍부터 영동지방으로 진출해 오기 시작하였다. 양양일대가 언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시기는 내물왕 42년(397)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변의 하슬라(何瑟羅, 강릉)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이 죄수들을 놓아주고 1년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²⁾

내물왕대(재위 356~402)에 신라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가 377년에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한 것이라든가, 381년에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위두(衛頭)를 파견한 것, 고구려와의 우호의 대가로 실성(實聖)을 볼모로 보낸 것은 이를 말해준다. 400년에 왜병이 신라 왕경을 침범해왔을 때에는 광개토왕이 보병·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해주기도 하였다.³⁾ 그러나 눌지왕대(재위 417~458)에 들어와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이에 대비한 나제동맹의 체결 이후 양국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눌지왕 34년(450, 장수왕 38) 7월에 하슬라 성주(何瑟羅城主) 삼직(三直)이 고구려의 변장을 실직(悉直)들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신라왕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⁴⁾ 그후 자비왕 7년(464, 장수왕 52)에 신라군이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인 100명을 살해한 사건⁵⁾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는 장수왕 56년(468)에 말갈 군사와 함께 신라의 실직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장수왕 69년(481, 소지왕 3)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동해안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⁶⁾

1) 趙東杰, 1968 「江陵地方的 先史社會 研究—江陵 濊地說의 史的背景」, 『春川教大論文集』5-1. 金澤均, 1997 「江陵 濊國說과 관련하여—」, 『江原文化研究』.

2) 「(奈勿王)42年 秋七月 北邊何瑟羅旱蝗 年荒民飢 曲赦囚徒 復一年租調」(『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3) 「광개토왕릉비」 광개토왕은 왜병을 격퇴한 후 그 군대의 일부를 신라 영토 내에 계속 주둔시켜서 왕위계승과 같은 신라의 內政에까지 간섭하였다. 「충주고구려비」에는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인 幢主가 주둔하며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鄭雲龍, 1989 「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史叢』35, 26쪽).

4)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눌지왕 34년 7월조.

5) 『일본서기』권8, 雄略天皇 8년 2월조.

6) 李明植, 2002 「5세기 新羅의 對高句麗關係」, 『大丘史學』69, 225~229쪽.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통일신라 때 명주를 구성한 간성·고성·영덕·홍해·울진·청하 등 동해안 지역과 임하·영월 등 영서의 일부 지역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현(郡縣)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양양은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동산(洞山)은 혈산현(穴山縣)이라 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동해안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은 6세기 초 지증왕 때 와서이다. 지증왕 6년(505)에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실직주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라에서 가장 명망하는 인물인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파견하였고,⁷⁾ 7년 후에는 실직보다 북쪽에 위치한 하슬라주(강릉) 군주로 파견하였다.⁸⁾ 진흥왕 17년(556)에는 비열홀주(比列忽州, 지금의 안변)를 설치하고, 사찬(沙漣) 성종(成宗)을 그 군주(軍主)로 삼았다. 그러나 비열홀주가 설치된 지 12년 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달홀주(達忽州, 지금의 고성)를 설치하였다.

무열왕 때부터 시작된 신라의 통일전쟁은 문무왕 때에 이르러 원산만과 대동강을 잇는 그 이남 지역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의 영토 모두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 영토와 인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라의 중대 왕실은 신문왕대(재위 681~692)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9주의 분포를 보면, 옛 고구려 땅에 3개 주, 옛 백제 땅에 3개 주, 소백산맥 이남 원래의 신라 땅에 3개 주를 두었다. 오늘날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에 속해 있었는데, 영동지방은 명주에 속해 있었다.

명주는 강릉을 주치(州治)로 한 직할지와 곡성군·야성군·유린군·울진군·내성군·삼척군·수성군·고성군·금양군 등 9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⁹⁾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영동지방 대부분과 평창군·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북부의 해안쪽 대부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지금의 양양은 익령현(翼嶺縣)으로 편제되었으나 독립된 현이 아니라 수성군(守城縣)의 속현(屬縣)이었다. 수성군은 관할 영역은 오늘날 고성군에서 양양군까지로 추정된다.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하대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 4년(768)에 일어난 대공(大恭)의 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공의 반란은 전국의 96각간이 3개월 동안 서로 싸웠다고 전할 정도로 일찍이 보지 못한 대란이었다. 이는 신라 중대 왕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¹⁰⁾

7) 『삼국사기』 권35, 지리지2.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왕 13년조.

9) 『삼국사기』 권35, 지리지2.

10) 이하는 박도식, 2010 『양양군지』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싸움의 양상은 현 집권자인 해공왕파와 반(反)해공왕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지정(金志貞)이었고, 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양상(金良相)·김경신(金敬信)이었다. 여기에서 반해공왕파가 승리하고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37대 선덕왕(780~785)이다. 선덕왕은 무열왕계가 아니라 내물왕 10세 손이었다. 이러한 방계 출신인 선덕왕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무열왕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중대는 종언을 고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하대에 들어 150여 년 사이에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귀족과 사원은 권력·고리대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탈점해서 전장(田莊)이라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신당서』 신라전에는 “재상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고 노비가 3천 명이나 된다. 갑병(甲兵)과 소·말·돼지 등도 이와 맞먹는다. 가축은 바다의 산에 방목을 했다가 필요할 때면 활을 쏘아서 잡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고 한 것은 당시 귀족들의 농장경영 실태를 말해준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진성여왕 3년(889)에 조세독촉을 계기로 농민봉기가 발발하였다. 최초의 봉기는 사벌주(지금의 상주)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이끄는 농민군들이었다. 당시 농민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왕명을 받고 출동한 영기(命奇)는 그 위세에 놀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민봉기는 삼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틈을 타 각처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세력의 중심점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 죽주(竹州, 안성)의 기훤(箕萱), 완산(完山, 전주)의 견훤(甄萱), 명주(溟州)의 김순식(金順式) 등이다. 그러다가 중국에는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연출되어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그리고 종래의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9세기말 명주는 궁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궁예는 한 때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당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명주는 궁예가 세력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하다. 궁예가 명주에 들어올 때의 군사는 600여 명이었으나 명주에 도착한 후에 3,500명으로 불어났다. 즉 궁예는 명주 땅에서 명주호족과 농민, 승려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에 원래 그의 군사보다 5배나 늘어났던 것이다. 궁예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양을 거쳐 저족(猪足, 인제)·성천(狝川, 화천)·부약(夫若, 김화)·금성(金城, 김화)·철원(鐵圓, 철원) 등을 정복하였고, 얼마 후 왕건 부자와 패서(溟西, 평양 이남 예성강 이북) 일대의 호족세력의 귀부(歸附)를 받아 서쪽과 남쪽 방면으로 진출하여 공주에서 영주를 잇는 선의 이북 지역을 거의 차지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궁예는 901년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왕위에 오른 초기에 궁예는 사졸(士卒)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상벌을 공평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지도자상



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전제적이고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신라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으로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고, 신라에서 오는 자를 모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자 지식인과 호족들이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중간계층이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궁예 휘하에서 동궁기실(東宮記室)까지 지냈던 박유(朴儒)는 산속으로 숨어버렸으며, 장주(掌奏)의 직책에 있던 최응(崔凝)은 궁예가 왕건에게 모반 혐의를 뒤집어씌울 때 왕건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궁예는 결국 왕위를 왕건에게 내주게 되었다.

918년에 궁예의 세력기반을 물려받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된 태조 왕건은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왕건 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왕건이 즉위한 5일째 되던 날 혁명 내부세력 가운데 왕건의 왕위를 넘보고 왕권에 도전한 반(反)혁명 사건이 발생하였고, 얼마 후 궁예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청주지역 호족들이 모반을 꾀하여 왕건에 저항하였다.

이와 같이 왕건은 즉위한 후에 궁예를 지지하고 있던 각 지역 호족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던 호족세력들이 후백제로 기울어짐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백제 영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명주장군 김순식도 왕건이 즉위한 후에 불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궁예정권 하에서 궁예와 결합했던 호족들을 회유·포섭하는 것이었다. 이에 왕건은 제도(諸道)의 호족에게 사절을 보내 후한 예물을 주며 말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그러자 각지의 호족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에 많이 귀부해 왔다. 왕건은 귀부해 오는 호족에게 토지와 저택을 주기도 하고 관리의 등급[官階]을 수여해주면서 그 통치권을 인정해 주었다. 왕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하였다. 이는 왕건이 호족의 딸들과 정략결혼을 통해 집권은 물론,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정권의 안정은 이루지만 왕건 사후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호족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씨 성을 하사하여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많은 호족들이 귀부해 왔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을 귀부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김순식의 귀부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태조 5년(922) 7월에 왕건이 순식의 아버지 허월을 보내어 타이르니, 순식은 그의 장자 수원(守元)을 보내어 1차 귀부하였다. 이 때 왕건은 수원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고 전택(田宅)을 주었다. 그러나 순식의 이러한 귀부는 왕건에게는 매우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왕건은 순식 자신의 완전한 귀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을 것이다. 1차 귀부를 한 지 5년이 지난 태조 10년(927) 8월에 순식은 다시 아들 장명(長命)과 군사 600인을 보내서 고려 궁궐을 숙위하게 하였다. 이에 태조는 순식의 소장(小將) 관경(官景)에게 왕씨 성과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그 아들 장명에게는 염(廉)이란



이름과 원보(元甫)라는 관계를 주었다. 김순식 본인이 몸소 휘하 세력을 이끌고 왕건에게 완전히 귀부하는 것은 태조 11년(928)에 들어와서이다. 이때 왕건은 순식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고 대광(大匡)이라는 관계를 주었다. 대광은 ‘크게 나라 일을 바로잡을 만한 위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광은 살아있는 인물에게 주었던 관계 중 최고위였다. 태조대에 대광의 관계를 수여한 예는 재경세력(在京勢力) 중에는 몇몇 있었으나, 지방세력 중에서는 순식이 최초였다.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김순식의 위치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과 김예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아 태조 12년(929) 12월부터 시작된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이 전투의 승리로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성이 고려에 귀부하여 왕건의 세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김순식과 김예는 태조 19년(936)에 후백제를 공멸(攻滅)할 때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통일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순식은 얼마 안 가서 중앙정계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태조 19년 이후부터 순식에 관해 전혀 자료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의 가문이 그후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도태되었거나, 아니면 광종의 호족억압책으로 제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김예 계열은 건재하였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출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라 말 이래 강력한 지방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초기에는 한동안 지방세력의 자율적 지배를 인정했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정부의 의사를 지방에 직접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초에는 다만 서경(西京, 평양)을 비롯한 몇몇 요지에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관리를 파견하였고, 조세수취를 위해 금유(今有)·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 등으로 불린 비상주 관원을 파견하였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50년 가까이 지난 성종 원년(982) 6월에 주요 거점지역에 12목(牧)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¹¹⁾

12목은 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해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황주였다. 성종대에 12목에 목사를 파견한 것은 민정적(民政的) 지방행정관 파견의 시초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는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¹²⁾

지금의 강원도 지역은 12목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지방호족의 세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 14년(995)에는 처음으로 전국을 10도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12목이 설치되었던 큰 주에 절도사(節度使)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練使)·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

11)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2년 2월조.

12) 邊太燮, 1968 「高麗前期의 外官制」 『韓國史研究』2;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p.122.



였다.¹³⁾

그러나 목종 8년(1005)에 절도사만 남고 양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단련사·단련사·자사는 혁파되었다.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양양은 익령현으로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을 5도와 양계(兩界)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을 위시하여 군(郡)·현(縣)·진(鎭)에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형태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5도의 위치와 관할지역 범위는 양광도가 지금의 경기도·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의 남부지역 일부를 포함하며, 경상도가 지금의 경상남북도, 전라도가 지금의 전라남북도, 교주도가 지금의 강원도의 영동지방을 제외한 영서지방의 대부분 지역, 서해도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었다. 양계 중 북계(北界)의 관할 범위는 천리장성 이남의 평안남북도 지역이었고, 동계(東界)¹⁴⁾의 관할 범위는 지금의 영동지방 대부분과 함경남도 정평(定平) 이남 지역이었다.

〈표-1〉 동계의 관할구역

구 분	소속군현
안 변 도호부	서곡현(瑞谷縣), 문산현(汶山縣), 위산현(衛山縣), 익곡현(翼谷縣), 고산현(孤山縣), 학포현(鶴浦縣), 상음현(霜陰縣)
순동계 지 역	화주(和州), 고주(高州), 의주(宜州), 문주(文州), 장주(長州), 정주(定州), 예주(豫州), 덕주(德州), 원흥진(元興鎭), 영인진(寧仁鎭), 요덕진(耀德鎭), 진명현(鎭溟縣), 장평진(長平鎭), 용진진(龍津鎭), 영흥진(永興鎭), 정변진(靜邊鎭), 운림진(雲林鎭), 영풍진(永豐鎭), 애수진(隘守鎭)
준남도 지 역	금양현(金壤縣, 속현3; 임도[臨道]·운암[雲岩]·벽산[碧山]), 흠곡현(歙谷縣), 고성현(高城縣, 속현2; 환가[泰猴]·안창[安昌]), 간성현(杆城縣, 속현1; 열산[烈山]), 익령현(翼嶺縣, 속현1; 동산[洞山]), 명주(溟州, 속현3; 우계[羽溪]·정선[旌善]·연곡[連谷]), 삼척현(三陟縣), 울진현(蔚珍縣)

동계의 관할 하에는 1도호부(都護府)·9방어군(防禦郡)·10진(鎭)·5현(縣)이 있었는데, 25현은 주현이 8곳이고 속현이 17곳이었다. 익령현(양양)은 동계의 행정구역 가운데 준남도지역에 속해 있었다. 동산현은 본

13) 尹京鎭, 2001 「高麗 성종 14년의 郡縣制 改編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27, p.112.

14) 동계는 성종 14년(995)에 삭방도(朔方道), 정종 2년(1036)에 동계(東界), 문종 원년(1047)에 동북면(東北面), 명종 8년(1178)에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 원종 4년(1263)에 강릉도(江陵道), 공민왕 5년(1356)에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 공민왕 9년(1360)에 삭방강릉도(朔方江陵道), 공민왕 15년(1366)에 강릉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래 고구려 혈산현(穴山縣)이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때 동산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속현으로 하였던 것인데, 현종 9년(1018)에 익령현의 속현으로 하였다. 익령현은 고종 8년(1221)에 몽골군을 격퇴시킨 공으로 양주(襄州)로 승격되었으나, 고종 44년(1257)에 적에게 항복한 사건으로 덕녕현(德寧縣)으로 격하되어 감무가 파견되었다. 원종 원년(1260)에 다시 양주로 복구되었다.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정비는 태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려의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소·부곡 등 임내(任內)의 정리, 규모가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부·군·현으로 구획되었고, 거기에 대응하여 부윤(종2품)·대도호부사(정3품)·목사(정3품)·부사(종3품)·군수(종4품)·현령(종5품)·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양양은 태조 6년(1397)에 태조 이성계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종3품의 읍격(邑格)인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16년(1416)에 양양(襄陽)으로 개칭됨으로써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양양도호부는 광해군 10년(1618)에 역난(逆亂)에 연루되어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원년(1623)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인조 6년(1628)에 역난으로 재차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15년(1637)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정조 7년(1783)에 역적 이경래(李京來)가 양양 임천리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라 하여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정조 16년(1792)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조선시대 강원도를 대표하던 강릉과 원주가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일시 격하될 때에는 도의 이름을 원주와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 ‘원양도’, 또는 강릉과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 ‘강양도’로 바뀔 정도로 도를 대표할 만한 위치로까지 부각되었다.

강원도의 도명은 태조 4년(1395)에 도내의 거읍(巨邑)인 강릉의 ‘강(江)’자와 원주의 ‘원(原)’자를 취하여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릉과 원주의 읍호 승강(昇降)에 따라 도명이 무려 10여 차례의 변경과 복칭이 반복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불효(不孝)·패륜(悖倫)·역모(逆謀) 등 강상(綱常)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 죄인 뿐 아니라 그 지방 군현의 등급까지 강등하였기 때문이다.

현종 8년(1667)에 강릉지방에서 박귀남(朴貴男)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자 그의 처와 딸, 사위가 공모하여 그를 산곡(山谷)에 생매장한 일이 발각되어 딸과 사위는 처형되었으며, 부사는 파직되고 강릉대도호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강릉의 ‘강’자를 빼고 대신 양양의 ‘양’자를 취하여 원양도로 개칭되었다가, 9년 후인 숙종 2년(1676)에는 다시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숙종 9년(1683)에는 원주에서 강상죄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강원에서 ‘원’자를 빼고 양양의 ‘양’자를 취하여 강양도로 개칭되었으나, 동왕 14년(1688)에 양양이 역적의 태향(胎鄕)이라고 해서 ‘양’자를 빼고 춘천의 ‘춘’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개명되었다가 동왕 19년(1693)에 이르러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이 같은 읍호(邑號)의 승강(昇降)으로 도명의 개



칭은 있었지만, 도명은 대개 10년 이내에 복구되었다.

1895년 지방관제가 바뀌어 전국이 23부로 편성되면서 강릉부 관할 양양군으로 편제되었다. 1896년 다시 지방관제가 개편되어 전국이 13도로 나뉘자 강원도 관할 양양군이 되었다. 1919년 5월 15일에는 간성군이 고성군으로 바뀌면서 그 관할 하에 있던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이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광복되면서 현남면·현북면과 서면의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현남면은 명주군에, 현북면과 서면은 양양군에 복귀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어 나가고, 죽왕면·토성면이 고성군에,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3. 양양의 명칭 유래

조선초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에는 다수의 지명별호가 나타난다. 전자에는 ‘순화소정(淳化所定)’·‘성종십년신묘소정(成宗十年辛卯所定)’·‘성종소정(成宗所定)’의 별호로 되어 있고, 후자에는 ‘성묘소정(成廟所定)’의 별호로 되어 있다.¹⁵⁾ ‘성종소정’은 성종 때 제정된 군현의 별칭인 ‘성묘별호(成廟別號)’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순화별호(淳化別號)’¹⁶⁾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된다.

성묘별호의 제정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광주목 세주(細註)에 “성종 10년(991) 신묘에 주군(州郡)의 별호를 정하였는데, 광주를 회안(淮安)이라 한 것은 곧 송나라 태종 순화(淳化) 원년이다. 뒤에 무릇 순화에 정한 바라 한 것은 모두가 이와 같다.”고 하였다.¹⁷⁾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에는 광주의 별호를 ‘회안(淮安)’이라 한 점은 같지만 군현 말미에 ‘성묘소정(成廟所定)’이라고 부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 때의 개편에 대해 『고려사』에는 성종 11년에 “주부군현(州府郡縣)과 관역강포(關驛江浦)의 명칭을 고쳤다”고 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성종 10년이라 한 것은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위년칭원(卽位年稱元)으로 인한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성묘별호의 제정을 성종 11년이라

15)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浜中昇, 1977 「10世紀末における高麗州・縣制の施行」 『朝鮮學報』84. 北村秀人, 1978 「高麗初期の漕運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江原正昭, 1979 「高麗朝外官の歴史的展開」 『朝鮮歴史論集』上(旗田巍先生古稀紀念論叢). 具山祐, 1993 「高麗 成宗代の 鄉村支配體制 강화와 그 정치· 사회적 갈등」 『韓國文化研究』6이 있고,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禹太連, 1987·1988·1989 「高麗初 地名別號의 制定과 그 運用」(上·中·下) 『慶北史學』10·11·12. 尹京鎮, 2002 「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45가 있다.

16) 淳化는 990년부터 994년까지 사용된 宋太宗의 연호이다. 이는 고려 성종 9년부터 13년에 해당된다.

17)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성종 10년 신묘에 州郡의 別號를 정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宋太宗 淳化 元年이라 하였는데, 이는 지리지 편찬자의 착오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성종 10년 신묘는 淳化 2년이기 때문이다.



본다.¹⁸⁾

성묘별호는 대개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아화(雅化)된 명칭이었다. 예컨대 경주는 ‘낙랑(樂浪)’, 춘천은 ‘수춘(壽春)’이라 하였다. 그런데 성묘별호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 성종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⁹⁾

성종대에는 유교적 체제 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경관(京官) 5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책을 대부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유교정책을 펴 나갔다. 성종은 즉위년(981)에 팔관회를 폐지하였고, 성종 2년(983)에는 처음으로 적전례(籍田禮)를 지냈으며, 성종 7년(988)에는 오묘(五廟)제도를 정하였다. 성종 10년(991)에는 토속신앙을 줄이는 사직제(社稷制)를 마련하였다. 성종의 유교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유교의례에 따라 국가의식을 거행했다는 점이다. 고려말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이제현이 성종의 치적을 평가하는 가운데 “입종묘 정사직(立宗廟定社稷)”을 제일의 업적으로 꼽았던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이다.²⁰⁾

고려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당(唐)이 멸망하고 5대(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교체되고 주변지역에서는 10국의 흥망이 거듭되는 혼란기였다. 고려와 중국과의 통교는 고려 태조 6년(923)경에 후량과의 교빙이 열리기 시작하여 그 후 후당과도 교빙이 자주 행해졌다. 후주로부터 선양의 형식을 취하여 960년에 건국된 송(宋)과 고려와의 국교가 처음 열린 것은 광종 13년(962)이었다. 그것은 고려 측에서 광평시랑 이흥우(李興祐)를 파견한 데 대해 송이 이듬해 책명사(冊明使) 시찬(時贊)을 보내 답빙(答聘)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성종대의 외교는 12년 5월 거란 침입이 있기 전까지 송나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양국 간의 교섭은 공식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혹은 무역을 통한 접촉도 매우 빈번하였다. 그 과정에서 송의 문물이 활발히 입수되어 집권세력이 주도한 유학적 체제정비의 방향이 중국을 모델로 삼은 화풍(華風)의 형태로 추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성묘별호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종 때 중앙에 진출하여 있던 관인들이 당대(唐代)의 군망(郡望), 어느 지방의 명망 있는 가문)정책을 모방하는 선상에서 그들의 출신(出身) 기반의 명칭을 등재하여 둘 필요에서 성묘별호를 추진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²¹⁾

18) 성묘별호의 제정에 대해서는 성종 11년의 邑號개정과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이를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다. 禹太連은 성묘별호 제정과 성종 11년의 邑號개정은 직접 상관이 없다고 보았으며, 구산우는 성묘별호 제정을 근간으로 하여 11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浜中昇은 성묘별호 제정과 성종 14년의 지방제 개편을 동일하다고 하였다. 한편 北村秀人은 성종 10년은 성종 11년의 잘못이라 하였고, 江原正昭와 尹京鎭은 성묘별호 제정과 성종 11년의 읍호 개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19) 이하는 박도식, 2008 「강릉의 명칭유래」 『강원민속학』22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20) 『익제난고』권9下, 史贊 成王.

21) 李樹健, 1984 「土姓研究 序說」 『韓國中世史研究』, p.12.



성묘별호는 『고려사』 지리지에 모두 53개가 기재되어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모두 47개가 기재되어 있다. 전자에는 없으나 후자에 기재되어 있는 별호 2개를 합하면 모두 55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2>와 같다.²²⁾

<표-2> 成廟所定(淳化所定) 별호의 내역

구 분	『고려사』지리지의 표제읍호	『고려사』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세종실록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비 고
1	楊州	廣陵	없음	
2	抱州	淸化	淸化	
3	幸州	德陽	德陽	
4	衿州	始興	없음	始興은 일반별호
5	水州	漢南	漢南	
6	廣州	淮安	淮安	
7	竹州	陰平	陰平	
8	果州	富安	富林	一作富安
9	忠州	大原	大原	
10	槐州	始安	始安	
11	原州	平涼	平涼	
12	提州	義川	義川	
13	木州	新定	新定	
14	鎭州	常山	常山	
15	公州	懷道	懷道	
16	洪州	安平 海豊	安平 海豊	
17	牙州	寧仁	寧仁	
18	慶州	樂浪	樂浪	
19	永州	益陽	益陽	
20	蔚州	鶴城	恭化 鶴城	
21	禮州	丹陽	丹陽	
22	梁州	宜春	宜春	
23	晉州	晉康	없음	

22) 尹京鎭, 2002 앞의 논문, pp.163~165.



구 분	『고려사』지리지의 표제음호	『고려사』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세종실록지리지』의 성묘소정 별호	비 고
24	草溪縣	清溪	清溪	
25	尙州	上洛	上洛	
26	一善縣(善州)	和義	和義	
27	州縣(基州)	永定	永定	
28	興州	順政	順政	
29	順安縣(剛州)	龜城	龜城	
30	基陽縣(甫州)	清河 襄陽	襄陽	
31	全州	莞山	甄城	성종 10년의 별호로 承化·莞山이 있음
32	羅州	通義 錦城	通義 錦城	
33	長興府(定安縣)	定州	定州	
34	春州	壽春	壽春	
35	東州	昌原	없음	
36	漳州縣(獐州)	獐浦	없음	獐浦는 일반별호
37	海州	大寧 西海	大寧 西海	
38	鹽州	五原	없음	
39	白州	銀川	銀川	
40	安州	安陵	安陵	
41	豐州	西河	西河	
42	儒州	始寧	始寧	
43	黃州	齊安	齊安 龍興	
44	鳳州	池河	池河	
45	信州	信安	信安	
46	洞州	隴西	隴西	
47	谷州	象山	象山	
48	登州	朔方	없음	
49	宜州	東牟	東牟	
50	寧州	安陵	安陵	
51	雲州	雲中	雲中	
52	博州	博陵	博陵	
53	成州(剛德鎮)	松壤	없음	松壤은 성종2년 별호
54	見州	없음	昌化	
55	交州	없음	蓮城(連城)	

* 비고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관련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성묘별호가 부여된 곳의 읍격(邑格)은 대개 주(州)였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의 29비(妃) 출신지로서 주(州) 이상의 지역은 성묘별호가 있었다.²³⁾ 성묘별호가 수록되지 않은 주(州)들은 다음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성묘별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려사』 식화지 조운조에 보이는 성종 11년의 조선 수경가(漕船輸京價) 기사와 성종 14년 주-현체제 하에서 사용된 현명(縣名)이다. 성종 11년의 조선 수경가 기사는 조운이 이루어지는 각 포구에서 개경까지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수송비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이 기사에는 해당 포구의 소재지가 군 또는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명칭 중에는 성묘별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성종 14년의 군현제 개편에서는 절도사·단련사·자사 등의 외관이 주(州) 단위로 설치되었는데, 이들 주(州)는 대개 성묘별호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명칭 중에는 성묘별호가 직접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성묘별호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수경가 기사는 주로 경상남도에서 황해도 이르는 연해지역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양양의 성묘별호를 추정할 수가 없다. 양양의 성묘별호는 봉작명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봉작은 종실(宗室)과 이성제군(異姓諸君)에게 수여되었다. 종실에 대한 봉군(封君)은 태조 때부터 등장하고, 이성(異姓)에 대한 봉군은 경종 5년(980)에 최지몽(崔知夢)이 동래군후(東來郡侯)로 봉해진 것이 최초이다. 종실에 대한 봉작은 주로 개성국공(開城國公)·진한후(辰韓侯)·낙랑백(樂浪伯)·평양공(平壤公) 등 국명 내지 지명과 연관된 공·후·백의 봉작명이 주어졌고, 이성제군에 대한 봉작은 동래군후(東來郡侯)·청하현개국남(淸河縣開國男)과 같이 군현과 연관된 공·후·백·자·남의 봉작명이 주어졌다.²⁴⁾ 고려시대 자료에서는 정식 지명이 봉작명에 쓰인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성묘별호가 쓰인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양이라는 정식 명칭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 ‘양양부’라고 칭하면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봉작명으로 양양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① 황원(皇元) 후지원(後至元) 원년 을해년(충숙왕 복위4, 1335) 모월 모일에 고려국왕의 순비(順妃)가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65세이다. 성은 허씨(許氏)이며, 공암군(孔巖郡) 사람이다. 증조 경

23) 성종은 태조 이래 공신의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후손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그들의 출신지에 別號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24) 종실에 대해 國名이나 地名을 부여한 것은 중국의 天子가 諸侯國에 봉한 것과 같이 고려에서도 국왕이 왕실을 제후국으로 봉한다는 分封制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국 봉건제도가 고려에서는 부분적이고 형식적이거나 중국의 축소판으로 행해졌으며, 중국의 천자가 고려 국왕을 봉한 것처럼 고려 국왕도 功臣이나 王室에 대해 책봉의 형식을 취하였다.



(京)은 검교상서우복야 행예빈소경 지제고(檢校尙書右僕射 行禮賓少卿 知制誥)를 지냈고, 조부 수(遂)는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예부상서 한림직학사승지(銀靑光祿大夫 樞密院副使 禮部尙書 翰林直學士 承旨)를 지냈다. 아버지 공(珙)은 광정대부 첨의중찬 수문전학사 감수국사 판전리사사 세자사(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太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를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문경공(文敬公)이며 충렬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아들 셋과 딸 넷을 두셨다. …맏딸 영복옹주(永福翁主)는 양양군(襄陽君) 김대언(金臺彦)에게, 둘째 딸 연희옹주(延禧翁主)는 중서좌승(中書左丞) 길길반(吉吉反)에게 각각 출가했다(『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

A-② (현종의 증손) 왕선(王瑄)이 양양군(襄陽君)에 책봉되었다. 그의 아들 왕규(王珪)는 수연군(壽延君)에 책봉되었다가 공양왕 4년(1392)에 먼 지역으로 유배갔다(『고려사』권90, 열전3 宗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인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 「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과 고려 말에 ‘양양군(襄陽君)’이라는 봉작명을 부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양’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강릉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강릉이라는 정식 명칭은 충렬왕 34년(1308)에 ‘강릉부’라고 칭하면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봉작명으로 강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B-① 예종 12년(1117)에 개부의동삼사 수태보 겸문하시랑 감수국사 상주국 강릉군개국후(開府儀同三司 守太保 兼門下侍郎 監修國史 上柱國 江陵郡開國侯) 김연(金緣)에게 식읍(食邑) 1,300戶에 식실봉(食實封) 300戶,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였다(『고려도경』권6, 延英殿閣).

B-② 인종 계해 21년(1143) 6월 임자일에 광평후(廣平侯) 왕원(王源)을 수태보(守太保)로, 광평공(廣平公) 사도(司徒) 왕온(王溫)을 수태위(守太尉) 강릉후(江陵侯)로 각각 임명하였다(『고려사』권17, 인종세가).

B-③ 의종의 장경왕후(莊敬王后) 김씨(金氏)는 종실 강릉공(江陵公) 온(溫)의 딸이다. 의종이 태자로 있을 때에 비(妃)로 맞아 들였는데 인종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서를 내리고 예물을 주었다. 의종이 왕위에 오르자 흥덕궁주(興德宮主)로 봉하였다. 그는 효령(孝靈) 태자 왕기(王祈)와 경덕(敬德), 안정(安貞), 화순(和順) 세 궁주(宮主)를 낳았다(『고려사』권88, 열전1 后妃).

위의 기사 B-①은 예종 12년(1117)에 김연(金緣)을 강릉군개국후(江陵郡開國侯)에 봉한 내용이고, B-②



는 인종 21년(1143) 왕온(王溫)을 강릉후(江陵候)에 봉한 내용이다. 전자는 이성제후에 대한 봉작이고, 후자는 종실에 대한 봉작이다. B-③은 의종의 왕비 장경왕후 김씨가 종실 강릉공(江陵公) 온의 딸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는 예종대부터 명종대에 걸쳐 ‘강릉군개국후’ · ‘강릉후’ · 강릉공’이라는 봉작명을 부여한 사례이다.

부인의 봉작은 책봉 때의 부(夫)나 자(子)의 관직과 부(父)의 본관에 따라 그 지명이 부여되었다. 부인의 봉작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夫人의 봉작 사례

봉작 대상	봉작 시기	관계	출전
江陵郡夫人 金氏	문종 7년(1053)	崔冲의 母, 崔珙의 玄玄祖	沃溝郡夫人宋氏准戶口
江陵郡夫人 房氏	문종 8년(1054)	圓融國師의 母	浮石寺 圓融國師碑
江陵郡夫人 王氏	인종 15년(1137)	王國髦의 女, 鄭沆의 妻	鄭沆墓誌銘
江陵郡大夫人 金氏	인종 22년(1144)	許載의 母	許載墓誌銘
江陵郡大夫人 金氏	의종 3년(1149)	金上琦의 女, 崔冲의 曾孫女	崔湧妻金氏墓誌銘
江陵郡大夫人 王氏	의종 10년(1156)	李軾의 母	李軾墓誌銘
江陵郡夫人 金氏	의종 14년(1160)	金仁存의 女	崔誠墓誌銘
江陵郡大夫人 王氏	의종 16년(1162)	崔湧의 母	崔允儀墓誌銘

위의 사례에서 「옥구군부인송씨준호구」에는 문종 7년(1053)에 최충의 모친 김씨가 ‘강릉군부인’에 봉해진 것을 비롯하여 문종 8년(1054)에 건립된 「부석사 원융국사비」에는 국사의 모친 방씨가 ‘강릉군부인’에 봉해졌고, 인종 15년(1137)에 건립된 「정향묘지명」에는 정향의 아내이며 좌복야(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事) 경렬공(景烈公) 국모(國髦)의 딸 왕씨가 거듭 ‘강릉군부인’에 봉해졌다. 의종 16년(1162)에 건립된 「최윤의묘지명」에는 “최윤의 어머니는 강릉군대부인 왕씨이다”고 하였다. 이들 사례는 문종대(1053)부터 의종대(1162)에 걸쳐 부인(夫人)에게 ‘강릉군(대)부인’을 부여한 봉작명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강릉’이라는 명칭은 충렬왕 34년(1308)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에 이미 봉작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릉’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그러면 ‘양양’이라는 별호가 지리지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지리지 정리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고려사』 지리지는 읍호 선정이나 연혁의 삽입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성묘별호의 선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별호가 뒤에 정식 읍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주목된다. 정식 읍호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칭(異稱)은 별호로 간주되겠지만, 일단 연혁에 포함되면 이것은 더 이상 별호로 분류될 수 없다. 실제 성묘별호가 연혁 중에 등장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봉작명 등에 자주 사용되는 칭호가 연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양주-양양의 경우에는 누락이 아니라 별호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고려사』 열전과 묘지명(墓誌銘·탑비명(塔碑銘) 등에는 해당 인물의 출신지 내지 본관(本貫)을 밝혀놓았는데, 그 표기는 보통 해당 인물의 몰년(沒年)을 전후한 시점의 지방행정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강릉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전에는 출신지와 본관을 ‘명주인’이라 하였다.²⁵⁾

C-① 스님의 휘는 결응(決凝)이고, 자는 혜일(慧日)이며 속성은 김씨(金氏)이니, 그의 선조(先祖)는 명주인(溟州人)이다(「부석사 원응국사비」, 문종 8년(1054)).

C-② (강릉군대)부인 김씨는 그 선조가 해동(海東) 명주인(溟州人)으로, 신라왕의 자손이다(「崔湧妻金氏墓誌銘」, 의종 3년(1149)).

C-③ 김의광(金義光)은 명주인(溟州人)으로 증조 양황(陽皇)과 할아버지 상기(上琦)는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지냈고, 아버지 고(沽)는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으며, 어머니 유씨(柳氏)는 문하시중 류홍(柳洪)의 딸이다(「正覺首座義光墓誌銘」, 의종12년(1158)).

C-④ 공의 이름은 영석(永錫)이고, 자는 □□이며, 명주인(溟州人)이다.…아버지는 배향공신(配享功臣)이자 수대부 문하시중 판상서이형부사(守大傅 門下侍中 判尙書吏刑部事)인 인존(仁存)이고, 조부는 수대위 문하시랑평장사 판예병부사(守大尉 門下侍郎平章事 判禮兵部事)인 상기(上琦)이다(「金永錫墓誌銘」 의종 21년(1167)).

C-⑤ 문한경(文漢卿)은 명주인(溟州人)인데, 그의 조부 문유보(文儒寶)는 우복야(右僕射)를 지냈다(『고려사』권101, 열전14 문한경).

그리고 관직명과 성곽명은 ‘명주부사’·‘명주성’이라 하였다.

D-① 고종 14년(1227) 11월 계사일에 정공수(丁公壽)를 남경유수로, 조염경(趙廉卿)을 명주부사(溟州府使)로 각각 강직시켰다(『고려사』권22, 세가22).

25) 명종 20년(1190)에 건립된 「文章弼墓誌銘」에는 문장필의 출신지를 ‘江陵郡人’이라 표기된 경우도 있으나, 그 외 거의 대부분은 ‘명주인’이라 표기되어 있다.



D-② 태학박사 노보여(盧寶瓚)가 울주방어부사(蔚州防禦副使)가 되었다. 이때 송유인은 외관(外官)은 문무관을 교대로 배치하는 것이 성법(成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임 울주 판관이 문관이므로, 또 노보여를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명주부사(溟州副使)와 관성(管城) 현령이 모두 문관이며 이부에서도 문관을 판관(判官)과 위(尉)로 임명하였고, 성(省)에서도 이미 서명하였었다. 노보여는 이러한 실례들을 들어 송유인에게 질문하니 송유인이 노하였다. 그러나 이미 잘못 서명하였으므로 사세가 성에서 왕에게 제의할 수는 없었던 만큼 중방(重房)을 부추겨 가지고 왕에게 반대 제의를 하였다. 이리하여 노보여와 명주판관(溟州判官)과 관성위(管城尉)가 모두 다 부임하지 못하였다(『고려사』128, 열전41 반역2 정중부).

E-① 덕종 3년(1034)에 명주성(溟州城)을 수리하였다(『고려사』권82, 지36 병제2 성보).

E-② (김취려가) 적을 추격하여 명주 대관산령(大關山嶺)에 이르러서는 장졸들이 겁을 먹고 열흘 동안이나 머물다가 진군하니 적군은 이미 영을 넘어간 뒤였다. 중군, 좌군, 전군이 다시 적을 추격하여 명주 모로원(毛老院)에 이르러 교전하여 적을 격파하고 옥대(玉帶), 금(金)·은패(銀牌), 무기 등을 노획하였다. 적군이 명주성(溟州城)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4군이 적을 추격하기로 하였으나 후군이 미처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주(剛州)에서 주둔하고 있었다(『고려사』권103, 열전16 김취려).

위의 사례 C~E에서 보듯이 강릉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출신지 내지 본관은 ‘명주인’, 관직명은 ‘명주부사’, ‘명주판관’, 성곽명은 ‘명주성’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렬왕 34년(1308)에 읍호가 강릉부로 개정되면서 출신지와 본관 표기는 ‘명주인(溟州人)’에서 ‘강릉인(江陵人)’으로 바뀐다. 이는 관직명과 성곽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충선왕 원년(1309) 8월에 세운 「삼일포매향비(三日浦埋香碑)」에 지강릉부사(知江陵府事)와 (강릉)판관(判官)이 매향(埋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고려말 이곡(李穀)이 지은 「염양사중흥기(艷陽寺重興記)」에 박징(朴澄)이 그의 어머니 분묘를 강릉성(江陵城) 북쪽에 장사를 지낸 뒤에 폐찰 염양사를 중건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는 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4. 맺음말

양양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은 태종 16년(1416)에 양주에서 양양으로 개칭하면서이다. 조선 초에 편



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에는 중국의 군현 명칭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아화(雅化)된 명칭인 다수의 ‘성묘별호’가 나타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성묘별호’가 고려 성종 11년(992)에 제정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에는 양양에 ‘성묘별호’를 부여하였다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양양의 ‘성묘별호’는 봉작명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봉작은 종실(宗室)과 이성제군(異姓諸君)에게 수여되었다. 종실에 대한 봉작은 주로 국명 내지 지명과 연관된 공·후·백의 봉작명이 주어졌고, 이성제군에 대한 봉작은 군현과 연관된 공·후·백·자·남의 봉작명이 주어졌다. 양양이라는 명칭은 태종 16년(1416)에 정식 명칭이 채용되기 이전인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 「충선왕비순비허씨묘지명(忠宣王妃順妃許氏墓誌銘)」과 고려 말에 ‘양양군(襄陽君)’이라는 봉작명을 부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양’이라는 명칭은 성묘별호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양양’이라는 별호가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기재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리지 정리 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식 읍호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칭(異稱)은 별호로 간주되었지만, 일단 연혁에 포함되면 이것은 더 이상 별호로 분류될 수 없다. 실제 성묘별호가 연혁 중에 등장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봉작명 등에 자주 사용되는 양양의 경우에는 누락이 아니라 별호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 열전과 묘지명·탑비명 등에는 해당 인물의 출신지 내지 본관을 밝혀놓았는데, 그 표기는 보통 해당 인물의 몰년(沒年)을 전후한 시점의 지방행정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강릉의 경우 정식명칭이 채용되기 전에 출신지와 본관 표기는 ‘명주인(溟州人)’, 관직명 표기는 ‘명주부사(溟州府使)·명주판관(溟州判官)’, 성곽명 표기는 ‘명주성(溟州城)’이라 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34년(1308)에 읍호가 강릉부로 개정되면서 출신지와 본관 표기는 ‘명주인’이 ‘강릉인’으로, 관직명과 성곽명 표기는 ‘명주부사’·‘명주성’이 ‘강릉부사’·‘강릉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현지답사

- ◎ 일 시 : 2015.10.22. 15:00
- ◎ 장 소 : 서면 서림리 미천골 선림원지
- ◎ 인 원 : 50명



양양 서면 서림리 미천골 선림원지(禪林院址)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최대(最大)·최고(最高)의 신라 금동불(金銅佛)이 출토

- 10. 14. 오후 13시 발굴조사 현장 일반 공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양양군(군수 김진하)과 조사용역 계약으로 (재)한빛문화재연구원(원장 김기봉)이 발굴조사 중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미천골 내 '선림원지'에서 9세기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신라 금동불(金銅佛)이 출토되었다.

* 금동불 : 금도금을 하거나 금박을 씌운 동을 부어(鑄銅; 주동) 만든 불상

조사 결과, 선림원지의 승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높이 50cm(불상 높이 약 40cm) 이상 되는 현재까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큰 불상이 출토되었다. 이 불상은 한국 금동불 중 광배와 불상, 대좌가 모두 남은 예가 극히 드문 불상 중 하나이다.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금동불은 신라 금동불 중 화려한 장식을 가진 불상으로 그 예가 드물다. 또 일반적으

로 정병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과 달리 고리를 손에 쥐고 있는 최초의 불상이다.

현재까지 이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불상과 같거나 비슷한 크기의 화려한 불상은 신라의 수도(首都)였던 경주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

선림원지 출토 금동불상의 양식과 대좌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9세기 초를 전후하여 경주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이 곳(선림원)으로 이입(移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동불로 보아 당시 불교계에서 선림원의 위상(位相)이 매우 높았음을 가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불의 예로 보아 이 선림원지 출토 불상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크기·상태 등으로 보아 국가문화재로 손상이 없는 듯하다.

이와 함께 옥개석이 유실된 '보물 제447호'인 '선림원지 부도'의 옥개석이 출토되어 이 부도의 정확한 복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기대된다.

이번 선림원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사에서 확인된 금당지, 추정 조사당지, 승방지 등의 건물지가 증축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여기에서 기와·솥(鼎)·청동유물 등이 출토되어 9세기대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5.10.14.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원 회원 향토문화교육 현지답사〉



문화원 회원 현지답사



문화원 회원 현지답사



선림원지 출토 금동불상



선림원지 출토 부도 옥개석



선림원지 승방지 출토 외당



선림원지 출토 청동정병

2015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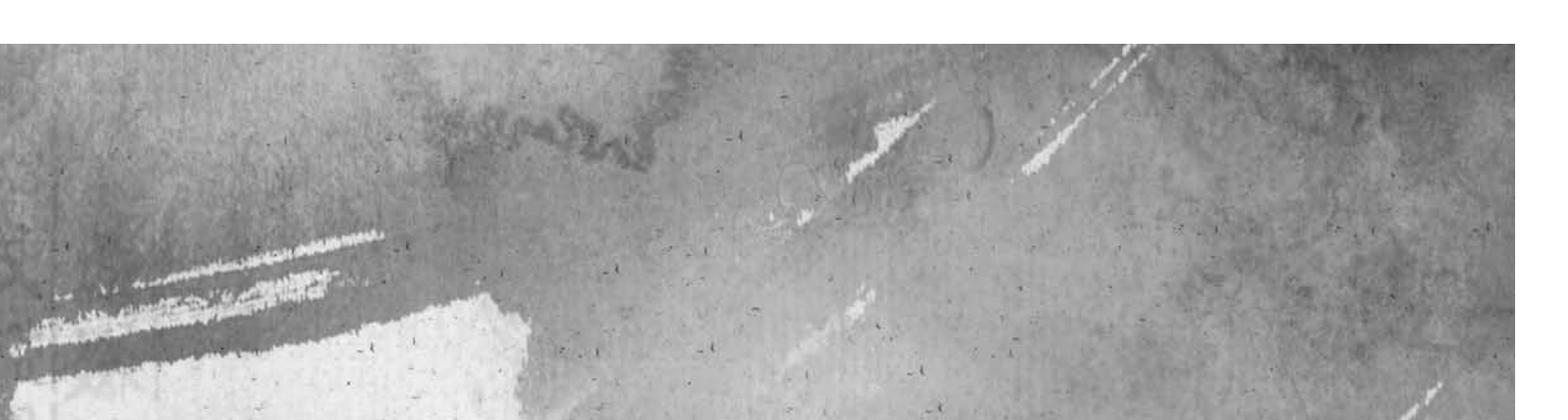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 계	11 명	177
한시교실	이 종 우	17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13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11
한국화교실	정 영 택	11
민요교실	김 봉 신	10
통기타교실	강 명 근	17
사물놀이교실	홍 이 표	11
색소폰교실	이 명 재	10
난타교실	주 동 진	10
수채화교실	김 영 덕	12
양양600합창단	윤 천 금	55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시교실	김원래	사물놀이교실	조남선
서예교실(한문)	김주용	색소폰교실	손용호
서예교실(한글)	이근천	난타교실	정미애
한국화교실	유철호	수채화교실	김두원
민요교실	최금례	양양600합창단	안미자
통기타교실	이종기		

2015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글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강릉단오서화대전 추천작가 : 김영순 특 선 : 김영순, 김재욱 ❖ 제25회 강원서예대전 특 선 : 노복현 입 선 : 김영순 ❖ 제1회 정선아리랑서화대전 특 선 : 노복현, 유철호, 윤명화, 조덕희, 차명순 ❖ 제13회 남의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 : 이근천 삼 체 상 : 이근천 특 선 : 김재욱, 이근천 ❖ 제10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 최 우 수 : 김영순 초대작가 : 이근천 삼 체 상 : 이근천, 조덕희 특 선 : 노복현, 유철호, 윤명화, 차명순 	한문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울곡제 참 방 : 황재권 ❖ 제10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 특 선 : 김광태, 박석호, 변대환, 신동우 이광우, 이근천 삼체상 : 이근천 입 선 : 윤지환 ❖ 제10회 강릉단오서화대전 특 선 : 김광태, 박석호, 변대환, 신동우 이광우, 이근천, 전성우 ❖ 제18회 신사임당·이울곡 서예대전 우 수 : 변대환 ❖ 제13회 남의침묵 서예대전 특 선 : 이근천 삼체상 : 이근천 입 선 : 신동우
	한 시		민 요
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협회 풍아 35호 가 작 : 김경일, 김구래, 황재권 ❖ 한시협회 풍아 36호 참 방 : 황광수 ❖ 한시협회 풍아 37호 가 작 : 김구래, 윤여준 ❖ 제23회 전국한시백일장(현장백일장) 장려상 : 김경일, 안병대, 윤여준, 황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양현산문화제공연, 양양전통시장공연, 양양공항공연, 송이축제공연, 8군단공연, 속초공연(시장엑스포), 장애인의날공연, 예총발표회, 모정요양원, 디모테오 요양원, 낙산요양원, 현산요양원공연 ❖ 전국노래자랑참가-인기상 제5회 강원도동구리민요경창대회-우수상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사물놀이 (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인사회공연,보름행사공연,시장나물축제공연,현산요양원공연,자전거길개통식공연,전통시장공연,조각공원공연(성당),3.8수복기념공연,성황봉송공연,5색두근두근체험공연,해담마을공연,낙산요양원공연,노인의날행사공연,장애인체육대회공연,서면·현북면,체육대회공연,성폭력방지캠페인공연,국악발표연탄드림공연,양양현산문화제공연,민속경연대회(영월) ❖ 제20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장려상
한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임당미술대전 특 선 : 이순애 ❖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 우수상 : 박예숙 입 선 : 이건남, 홍순혜, 김문숙
수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수채화반 전시회개최(11.13~11.15)
통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공연 ❖ 송이축제 공연 ❖ 과일축제 공연 ❖ 연탄나눔 자선 공연
난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공연 ❖ 양양전통시장공연 ❖ 연탄나눔봉사 공연 ❖ 장애인 행사 공연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색소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문화예술단 창단기념(장윤정콘서트)출연
양양600 합창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개막식 공연 ❖ 양양송이축제 공연 ❖ 양양전통시장공연 ❖ 연탄나눔봉사 공연



휴양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SONG-I VALLEY NATURAL FOREST

송이와 함께하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13만평 송이산 인근부지에 마련된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대자연의 쾌적한 산림 속에서 양양송이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놀이와 숙박, 산책과 스포츠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웰빙휴양타운입니다.
산림욕도 하고 각종 놀이도 함께 하세요~



입장요금

어른 1,000원/단체(10인 이상) 800원
어린이 500원 단체(10인 이상) 300원

개장시간

하절기(4~10월) 9:00 ~ 18:00
동절기(11~3월) 9:00 ~ 17:00
매주 화요일 휴무(유료시설 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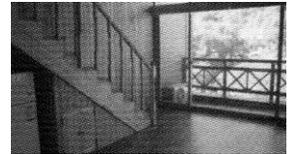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107-6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 158-3번지)
Tel. 033-670-2644
Fax. 033-670-2447
www.songivalley.co.kr

산림문화휴양관

새벽공기에서 숲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곳. 통나무 베란다에 서면 대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 산림문화휴양관에서 별과 함께하는 하룻밤.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 객실수 복층(29㎡, 26㎡ / 5인용) 9실
 단층(27㎡ / 5인용) 1실
- 객실명 물푸레/자작/은행/목련/주목/참나무/소나무/단풍/진달래/장미
- 객실요금 성수기 85,000원/비수기 60,000원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 추가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9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 중 평일
- 체크인 오후 3시 이후
- 체크아웃 오전 12시 이전
- 숙박문의 (033) 670-2644



목재문화체험장

나무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전시도 보고 직접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주요시설 놀이테크, 목재체험실, 생활목재가구체험실, 목공작실,
 목공예전시실, 목재종합전시실



산책로

휴양림 주변에 조성된 백두대간 탐방로를 가볍게 산책하며 산림욕도 하고 목교, 전망대, 어린이 숲놀이터, 테크로드, 덩굴쉼터 등을 돌아보며 쉴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녹색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산림교육장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 인문지리, 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

백두대간역사실, 생태체험실, 입체영상전시관,
산림이용관, 안내 및 뮤지엄샵, 야외 생태체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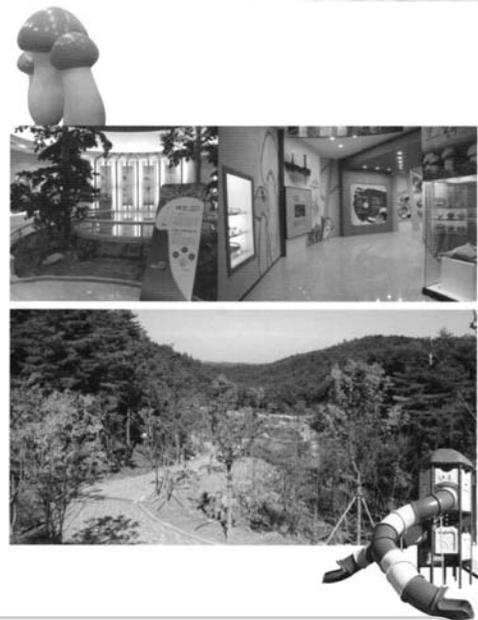


송이관

4존의 디오라마관과 영상관에서 양양송이의 이미지를 특별한 연출로 보여주며 송이요리와 조리법, 가공저장법, 송이축제 등 송이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

- 로비 양양 황금송이를 만나다
- 제1존 자연이 준 선물, 버섯의 매력
- 제2존 송이향이 그윽한 양양의 산에 오르다
- 제3존 송이가 만드는 금빛세상
- 제4존 양양송이와 사랑앓 빠지다
- 영상실 신비한 양양 황금송이의 세계



체험프로그램

송이보물찾기



휴양림 인근 송이산에서 송이보물찾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 송이축제 기간동안 1일 1시간
참가비 : 성인 20,000원 / 어린이 10,000원
※ 채취한 송이를 체험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섯채취체험



천혜자연휴양림에서 산림욕도 하고 버섯도 채취해 보세요.
기 간 : 송이축제 기간동안 1일 2시간
※ 채취한 버섯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 트래킹

전문 숲해설가의 숲이야기를 들으며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숲길트래킹을 해 보세요.



짚라인

짚트랙은 양편의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가 반대편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담력을 키우는 레저스포츠입니다.

정상에서 탁트인 동해바다와 대청봉, 낙산, 솔비치 등 자연경관을 즐기며 자연숲을 가르는 신비감과 스릴을 만끽해 보세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주요시설

산림문화휴양관/백두대간 생태교육장/목재문화체험장/송이관/숲체험/짚라인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잔디광장/덩굴쉼터/백두대간 탐방로/전망대/목교/데크로드 등

죽상동맥경화증

요약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 **진료과** :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 **관련 신체기관** : 혈관
- **관련 증상** : 손발이 저리다, 감각이 없다, 가슴통증

● 정의

죽상경화증은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endothelium)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atheroma)’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한다. 죽종 내부는 죽처럼 뭉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되어 혈관 내에 혈전(thrombus; 피떡)이 생긴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고, 그 결과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동맥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현상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수축기 고혈압이 초래되어 심장근육이 두꺼워지는 심장비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는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하여 죽상동맥경화라고 쓰기도 한다.



● **원인** :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맥경화를 잘 일으키고 진행을 촉진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 높은 중성지방
- 고혈압(140/90mmHg 이상)
- 흡연
- 당뇨병
-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 연령 증가
- 운동부족, 과체중 및 복부비만

● **증상** : 죽상동맥경화로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므로, 좁아진 혈관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죽상동맥경화는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심장혈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과 경동맥(목의 혈관), 신장의 신동맥 및 말초혈관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일명 심장마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뇌졸중(일명 중풍),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신부전 및 허혈성 사지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1) 협심증(angina pectoris)은 죽상동맥경화 및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 심장근육으로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협심증 환자도 휴식 중에는 어느 정도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혈액(영양분과 산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협심증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심장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한 상태가 되어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 휴식을 취하면 심장이 요구하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증상이 사라진다.

- 2)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은 보통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심장근육에 혈액이 30분 이상 공급되지 못하면 해당 부위의 심장근육 세포가 죽게 되고, 그 부위는 기능이 사라지므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감소하여 심부전(심장 기능저하 상태)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급사 또는 심장 돌연사란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말초혈관폐쇄성 질환 : 말초혈관은 대동맥, 대정맥에서 갈라지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관을 말한다. 주로 죽상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협착되어 해당 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는 장기의 기능에 손상이 생기고, 절단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말초혈관 폐쇄는 하지동맥(다리동맥)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하지동맥 폐쇄성 질환은 종종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하지동맥 폐쇄성 질환과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의 차이

- 1) 증상 유발: 하지동맥 폐쇄는 걸을 때 증상이 유발되며, 디스크는 걸을 때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 있을 때에도 증상이 유발된다.
- 2) 통증 양상: 하지동맥 폐쇄에서는 통증이 터지는 듯한 느낌 또는 조이는 느낌으로 나타나지만, 디스크에서는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의 통증이 나타난다.
- 3) 양측성: 하지동맥 폐쇄는 증상이 좌우 양측에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디스크는 대부분의 경우 양측성으로 나타난다.
- 4) 증상 유발 거리: 하지동맥 폐쇄에서는 증상 유발 거리가 대개 일정하지만, 디스크에서는 가변적이다.
- 5) 하지 맥박: 하지동맥 폐쇄에서는 하지 맥박이 감소하지만, 디스크에서는 정상이다.
- 6) 증상 완화: 하지동맥 폐쇄는 보행을 하지 않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디스크는 앉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

● 진단

- 1)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경동맥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 및 CT,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등이 있다.

-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목 동맥) 죽상동맥경화반, 혈행(혈액순환)의 장애 확인
 - 복부 초음파나 CT(컴퓨터 촬영): 복부 대동맥의 죽상동맥경화반이나 혈전 형성, 대동맥 확장 확인
 -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관상동맥(심장 혈관)의 석회화된 죽상동맥경화반 확인
- 2) 각 장기의 허혈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

● 검사

1)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혈관(관상동맥)에도 콜레스테롤, 염증물질 등의 물질들이 침착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 석회화 병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간단한 CT(컴퓨터단층촬영술)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약물로 심장의 일을 증가시켜 심전도 이상을 확인하는 운동부하 심전도나 혈류의 분포를 보는 심장 핵의학 검사를 시행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관상동맥을 촬영하여 혈관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심장혈관 CT 혹은 심장 혈관조영술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검사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의사와 상의한 후 단계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심장혈관 조영술은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고무관을 사타구니의 혈관(대퇴동맥) 또는 팔의 혈관(요골동맥)으로 넣어 심장까지 찾아 들어가서 혈관을 보는 검사이다. 카테터를 관상동맥의 입구에 놓고 조영제를 관상동맥에 밀어 넣으면서 엑스레이(투시) 촬영을 한다. 이 검사는 관상동맥 안쪽에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정상에 비해 심장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2) 말초혈관질환, 사지혈관 허혈성 질환: 하지혈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는지는 상지(팔)과 하지(발목)의 혈압을 측정하여 비율을 계산하여 짐작할 수 있다. 말초혈관폐쇄성 질환이 의심되면 CT혈관조영술이나 말초 혈관조영술로 확인한다.
- 3) 경동맥 질환: 목 혈관(경동맥) 초음파,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으로 혈관에 침착되어 있는 죽상동맥경화반을 확인 할 수 있다.
- 4) 뇌졸중: 뇌 MRI(자기공명영상), 뇌 MRA로 확인한다.

● 치료

죽상동맥경화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및 장기로의 혈액 공급에 이미 장애가 생겨 증상이 나타났거나 장기의 기능 저하가 초래된 경우에 좁아진 혈관을 넓히거나 혈관을 붙여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치료가 있다.

진행을 예방하는 치료에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한 혈압 관리, 당뇨병 관리, 금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체중 관리 및 혈액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치료(지질 강하제) 등이 있다.

좁아진 혈관의 혈행(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좁아진 곳이 있으면 카테터를 통해 혈관성형풍선을 넣어서 부풀려줌으로써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진 부분을 넓혀줄 수 있다. 또는 그물망 처럼 생긴 스텐트라는 것을 넣어서 관상동맥의 혈관벽을 지지해 줌으로써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이를 혈관성형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혈관이 좁아졌다고 모두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확장 시술을 했을 때 혈류 공급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고 시술하기 적절한 병변일 때 풍선성형술 또는 스텐트 시술을 한다.

대개 혈관의 내경이 50%이상 좁아져 있을 때 증상과 관련이 있고 이 병변을 넓혀주면 증상의 호전을 가져온다. 경미하게 혈관에 쌓인 물질들은 금연, 혈압 조절,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될 수 있으며 철저한 위험 요인의 관리를 통해 향후 죽상경화반이 생기고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는 내과적 치료 특히 동맥 성형술이 여의치 않은 경우 행해지며, 우회로이식술을 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다른 혈관이나 인공 혈관을 이용하여 혈관의 좁아진 부분의 아래로 혈관을 우회하여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 경과/합병증

죽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 질환으로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방법

1) 운동

혈중 지질을 개선하기 위한 육체적 활동이나 유산소 운동은 중등-고 강도로, 5~7일/주,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하여야 하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6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 중등도의 강



도란 30분간 빠른 걸음 걷기, 20분간 수영, 자전거 타기(5miles/30분) 등이다.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청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30%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소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8mg/dL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총 콜레스테롤은 대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의 감소는 체중, 체지방량의 감소, 그리고 지방섭취량의 감소와 주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1회의 운동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근력 운동을 하면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면서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감소할 수 있다.

2)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 약이다. 흔히 해열 진통제, 소염제 효과를 위해서는 1회에 약 500 mg 정도를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75~150mg의 저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있다. 흡연, 고혈압 등에 의해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면 파이프에 녹이 스는 것처럼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염증반응을 유발하면서 죽처럼 물경물경한 상태가 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혈관 내로 터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혈관 내를 지나가던 혈액이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전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급성으로 혈류의 장애를 가져와서 흔히 말하는 심장발작(심근경색), 심장마비가 되며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다.

혈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혈소판이라는 혈액 내의 물질이다. 75~150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또는 격일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아스피린의 심장병 예방 효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중년(50~65세)의 심장병이 없는 남성에서 저 용량의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장 발작(심근경색)과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 30%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향후 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은 군에서는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는 더욱 커서 허혈성 뇌졸중과 전체 사망률까지도 약 15~20% 감소시킬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이 약 2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에서는 예방효과가 더 커서 허혈성 뇌졸중과 함께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아스피린의 부작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메스꺼움, 속 쓰림, 상복부 불편감,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위장관 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장관 출혈의 빈도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발생 확률이 약 1.7배 더 높다. 또한 출혈성 부작용 중 치명적인 형태인 출혈성 뇌출혈의 발생률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1.4배 높다.

● 생활 가이드

죽상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이 되는 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 식이요법

- 1)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늘린다. 과일, 채소 등의 점액성(수용성)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주로 복합탄수화물이 많은 곡류, 과일 및 채소를 통해 섭취해야 하며 고탄수화물 식사는 혈청 중성지방의 증가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콩 단백질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의 대체 식품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이요법으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20~30% 감소시킬 수 있다.
- 2) 에스키모인은 엄청난 양의 지방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등의 발병률은 오히려 매우 낮다. 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연구에서도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졌음을 확인했다.

오메가3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과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동맥 경화를 방지하며, 항혈전 성질이 있고, 부정맥을 감소시키며, 혈관내피의 혈관확장기능을 증대시키는 등의 효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일에 1~2회의 콩치, 참치뱃살, 고등어,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1일 1g의 오메가3지방산 섭취를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죽상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명승

구룡령(九龍嶺)옛길

(서면 갈천리 산1-1, 명승 제29호)

구룡령옛길은 옛날 양양에서 홍천을 거쳐 한양으로 입경하던 높이 1,100m의 옛길로서 영북지방에서 영서로 연결되는 다른 영길 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옛 선비들이 과거보러 한양으로 갈 때 아홉 마리의 용(龍)의 영험을 빌면서 이 영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명종 9년(1554년) 강원관찰사를 지낸 석천임억령(石川林億齡)이 구룡령의 자연을 읊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관리와 문인들이 시부(詩賦)로 노래했다.

구룡령의 이름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이 영을 넘고자 갈천약수로 목을 축이고 아흔 아홉구비 쉬엄쉬엄 돌아 넘었다는 전설이 붙어져 있다. 이 영의 입구에는 옛 철기시대에 철을 캐던 동굴이 옛 문화의 정취를 풍기며, 일제강점기 갈천철광이 개발되고 삭도 [철광석을 운반하던 케이블카]가 강제 징용된 애환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길을 걸어 오르다 보면 중간중간에 횃돌반쟁이, 묘반쟁이, 술반쟁이 등 표지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 매혹되게 된다.

1989년 경복궁 복원 당시 재목으로 보내진 아름드리 금강송의 그루터기가 문화재 복원의 공지를 남게 하고 있으며 금강송과 함께 높이 자란 여러 활엽수의 교목 속은 마치 원시림의 터널 같아 이 길을 넘나들 때는 참으로 삼림욕의 극치를 느끼게 하고 있으니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영길이므로, 재청에서 국가명승 제29호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확정할 때 양양부사가 새벽 일찍이 동헌을 출발하여 이 영길을 넘어 창촌에서 홍천부사와 만나 경계 짓고 경계비를 세웠다 한다. 이 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넓히려 이 영을 빨리 넘으러 달리다 지쳐 숨진 애향 청년이 묻혔다는 묘가 있어 이 영을 넘을 때 숙연함과 애향심을 북돋게 한다.

2015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학교별 등위	산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이예지 (상평초6)	최인정 (한남초6)	이윤재 (임호 분교4)	김소은 (조산초2)	이자영 (한남초6)	김현우 (조산초5)	김재원 (회룡초5)	김민 (현서 분교4)	박영미 (공수전 분교2)
		함주경 (한남초6)	이지호 (한남초3)			정주형 (회룡초5)			
	김다희 (손양초4)	이기호 (상평초2)	이향은 (상평초6)	함혜정 (상평초4)	고경원 (현서 분교3)	안지연 (회룡초5)			
중학교	엄예진 (현남중3)	장세빈 (현남중2)	-	정소희 (현남중3)	신예슬 (현남중3)	-	-	-	-



2015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부문 : 포스터

따사롭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창밖으로 낮은 곳을 향해 내달리는 대청의 단풍이 눈부신 때이다. 양양문화원의 2015년 경로효친 작품 심사 의뢰를 받고 올해엔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까 내심 기대하였다.

전년에 비해 출품 학교와 출품작의 수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낮아진 듯 하였다.

인간의 가장 근본 덕목인 ‘효’와 ‘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또는 기성세대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아닐까 걱정스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작품의 제작하는 그 순간만큼은 ‘경로효친’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을 아이들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이 가을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내가 하는 어른 공경과 효의 실천이 곧 나에게 되돌아오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가 깨닫기를 감히 바란다.

2015년 10월

양양여자중학교 교사 조동호



2015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부문 : 시, 산문

우선 이렇게 2015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사의 기회를 주신 양양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의 기준으로 '경로효친의 주제가 잘 구현되었는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 및 공감을 줄 수 있는지,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초등 산문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상평초6 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녀에 대한 사랑이 '밥, 아이스크림' 등으로 잘 나타나고 소녀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및 공경하는 마음이 '커피'라는 소재로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내용이 진솔한 어조로 표현되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첫 번째, '홍시(한남초6 최인정)'는 할머니(외할머니), 어머니, 자기 자신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이 '홍시'라는 소재로 잘 드러나고 노래의 가사와 일상생활의 경험을 적절하게 연결한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를 도와드린 날(손양초4 김다희)'은 문장이 간결하여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내면화하는 점이 잘 나타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첫 번째, '우리 가족(임호분교4 이윤재)'은 삶을 공유하는 가족의 따뜻한 정이 잘 나타나 있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제를 연결하고 진심어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경하는 마음(한남초6 함주경)'은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 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현하였고 '효'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와 나(상평초2 이기호)'는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하는 진심이 나타나고 또 할머니에 대한 손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진솔하고 순수하게 표현되어 따뜻함이 느껴지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등 산문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 ‘진정한 노인 공경이란?(현남중3 엄예진)’은 경로효친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그 성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감동을 이끌어내어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노인공경”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현남중2 장세빈)는 경로효친의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경로효친을 생각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초등 시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 ‘꽃반지(조산초2 김소은)’는 경로효친의 마음을 아름답고 정감 있는 소재로 표현하여 감동을 주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게 표현되어 있어 주제가 잘 표현되었기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첫 번째, ‘우리 할아버지(한남초6 이자영)’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경로효친의 마음가짐을 깊이 간직하려는 태도가 잘 드러나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 파스 붙여드리기(상평초6 이향은)’는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소소한 일상이 매우 정겹게 드러나고 일상 생활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장려로 선정한 첫 번째, ‘다른 할머니를 위한 카네이션(조산초5 김현우)’은 친족 간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로효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웃의 웃어른을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기에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 넘치는 노인정(한남초4 이지호)’은 대화체를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었고 경로효친의 대상인 어른들께서 정을 나누는 공간을 그려냄으로써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과 또 어른들을 바라보는 학생의 따뜻한 시선이 인상 깊어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효친(상평초4 함혜정)’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중등 시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한 ‘눈빛(현남중3 정소희)’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진솔하게 표현하였고 따뜻한 마음이 은은하게 표현되어 최우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로 선정한 ‘뒷모습(현남중3 신예솔)’은 성찰을 통해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이끌어내고 다양한 소재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기에 우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등외의 작품들도 노력이 담긴 우수한 작품이 많았으나 주제가 더 충실히 반영되었거나 표현력 및 단어 선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양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힘쓰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 또한 양양군의 문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 원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양양고등학교 교사 엄혜성

진정한 노인 공경이란

현남중학교 3학년 엄예진

나는 평소 학교 내신 성적을 중요시 생각한다. 하지만 한 학년이 다 끝나 가는데 나는 봉사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 공부 외에 활동들은 불필요하고 귀찮게 생각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도 대충 시간만 채우고 그만 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소 노인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 대화하기도 힘이 들고 그냥 나도 모르게 대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첫 봉사를 나갔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나는 마냥 귀찮을 뿐이었다. 내가 처음 돌봐드리게 된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할머니의 집 상황을 보니 좀 충격을 받았다. 제대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집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있고 할머니의 상황을 보니 끼니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상황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는 봉사시간 채우려고 귀찮은 마음으로 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제일 먼저 할머니의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곰팡이 핀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할머니의 물건들도 보기 좋게 청소하고 그러고 나니 꼬박 4시간이 지나있었다. 할머니의 집 상황을 보고 화가난 나머지 할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장정 4시간동안 말도 하지 않고 청소만 한 것이다. 청소가 끝나고 할머니를 보니 할머니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다. 나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나도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할머니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가까이 다가가니 갑자기 할머니께서 엉덩이를 툭툭 치시며 낮간지러운 칭찬을 해주셨다.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졌다. 할머니한테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진심어린 칭찬은 처음 듣는 거라서 나는 대충 얼버무리다 할머니께 얼른 이사를 드리고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다보니 할머니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게 생각이 났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평소 일요일 마다 늦잠을 자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용돈으로 항상 옷이나 화장품을 사던 내가 나의 두달치 용돈을 들고 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을 잘 챙겨드시지 못하던 혼자사는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것 같다.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공경의 ‘노’ 자도 모르던 내가 노인공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그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을 사서 두 번째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나를 친손녀 대하듯 반겨주셨다. 나의 가족들도 따뜻한 정을 나에게 듬뿍주지만 할머니께서 내게 주는 정은 또 그것과는 다르게 따뜻했고 그리움이 잔뜩 묻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저것 정성들여 요리를 하며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나도 함께 먹자고 하셨다. 같이 밥을 먹는데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먹지 않고 나에게 계속 반찬을 올려주시며 호뭇해 하셨다. 그리고 식사 후 나는 할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안마도 해드렸다. 오후 6시쯤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나를 보고 오랜만에 말동무가 있어 좋았다고, 고맙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한없이 강인한 듯 약해보여 순간 울컥했다. 그리고 다음에 요리를 더 배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 나는 다시한번 인터넷을 통해 노인공경에 대해 검색을 해 보았다. 그리고 평소 다니면서 그런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둘러보았다. 그러나 노인공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 중 일부는 노인공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이런 얘기도 보았다. 요즘 사람들은 버스에서 노인분들이 타시면 자리를 비워주지만 표정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 이런 건 진정한 노인공경이 아니라고 했다. 노인공경은 단지 노인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오랜세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노인공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한번의 경험으로 딱 막힌 나의 마음이 많이 풀리고 따뜻하게 변하였다. 주변의 아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의무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좀더 ‘노인공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눈빛

현남중학교 3학년 정소희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친근한 모습

나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신
그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지나쳐간다.

그때 뇌를 스치는
그분의 실망어린 눈빛에
뒤에 무엇을 놓고 온 것처럼 허전하다.

쏟살같이 뛰어가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
무엇을 찾는척하다
그분께 마음을 먹고 인사를 드렸다

그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살짝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을
본 나의 마음엔
커다란 꽃이 활짝 피어났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상평초등학교 6학년 이예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텔레비전이 켜있다. 소파에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계신다.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신다.

나는 아침밥을 할아버지랑 같이 먹는다.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것은 깜깜한 어둠 같다. 항상 내 밥그릇에는 밥이 수북이 있다. 할아버지는 내 생각하시느라

“다 먹어야 돼.”

하지만 밥이 너무 많다.

“아침에는 이렇게 많은 밥 못 먹어요.”

“안 돼. 다 먹어야 돼.”

아침에는 할아버지를 못 이긴다. 밥 먹을 때는 좀 그렇지만 무엇을 사줄 땐 천사다. 내가 과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면

“알았어. 다음에 꼭 사줄게.”

그리고 다음에 꼭 사주신다. 약속은 잘 지키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밥을 드시고 커피 한 잔을 하신다. 짧은 휴식이지만 즐겁다. 그리고 일하러 가신다. 양양에너지월드 홍보관에서 일하신다.

일 마치고 저녁 때 집에 오셔서 할아버지와 커피 한 잔을 하신다. 티비를 보면서 커피를 드신다. 커피를 드시며 눈이 감길랑 말랑 하신다. 일이 힘들면 커피에 들어간 카페인도 효과 없다. 카페인이 오히려 잠을 오게 하나보다. 눈이 감길랑 말랑 하시지만 잠을 꼭 참고 저녁밥을 차리신다. 저녁밥을 먹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신다.

“요번은 송이가 잘 나려나?”

“마이 나면 좋겠는데.”

“예지야, 커피 두 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자동으로 부엌으로 가면서 대답한다.

“네... 네.”

부엌으로 달려서 맥심 커피 두 잔을 끓인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리고 커피 냄새가 부엌에 가득하다. 나는 커피를 쟁반에 올려 들고 거실로 간다. 커피를 들고 거실에 갈 때 커피 냄새가 내 쪽으로 온다. 그럴 때면 나도 빨리 커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커피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탄 커피를 드시며 환하게 웃으신다. 피로가 확 가시는 얼굴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 나도 피로가 확 풀린다.



꽃반지

조산초등학교 2학년 김소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길
우리 할머니가 서 계신다.
언제나 날 기다려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할머니
풀밭에서 꽃반지를 만들어
할머니도 나도 손가락에 끼었다.
똑 같은 꽃반지를 끼니
할머니랑 나랑 더 친해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엄마도 낱아 키워주셨고
나도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꽃반지를 만들어
할머니께 드려야지.



포스터 최우수상

회룡초등학교 김재원





2015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강원도민일보 2015.01.07 최훈 기자]

양양지역 신년인사회



양양문화원이 주최한 양양지역 신년인사회가 6일 쓸비치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군의장, 정문헌 국회의원, 장석삼 도의원,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15.02.28]

양양문화원 2015 정기총회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27일 일출예식장에서 김진하 군수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결산과 올 주요사업계획을 논의했다

[news1 2015.03.22. 엄용주 기자]

양양군 정명 600년...역사와 전통을 담은 고장



양양군청사(사진제공=양양군청) 2015.03.22/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올해는 강원 양양군이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600년 되는 해이다.

23일 양양군에 따르면 인구 2만7000여명, 면적 628.9km², 1개 읍, 5개 면, 124개리가 있다.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양양군은 정명 600년을 맞아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양양문화원에 용역을 의뢰, 학술세미나·문화사업 등 내년에 개최하는 정명 600주년 행사 세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지명·유물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이 기록된 것은 1416년 태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과 관직 등의 칭호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이 때 양양군의 명칭도 양주(襄州)에서 양양(襄陽)으로 바뀌었다.

강원도를 대표하던 강릉과 원주가 정치적·사회적 사건으로 일시 격하될 때에는 도의 이름을 원주와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 '원양도', 또는 강릉과 양양의 머리글자를 딴 '강양도'로 바꿀 정도로 도를 대표할 만한 위치로까지 부각되기도 했다.

이 후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부로 승격되는 등 몇 차례 변동을 겪었다.

또 양양군에는 8000년 전 신석기시대의 토기부터 불교문화재까지 오래되고 다양한 유물·문화재가 존재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4호인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유적지에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주거지 등이 잘 보존되었다.

군은 이곳에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군민과 방문객에게 오산리 신석기시대의 생활모습, 선사유적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양군 일출예식장에서 열린 2010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제10회 동구리 경창대회



양양군 일출예식장에서 열린 2010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제10회 동구리 경창대회 모습.(사진제공=양양문화원) 2015.03.22/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양양군을 빛낸 천민(賤民)들

양양군에는 조선시대 왕의 어가를 따르며 노래를 부른 소리꾼 천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동구리'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 기록에 따르면 세조 12년(1466) 윤 3월14일 세조대왕이 도를 순행하기 위해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물며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했다.

그중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노래를 잘했다. 이에 아침과 저녁을 먹고 악공의 예로 어가를 따르도록 했으며, 유의(남자 저고리) 1령을 내려줬다.

양양군은 왕이 농가 경창대회에 참석해 우수 소리꾼을 발굴했다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실에 근거, 지역의 전통소리를 발굴·보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도 대회로 격상됐다.

군 관계자는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 단위 대회에서 전국규모 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강원도, 정부 방문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군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장악원(掌樂院, 현재의 국립 국악원 기관 중 하나)의 전악(典樂, 장악원의 연주자들을 이끄는 자)이 된 '허억봉'이라는 관노도 있다.

16세기 조선의 음악계에 명성을 떨친 그는 10대 중반부터 악기를 연주했는데 특히 대금을 잘 불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전해진다.

또 금합자보(琴合字譜) 중 대금 악보인 적보를 만들었으며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다.

양양문화원 김광영 사무국장은 "양양군에는 참 좋은 문화재와 인물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널리 알리고 또 보존·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올 하반기 양양군 60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 구상·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의 3·1운동 유적비 참석 한 군민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1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의 3·1운동 유적비 참석한 군민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양양군청) 2015.3.1/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독립운동의 고장 양양...버선목에 숨긴 독립선언문

강원도 내 가장 거센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양양군에 독립선언서 필사 한 부를 버선목에 숨겨 퍼뜨린 조화벽 여사. 당시 개성 호수둔 여학교의 학생이었던 조화벽 여사는 '호수둔 비밀결사대' 활동을 하면서 필사본 독립선언문을 받았고 고향인 양양군에 돌아와 양양 감리교회 청년회 등과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그의 나이 열일곱. 이들은 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었고 1919년 4월4일부터 9일까지 양양 지역에는 1만여명의 군중들이 만세운동을 펼쳤다. 장날을 이용해 펼친 만세운동은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후 조화벽 여사는 학교를 마치고 유관순 열사의 오빠와 결혼한 후 양양에 정명학원을 설립,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했다. 조화벽 여사의 업적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려지지 못하고 머느리 김정애 씨의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자격을 얻었으며 1982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현재 양양군 현남면 기사무리 만세고개에는 삼일만세운동 유적비가 세워져 양양 만세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기리고 있다.

[설악신문 2015.03.30. 김주현 기자]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6월 4일 개막

위원회 회의 개최...김택철 신임 위원장 추대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와 윤여준 문화원장, 위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현산문화제 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익수 현산문화제위원장이 옹퇴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김택철 양양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현산문화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양문화원의 주관으로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양양인의 기상과 애국심, 애항심을 더욱 드높이는 특색 있는 향토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앞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지난 25일 문화복지회관 2층에서 열려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일보 2015.03.26. 이경웅 기자]

[양양]향토축제 현산문화제 더 화려하게

[양양]양양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7회 양양 현산문화제가 오는 6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다.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다. 현산문화제위원회는 25일 문화복지회관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군의장,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현산문화제 일정 등을 이 같이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하던 최익수 현산문화제위원장 직무대리가 사퇴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김택철 군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택철 현산문화제위원장은 "진정한 군민들의 한마당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현산문화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풍농·풍어를 기원하며역사성과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향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미디어 2015.04.06.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강원도 양양 물치만세운동을 아시나요~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오는 10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물치항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 물치 장날에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의 하나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군은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양양문화원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양양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3.1만세운동 96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행사는 당일 10시부터 물치항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의사 김사만의 후손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며 삼일절 노래제창과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족 및 기관단체장을 비롯 김진하 양양군수, 최홍규 양양군의회 의장, 김홍남 강릉보훈지청장,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희생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장날을 기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원일보 2015.04.07. 이경웅 기자]

양양 96년전 물치장날 독립만세 기린다

[양양]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오는 10일 양양군 강현면 물치에서 열린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5일 물치 장날에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으로 강현면민의 드높았던 애국열사활동을 통해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다. 양양문화원 주최로 열리는 올해 물치만세운동은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던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3·1만세운동 96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물치항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의사 김사만의 후손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한다.

[강원도민일보 2015.04.07. 최훈기자]

양양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

강원도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총절의 고장 양양에서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강현면 물치항 주차장에서 3·1만세운동 96주년을 맞아 애국열사와 유족,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 물치 장날에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양군은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의사 김사만의 후손인 김종명씨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는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3·1운동 당시 의사, 열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양양 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희생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강현면 물치리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신문 2015.04.13. 김주현 기자]

일제 항거 독립운동 뜻 기려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양양문화원은 3·1만세운동 96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전 10시 강현면 물치에서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주관하고 강릉보훈지청과 양양군이 후원한 제7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김진하 군수와 애국열사 유족, 지역주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제에 항거한 물치만세운동의 의미를 기렸다.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식전행사로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의 물치만세운동 재연 연극 공연에 이어 유족대표의 독립선언문 낭독, 의사·열사의 활동내용 소개,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물치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0일 물치장날을 기해 지역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7회 물치만세운동 행사가 지난 10일 강현면 물치 주차장에서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15.04.24. 최훈기자]

오늘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

양양문화원은 24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식 세명대 교수와 김천서·최장환 경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영표 관동대 교수, 조진관 경동대 교수, 이기용 양양군의원, 윤여경 양양군 문화관광과장이 토론을 한다.

'양양'이라는 지명은 태종 16년(1416년) 양주를 개칭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양양문화원은 내년이면 정명 600주년이 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ews1 2015.04.24. 엄용주 기자]

양양 '새로운 도약'...정명 600주년 관련 사업 발굴

24일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 개최



양양군이 정명 600년을 맞아 군을 널리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24일 양양복지관에서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문헌 국회의원(새·속초고성양양), 김진하 양양군수, 최홍규 양양군시장, 장석삼 도의원을 비롯해 군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의 '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

비전', 김천서 경동대학교 교수의 '새로운 양양 600년 문화 전략', 최정환 경동대학교 교수의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 등 주제발표와 양언석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사회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천서 교수는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전국규모 대회로 발전시켜 전국의 소리꾼을 발굴하고 지역인지를 높여 2018 동계올림픽 개최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추진해야한다"며 "동구리를 활용한 전통문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는 세종대왕이 강원도 순행 중 연곡리에 머물며 농가(農歌)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경창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양양의 관노인 동구리가 가장 노래를 잘했다는 조선왕족실록의 근거로 실시됐다.

이외 다른 발제자들은 양양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파크존 조성, 양양 특성에 맞는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정문헌 국회의원은 "뿌리를 알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양양군은 새로 거듭나기 위한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양양전통 뿌리를 이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세미나가 정명 600주년을 맞아 양양군 발전에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5.04.27. 최훈기자]

"양양 역사문화 활용 테마파크 조성"

■ 양양정명 600주년 세미나

"선사시대 유적지 풍부 관광상품화 방안 모색"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가 지난 24일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태종 16년(1416년) '양주'를 개칭해 '양양'이라는 지명을 사용, 내년이면 정명 600주년이 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하 군수와 정문헌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원도립대 양언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식 세명대 교수는 '양양군의 역사적 특성과 미래비전' 주제발표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경관녹봉론을 통해 언급했던 양양지역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가 대단하다"고 평가한 뒤 낙산사, 동해신묘, 연어, 송이 등 역사문화자원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랜드파크존, 마인드파크존, 판타지파크존 조성등을 제안했다.

김천서 경동대 교수는 "양양지역은 선사시대 유적지와 풍부한 문화자원은 물론 내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평창겨울올림픽 관문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동구리 민요경창대회'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등 문화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정환 경동대 교수는 웰빙식품 테마공원 조성을 활용한 관광지 유치방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영표 관동대 교수, 조진관 경동대 교수, 이기용 양양군의원, 윤여경 양양군 문화관광과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설악신문 2015.04.27. 김주현 기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바탕 새롭게 도약”

양양문화원 '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 전통문화축제 개발·웰빙식품테마공원 조성 등 제안

양양문화원이 내년이면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을 쓴 지 6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지난 24일 '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를 열었다.

양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양군과 군의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 태종 16년(1416년)부터 사용해 온 '양양'이라는 지명을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식 세명대 교수는 "지역역사는 자원이기에 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양양군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감성 활성화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적 마인드마크 정립 △광역행정 개편 대비 전략 마련 △겨울철 찾아오는 양양가꾸기 △양양향 및 지역인문학 접목 성장엔진 찾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천서 경동대 교수는 "정명 600년을 맞고 있는 양양군은 신석기 유적인 오산선사유적지를 비롯해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

고, 동구리와 허억봉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며 "내년이면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통문화를 발굴해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문화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해 지역소득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양양동구리 전통문화축제 개발 △양양동구리 전통문화클러스터 조성 △동구리 아카데미사업 추진 등 전통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한 최정환 경동대 교수는 "600년의 고도인 양양군은 곳곳에 산재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상품 발굴이 시급하다"며 "생태와 친환경, 자연경관이 접목된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웰빙식품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명 600주년을 맞는 양양군의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주중과 주말 방문객의 평준화, 각종 행사 후 파급효과 높이는 바 이어 유치 등을 제안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우리 양양군은 오랜 역사 속에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며 동북아의 번영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그동안의 굴곡과 수많은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꽃피운 기상과 절개를 자랑해온 우리 양양군이 이제 정명 6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의 사회로 신종원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와 김영표 관동대 교수, 조진관 경동대 교수, 이기용 양양군의원,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세미나가 지난 24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강원신문 2015.05.27. 황만호 기자]

양양군, 현산문화제 준비에 '구슬땀'

양양군민의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이른 6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행사준비에 한창이다.

군에 따르면 현산문화제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무리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산문화제를 위해 읍면에서는 체육종목 출전 선수들이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7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로 금년에는 현충일과 겹쳐 치러지는 만큼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알차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 해 예산은 2억7천만원으로 군부대 및 지역사회단체의 시가행진, 락밴드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불꽃놀이, 농악공연, 민속놀이 등 민속고유의 놀이와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는 6월 6일, 하루 동안 축구, 배구, 족구, 육상, 테니스, 탁구, 피구, 게이트볼 등의 종목에 대해 읍면대항으로 치러진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가 군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는 축제가 아닌 즐기는 향토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양양정명 6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성을 부각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한마당 잔치를 통해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의 많은 인기속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노래자랑은 6월 4일 오후 8시부터 남대천 둔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강원일보 2015.05.28. 이경웅 기자]

[양양]현산문화제 열기 후끈

[양양]양양군민의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준비가 손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6월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현산문화제는 개최를 1주일 앞두고 읍·면에서는 체육종목 출전 선수들이 별도의 훈련을, 읍·면별 추진위원회에서는 종목별로 분담해 훈련선수 위문을 실시하는 등 벌써부터 문화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7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

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양양 고유의 민속축제다. 올해 축제에서는 락밴드·평양예술단 공연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CNBnews 2015.05.28. 최성락 기자]

양양군, 현산문화제 준비 '만전'

양양군은 양양군민의 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지난해(6월19일~21일)보다 2주가량 이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산문화제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무리 점검을 추진 중이다.

또 군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산문화제를 위해 읍면에서는 체육 종목 출전 선수들이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읍면별 추진 위원회에서는 종목별로 분담해 훈련 선수 위문을 실시하는 등 벌써부터 문화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산문화제 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7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다.

특히 군은 올해는 현충일과 겹쳐 치러지는 만큼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알차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군부대 및 지역사회단체의 시가행진, 락 밴드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불꽃놀이, 농악 공연, 민속놀이 등 민속 고유의 놀이와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체육대회는 다음 달 6일, 하루 동안 축구, 배구, 족구, 육상, 테니스, 탁구, 피구, 게이트볼 등의 종목에 대해 읍면대항으로 치러진다.

한편 군민의 큰 인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노래자랑은 내달 4일 오후 8시부터 남대천 둔치에서 펼쳐진다.

특히 군은 현산문화제의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종목별로 담당급 1명씩 지정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행사장 주변을 정비하고 임시상가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군민 화합의 장인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수송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제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는 축제가 아닌 즐기는 향토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양양정명 6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성을 부각해 군민의 자

공심을 고취시키고 한마당 잔치를 통해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역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5.06.02. 최훈 기자]

양양 현산문화제 4일 개막

양양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37회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남대천 둔치 일대에서 개최된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김택철)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시가행진, 락밴드·평양예술단 공연, 농악 등 민속고유의 놀이와 문화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현산문화제와 함께 열리는 군민체육대회는 6일 하룻동안 축구, 배구, 족구, 육상, 테니스, 탁구, 피구, 게이트볼 등의 종목을 읍·면 대항으로 경연을 벌인다.

이와함께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오색케이블카 유치기원 제16회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대회'가 현산문화제 다음날인 7일 오전 9시 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강원일보 2015.06.06. 이경웅 기자]

【양양】충절의 고장서 막 올린 현산문화제 오늘 양양 군민체육대회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및 제47회 군민체육대회가 5일 남대천 둔치에서 개막식을 갖고 막이 오른 가운데 양양군민 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양양】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 및 제47회 군민체육대회가 5일 남

대천 둔치에서 개막식을 갖고 막이 올랐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현산문화제는 식전행사로 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려 충절의 고장임을 재확인하고 개막식을 시작으로 탁장사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특공무술, 읍·면별 민속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 장군 굿, 추성판소리, 상평초교 기악합주, 초청가수 공연과 농악경연, 청소년 국악사물놀이경연, 한시 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연이 열리고, 전시회와 시낭송회·회화대회 등이 열렸다.

6일에는 제47회 군민체육대회와 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열리며 축제 기간 내내 전통민속체험장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회, 향토음식 체험, 미천골자연휴양림 체험, 아나바다장터, 마음나누기 행복더하기 등이 마련된다.

특히 7일에는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가 열린다

[강원일보 2015.06.08.]

【포토뉴스】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제5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설악신문 2015.06.15. 김주현 기자]

제5회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설악초교,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

양양문화원이 지난 7일 제37회 현산문화제를 기념해 개최한 제5



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 일반부 영월팀과 학생부 속초 설악초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부와 학생부 등 도내 25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는 흥원도 씨 등 6명이 한조를 이룬 영월팀이 '뗏목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러 최우수상을, 속초아리랑보존회와 고성아리랑보존회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10개팀이 입상했다.

학생부에서는 '서낭 굿소리 심어주게 메어나 주게 타작소리'를 부른 설악초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부터 강원도 대회로 격상돼 열리고 있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대회 규모가 확대되고 소리 수준도 높아져 전국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 "양양의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전국 대회로 격상되도록 수준 높은 대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설악초교 학생들이 우리소리를 구성지게 부르고 있다.

[Break뉴스 2015.11.03. 강대업 기자]

[공모] 양양 정명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2016년, '양양' 명칭으로 불려진 600주년



▲ 양양군청 © 브레이크뉴스강원 강대업 기자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16년은 도시가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군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응모 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기타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11.2~20일까지 응모 신청을 받으며 1인 1건에 한정 신청이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입상자는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인에게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양양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로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가 마련되면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원신문 2105.11.03. 황미정 기자]

양양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등으로 20자 이내 표현

【양양=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16년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불려진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양양군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모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기타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며, 1인 1건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응모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입상자는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인에게는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작품은 미발표된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을 시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양양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로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2015.11.03. 이종건 기자]

양양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양양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양양군이 양양 명칭 사용 600주년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념 슬로건을 공모한다.

3일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은 조선 태종 16년(1416년)부터 사용 해온 지역명으로 내년이 명칭 사용 6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이를 기념하는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슬로건은 양양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양양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20자 이내로 함축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1인 1건만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angyang033@kccf.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표절 시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대상(1명)에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33-670-2728)으로 하면 된다.

[뉴스1 2015.11.03. 윤창완 기자]

양양군,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20일까지 접수

강원 양양군이 정명 60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해인 2016년은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된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군은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슬로건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등을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1인당 1건을 신청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자는 응모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 사무실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상 1인에게는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된다. 응모작품은 미발표된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을 때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입상자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NB저널 2015.11.04. 최성락 기자]

양양군, 정명 6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2016년, 양양 명칭 불린지 600주년 되는 해"

양양이라는 명칭으로 불린지 내년이면 6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양양군이 내년에 맞는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슬로건의 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양양의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기타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1인 1건으로 한정한다.

응모는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양양 600주년을 맞아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양양의 정체성을 확립해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로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5.11.04. 최훈 기자]

양양군 정명 600주년 슬로건 공모 20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내년 양양군 정명 600주년을 앞두고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발전 및 비전 제시, 지역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서를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양양군은 정명 600주년을 맞아 조례를 통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홍보 동영상과 책자 발간, 기념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일보 2015.11.04. 박기용 기자]

[양양]양양600년 슬로건 공모

[양양]양양군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양양600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16년은 양양 명칭을 쓴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군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 양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치를 부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슬로건을 20일까지 공모한다. 양양문화원에서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접수하며 20자 이내로 표현해야 하며 대상 1인에게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악신문 2015.11.09. 김주현 기자]

양양군 '정명 600주년' 슬로건 공모

이달말까지 문화원서 접수 비전 제시·자긍심 고취 등 양양군이 내년 정명 600주년을 앞두고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응모내용은 △양양의 발전 및 비전 제시 △양양인의 자긍심 고취 △양양의 가치 부각 △기타 양양을 빛낼 수 있는 내용이며, 20자 이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1인 1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양양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yangyang033@kccf.or.kr)과 우편 또는 양양문화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일보 2105.11.14. 최영재 기자]

윤천금·김경남 듀엣앨범 '친구' 오늘 양양문화복지회관 콘서트

영월 출신 가수 윤천금이 김경남과 함께 듀엣 앨범 '친구'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친구'는 늦가을 날씨와 어울리는 감미로운 곡으로 외롭고 힘들 때 해묵은 슬픈 일들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벗이 되자는 내용이다. 두 가수는 14일 오후 7시 양양문화원 주최로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통해 새 앨범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현용 웃음치료가사가 진행을 맡고 윤천금 김경남 외에도 가수 김순남과 양양600합창단, 통기타 해당화울림 등이 출연한다.

한편 천사같은 아내와 연가 등으로 인기를 얻은 윤천금은 강릉시 초당동에 한식당 초당 수라간을 개업해 운영중이다.

편/집/후/기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16년은 우리 양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군민모두가 역사에 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해로 이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원의 여러 사업 중 향토사 연구소의 연구 활동으로 “6.25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통치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많은 군민들의 증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襄陽文化”의 내용을 알차게 편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항상 미흡함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2월 어느 겨울 아침에....

襄陽文化院 事務局長 金光泳

양양문화 제27호

2015年 12月 22日 印刷

2015年 12月 28日 發行

발행인 : 윤 여 준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도후 외
사부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



양양 600년의 **꿈**
천년의 **비상!**

